

제주학(濟州學)의 선구자들, 제주를 빛내다



제주문화예술회관

차 례

- 001. 석주명(石甯明)의 “제주도학(濟州島學)”과 국토구명사업(國土究明事業)
전 경 수(서울대 교수, 인류학)
- 033. 석주명(石甯明), 제주학(濟州學)의 불을 밝히다
오 창 명(제주학연구소장, 국문학)
- 051. 제주도 식물학의 효시, 타케
김 찬 수(국립산림과학원 난대림연구소, 식물학)
- 063. 심재 김석익선생을 기리며
오 문 복(제주동양문화연구소장, 한학자)
- 071. 제주사(濟州史) 연구의 선구자, 춘송(春松) 김태능(金泰能)
홍 기 표(성균관대학교 강사, 역사학)
- 105. 천부적(天賦的) 인류학자(人類學者) 이즈미 세이치(泉靖一)의
생애(生涯)와 학문(學問)[中間報告]
전 경 수(서울대 교수, 인류학)
- 141. 心齋 金錫翼의 제주역사 인식 _ 『耽羅紀年』을 중심으로
박 찬 식(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 역사학)

石宙明의 “濟州島學”과 國土究明事業

전 경 수
(서울대 교수, 인류학)

- 차 례 -

1. 머리말
2. 著述과 踏查
3. “濟州島學”의 시발점
4. 結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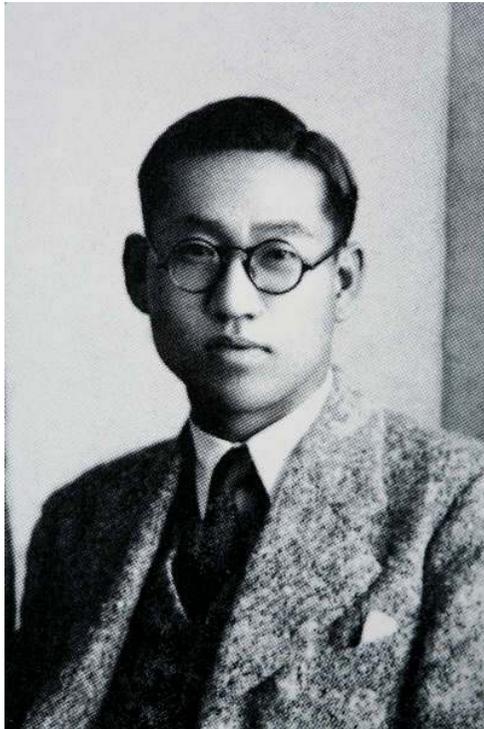
한 학자의 학문세계를 섭렵한다는 것은 그 분이 투신하셨던 학문 분야의 내용과 개인적인 업적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전제로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당신 스스로 “나비박사”라고 자칭하셨던 석주명 선생의 학문세계를 논하는 작업은 인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해내기 어려운 것임에 틀림없다. 나비학과 인류학의 접합은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아도 시도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나비를 포함하는 곤충에 대한 민속지식의 체계를 정리

하고 그 의미를 분석해보는 民俗昆蟲學(ethnoentomology)이란 것을 창안해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분야의 개척에도 필자는 미력하기가 짝이 없다. 선생이 타계하신 지 육십 년이 가까운 시점에서 선생의 업적 전체에 대해서 조명한다기보다는 선생께서 심혈을 기울이셨던 제주도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족적을 정리해보는 수준에서 본고의 의무를 가름하고자 한다.

석주명 선생께서 관심을 갖고 업적을 내신 학문 분야는 단연코 나비와 관련된 응용곤충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비를 채집하고 분류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선생의 관심은 부차적인 작업으로서 에스페란토와 제주도에 대한 열정을 보였다. 에스페란토는 국제공용어로서 학습을 주로 하면서 해방이 된 후에는 에스페란토의 보급을 위한 강의를 주로 하셨다. 그의 제주도에 관한 관심은 그 스스로 일구어낸 창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제주도에 관심을 가진 사람의 하나이다.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제주도에 관한 것이면 수집 정리하는 것이 나의 연구 테에마의 하나이다. 그러니 나에게서는 제주도에 관한 자료는 정리가 된 것 안된 것이 많이 있다"(石宙明 1949.1.: 100). 그에게 제주도는 새롭게 나타난 연구분야였으며, 단기방문이 아니라 서귀포의 토평에 소재하였던 京城帝國大學 附設 生藥研究所 濟州島試驗場에 부임(1943년 4월부터 1945년 5월까지)하여 장기체류에 의하여 시작된 관심이었다. 에스페란토라는 언어에 달통하였던 석주명이 그가 새롭게 만났던 제주도의 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호기심의 연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농학에서 출발하여 곤충학과 생물학 분야의 학자였던 석주명 선생이 제주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제주도에 관한 자료들을 모아서 정리하고 출판한 것은 제주도라는 것이 하나의 독립적인

연구대상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의 제주도에 대한 관심은 생물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문학과 사회과학 전반에 걸친 것들임을 그의 저술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 그의 진술대로 “제주도에 관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정리하고 연구하였던 제주연구의 기본적인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석주명이 시작했던 제주도학의 전개와 한계이기도 하다. 나는 석주명의 이러한 입장을 현대적인 의미에서 濟州學의 시발점이라고 이해하고 싶다.



◀ 1938년도 동경에서 찍은 사진(난사석주선박사 추모사진집 간행위원회 1998. 5. 2. 일부 발췌)

석주명의 업적들 중에서 특이한 것은 “국토구명사업”에 참가한 것이다. 해방직후 “국토”에 관심을 갖은 조선산악회(회장 송석하)

는 제1회 국토구명사업(1946년 2월)으로 제주도와 한라산의 적설기 등반을 하였다. 그 이후 제7회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석주명은 제2회 때부터 참가하였고, 제5회부터는 이 사업의 총책임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의 나비에 대한 관심은 해방정국에서 확인이 필요하였던 국토의 재발견으로 연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혼란스러운 정국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전공분야를 바탕으로 해방정국에 기여한 석주명의 슬기로운 입장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2. 著述과 踏查

석주명이 스스로 작성한 “業績目錄 及 解説”은 “學術篇”과 “雜記篇”으로 구분되어 있다(석주명 1971: 215-240 참조). 총 101 종으로 기록된 학술편은 1932년부터 1950년까지 발표한 학술논문과 단행본 서적을 주로 하여 구성된 것인데, 대부분이 나비와 관련된 것들이다. 그 이외의 단행본으로는 제주도총서 1로 출판된 <濟州島方言>이 1947년, 제주도총서 2의 <濟州島生命調査書=濟州島人口論>과 제주도총서 3으로 나온 <濟州島關係文獻集>은 1949년에 발간되었다.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는 <德積群島學術調査報告書>(1950년 6월간행)가 있다. 나비 이외의 논문류로는 <國學> 3호(pp. 25-28 & 36, 1947년)에 게재된 “耽羅古史”, 金貞煥 편 <現代文化讀本>에 실린(pp. 35-65) “國學과 生物學”(1948년 간행), “濟州島方言과 馬來語”는 <朝鮮教育> 3(3): 17-19(1949년 간행) 등이 있다.

잡기편은 모두 180건이 기록되어 있고, 1927년부터 1950년까지 발표된 문서들이다. 대부분은 나비를 주로 한 생물학 관련 글들이

고, 그 이외에는 에스페란토 관련 글들과 등산 및 학술조사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도 제주도 관련 글들이 적지 않다. 대부분은 신문과 잡지에 기고한 것들이다. 그는 가끔 필명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金永石”(석주명 1948. 2.), “石風生”(석주명 1948. 8. 20.), “金永錫”(석주명 1949. 2.) 등이 있다.

선생이 남긴 학문적인 업적은 뭐니 뭐니 해도 1931년부터 시작한 나비연구의 결정판들이다. 1926년 3월 송도고보를 졸업하고 가고시마 고등농림에 유학하였고, 농학과를 선택한 것은 송도고보 윤치호 교장의 영향이었다고 한다. 농학과에 입학하여 1년을 공부한 뒤, 2학년에 올라가면서 博物科(지금의 생물학과)로 전과하여 농생물학을 전공하였으며, 그중에서도 곤충과 식물병리가 주된 과목이었다. 즉 석주명은 응용곤충학으로 길을 걸었으며, 일본곤충학회 회장을 지낸 바 있는 오카지마 긴지[岡嶋銀次]교수의 권고로 조선나비에 관한 연구에 입문하게 되었다. 석주명은 은사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 1936년에 그가 금강산에서 처음 채집한 나비를 “긴지부전나비”로 명명하였다. “긴지”는 오카지마 긴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1938년 영국 왕



▲ 1942년 평양에서 林原面 산장으로 가는 길(석주선과 석주명); 난사석주선박사추모사진집 간행위원회 1998. 5. 2.)

립아시아학회로부터 제의를 받고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조선산 접류 총목록)>을 쓰게 되자 어머니가 영문 타자기를 사주기도 하였다. 어머니가 그의 학문 후견인이었다. 타자기 한 대 값이 당시 황소 한 마리와 동일하였다. 석주명의 부친은 평양에서 가장 큰 요릿집인 又春館을 경영(이병철 1989: 16)할 정도로 부유한 편이었다.

그가 채집을 다닌 곳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만주와 시베리아의 국경지대인 滿洲里, 용정(1939년), 흥안령(1940년 여름), 홋카이도와 사할린(1937년 8월), 대만 등지로 뻗었다. 대만에는 가고시마고농 시절에 방문하였던 것이고, 홋카이도와 사할린은 일본동물학회의 논문 발표자 학회에 참석하였다가 연장선상에서 답사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그가 사할린의 시스카 토인교육소(敷香土人教育所)를 방문한 것은 지극히 민족학적인 답사의 면모를 보인다. 왜냐하면 그를 그곳에서 안내하였던 사람은 토인교육소의 카와무라 히데야[川村秀彌]였고, 오타수노모리[オタスの杜]에서 “인종학적 지식을 습득”하였다(石周明 1938). 오타수노모리는 일본이 남사할린[樺太]을 점령한 뒤, 소련과의 국경 근처에 산재한 소수민족들을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시스카[敷香: 현재의 포로나이스크]를 중심으로 흐르는 포로나이 강하구인 “사치”에 집결시켜서 토인교육소를 설치하여 일본어 및 일본풍속을 교육하던 곳이었다. 그곳의 책임자였던 카와무라 히데야는 “오타수”의 소수민족들인 어웁키, 나나이, 율타, 으르첸, 아이누 등에 대해서 적지 않은 보고서도 발간한 바 있다.

북만주의 흥안령으로 답사를 나갔던 석주명은 두 차례(1937년 3월 27일; 1940년 8월 5일)에 걸쳐서 “朝鮮開城中學校教諭”의 자격으로 하얼빈에 있던 대륙과학원 하얼빈분원(The Harbin Laboratory of the Institute of Scientific Research, Manchoukuo)을 방문하였다

(석주명 1941. 1. 1. & 1941. 1. 20.). 그것은 명실공히 박물관이었으며, 당시 하얼빈을 방문하는 유력인사들은 모두 둘러보는 곳이었다(後註 2). 당시의 답사는 일본학술진흥회의 연구보조금으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지역의 민속과 언어에 대해서도 짚막하게 보고하고 있다. 즉 석주명은 나비와 관련된 답사를 하는 과정에 당시에 유행하였던 민족학적/인종학적 자료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기록을 남긴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필드과학”의 경험 이후 제주도에서 언어와 민속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지적 배경을 이루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나비 채집을 위해서 전국토와 동아시아를 여행한 그의 족적은 산악회의 학술활동으로 이어졌다. 산악회의 활동은 해방과 전쟁 사이에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 당시 국토구명사업이란 것은 해방직후 조선산악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하나의 학술운동이었다.

제1회 국토구명사업의 일환으로 적설계 제주도 한라산 학술등반대(대장 송석하)가 1946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21일간 제주도를 답사하였다. 3월 29일 국립과학박물관 강당에서 보고회를 가졌고, 동년 6월 15일 명동극장을 빌려서 제주도 학술조사시찰영반 李庸民에 의해서 제작되었던 <濟州島風土記>(전4편)은 “國際劇場(당일 시공관으로 변경) 시사회에서 공개되었고 동 22일 군청청 문교부에서는 최초의 추천영화로 결정하였다. 일반 공개는 7월부터이고 8.15의 일주년기념공연으로 대대적 선전 하에 國都劇場에서 공연되었다”(石宙明 1949. 1.: 101). 제1회 제주도 답사에 제주도 연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석주명이 참가하지 않은 것은 당시의 학술조사대가 國立民族博物館(관장 宋錫夏)과 朝鮮山岳會(회장 송석하)를 주축으로 하여 구성되었고, 당시 석주명은 양쪽 기관과는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 특히 석주명은 당시 새로 부임한 수원농사시험장의 병리곤충학부장으로 바쁜 일정이었을 것이다.

제2회 국토구명사업은 1946년 7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19일간 오대산(대장 송석하)이었고, 석주명이 동물반의 일원으로 참가(동물반에는 김희호, 이종익, 이영로)하였다. 이 사업의 보고 강연회는 국립과학박물관에서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여섯 가지 주제로 개최되었다. 동물분야를 석주명이 보고하였다. 1946년 4월 조선산악회 제2회 정기 총회가 국립과학박물관에서 개최되었고, 석주명은 학술담당 상임이사로 선출되었다. 1947년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제3회 국토구명사업의 일환으로 소백산맥 학술조사대를 파견하였다. 대장은 홍종인이고, 부대장은 석주명이었다(석주명은 보통학교 시절 두 학년 위인 형 宙興과 형의 같은 반 친구인 洪鍾仁과 늘 어울려 다녔다). 제3회 사업은 정치적 소용돌이와 치안상황의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수행되지 못하였고, 그에 이어서 곧 바로 1947년 8월 16일부터 28일까지 13일간 제4회 국토구명사업으로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대를 파견하였다. 9월 10일 동대의 보고강연회가 국립과학박물관에서 있었다. 석주명이 ‘동물’ 분야를 발표하였다(전경수 1999: 121-123 참조).

울릉도·독도 학술조사시에는 해군 통위부가 제공한 경비정 大田號를 타고 포항을 떠났다. 석선생은 울릉도의 나비를 쫓아다니다가 길을 잃고 계곡에서 1박을 하는 바람에 일정에 마련된 독도 방문을 놓치기도 하였다. 즉 당시 석주명은 독도를 방문하지 못하였다.

제5차 국토구명사업은 ‘車嶺山脈學術調查’로서 석주명이 隊長으로 참가(1948년 8월 17일~ 8월 29일)하는 계획이었으나, 정국의 불안과 제주도 4.3사건후 산악지대에서 활동하는 좌익세력으로 인해서 취소되었다. 이후 두 번의 국토구명사업은 산악을 피하고 섬

지방으로 방향을 돌렸다. 제6차국토구명사업에 석주명은 ‘仙甲島·德積群島 學術調査’ 隊長으로 참가(6월 11일~6월 17일)하였으며, 제7차국토구명사업 ‘多島海 叢海 學術調査’ 隊長으로 참가(8월 9일~8월 24일)하였다, 다도해 때에는 목포수산시험장의 朝洋丸(39톤)을 이용하였다. 이때 기록영화 ‘多島海’가 전국의 극장에서 상영되었다. 보고강연회가 국립과학박물관에서 있었고, 동행했던 김영기 화백의 유화 전시회가 미국문화연구소(지금의 미도파)에서 개최되기도 하였다. 석주명은 ‘多島海踏査記’를 9월 3일과 4일에 걸쳐서 國都新聞에 연재하였다. 9월 14일자 연합신문 4면은 ‘多島海 綜合報告’라는 기사를 실었고, 코스는 목포를 출발하여 대흑산도-매가도(홍도)-상태도-중태도-하태도-소흑산도-거차군도-하조도-상추자도-하추자도-횡간도-거문도군도-완도-우수영-목포까지의 13개 섬이었다.



▲ 울릉도·독도 답사시절에 찍힌 사진으로서 오징어를 말리고 있는 장면이다. 울릉도의 태하리일 것으로 생각되며, 이 사진은 대구매일신문 전충진 기자가 제공해준 것이다. 오징어를 말리기 위해서 작은 꼬챙이를 가운데 끼는 것을 “탱기친다”고 하는데, 탱기가 울릉도에 많이 자생하는 대나무를 잘라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나무를 쪼개어서 사용하지 않고 통째 토막으로 사용하는 것이 특이하다.

1950년 6월 9일 한국산악회는 종로 Y.M.C.A. 강당에서 제5회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에 현동완, 부회장에 석주명과 홍종인을 선출하였다. 이렇듯이 해방정국의 혼란한 가운데서, 석주명은 산악회의 일원으로서 국토구명사업의 일환으로 학술운동을 열심히 전개한 중심인물들 중의 한 명이기도 하였다.



▲ 울릉도·독도학술조사대의 사진(한국산악회 제공). 촬영지 미상.

석주명은 1946년 9월부터 국립과학박물관 동물학 연구부장을 맡았다. 관장인 趙福成과 석주명 두 사람은 기술직 공무원의 최고 대우인 技監이었고 나머지 연구원들은 技正이었다. 조복성은 일본인 곤충학자 모리(森)의 조수를 역임했고 종전 직전에 中國 杭州 博物館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국립과학박물관의 식물학 교실에는

한국식물학의 태두 鄭台鉉이 있었다. 동관의 공예실에 석주선(석주명의 여동생, 복식학자)이 근무하였다. 1949년 6월에 발행된 國學大學 졸업앨범에는 석주명이 “自然科學 教授”라고 적혀 있고, 그는 그곳에서 에스페란토를 가르친 것으로 보이는 기록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이 앨범에 실린 사진이 현재까지 필자가 본 사진들 중에서 가장 만년의 사진이라고 생각된다. 이송녕의 기록은 석주명이 國學大學의 專任講師였으며, 自然科學과 에스페란토를 담당하였다고 적었다(李崇寧 1950. 3.). 아마도 당시에는 인재들의 숫자가 적어서 겸직이 많이 성행하였기 때문에, 석주명은 국립과학박물관 동물학 연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국학대학 교수를 겸직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민속학자 임동권의 기억에 의하면, 당시 국학대학 학생들이 석주명 선생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남산에 있었던 국립과학박물관으로 갔었다고 한다. 석주명은 동물학부장실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였다고 하며, 그곳에 국립민족박물관장이었던 송석하 선생이 방문하였던 장면에 대한 기억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국립과학박물관은 과거 통감부시절의 통감부 건물 자리이고, 국립민족박물관은 통감관저로서 두 건물이 가까이 있었다.

나비박사로서의 업적 이외에 그의 저작물들은 에스페란토로 이어지고 제주도과 인연을 맺으면서 그는 제주도와 관련된 저작물들을 출간하였다. 가고시마에 유학을 간 석주명은 에스페란토에 심취하였다. 1927년에 나온 그의 최초 출판물은 에스페란토에 관한 것이라는 점도 기록할만하다. 가고시마 고농의 에스페란토연구회에 가입하여 학습에 열중하였고, 1929년 귀국한 뒤, 평양 매일신문에 “국제어 에스페란토”라는 기사도 적었다.

3. “濟州島學”의 시발점

연보에 의하면, 그가 제주도와 최초의 인연을 맺은 것은 한창 나비 채집에 열중하던 28세였던 1936년 여름이었다. 나비의 채집여행 차 그는 제주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석주명 1937). 이때에는 제주도의 나비에 관련된 논문만 집필되었다.

석주명은 송도고보 교사 시절에 개성에 있었던 생약연구소에 자주 놀러 다녔고, 소장과 점심도 함께 하는 기회가 있었다. 가고시마 고농을 다녔기 때문에, 식물에 관해서도 작업을 할 수 있는가라는 소장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석주명은 송도고보를 사직하고 생약연구소에 근무하게 되었다. 당시 제주도의 시험장에 보낼 사람을 찾고 있던 차에 석주명은 자청하여 파견되었던 것이다.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은 “약초원”에서 약초 재배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것이며, 석주명이 받은 임무는 약초 재배와 관련된 것이었다. 석주명은 그 일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만한 업적을 내지 않았다. 그후 개성의 본소로 귀환하였다가 수원 농사시험장을 거쳐서 1946년 9월 석주명은 국립과학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생약연구소의 제주도시험장은 육이오 후 제주대학이 설립된 이후에 서울대학교에서 제주대학교로 이관되었다(禹麟根 선생의 증언).

석선생이 생약연구소를 근거로 하여 제주도에 거주한 기간은 총 2년 1개월간이다. 이 기간 동안에 그는 제주도 전도와 부속도서들을 살살이 답사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1944년에 발행된 경성제국대학의 <城大學報> 18號에는 일본어로 된 “馬羅島エレジ”라는 글이 수록되어 있다. 1943년 5월말에 곤충채집 차 방문하여 쓴 글로서, 당시 마라도에는 13가구 48명이 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아미씨당 얘기를 金成宗(1943년 당시 74세) 옹으로부터 듣

고 당의 전설을 소개하였다.

赤松智城와 秋葉 隆가 1937년에 공저한 <朝鮮巫俗의 研究>(上. 下)에 실린 兪山堂本解와 자신이 채록한 것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赤松와 秋葉의 자료는 西歸男巫朴奉春 구전의 것(1920년대말과 1930년대초)이고 석주명이 수집한 자료는 吐坪里男巫金海春 구전의 것이다. 양자는 수집 시기에 있어서 약 십오 년의 차이를 보이고 두 체보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거리도 약 십리 정도 된다는 설명도 부가되어 있다(석주명 1946: 15). 경성 제국대학 법문학부의 종교학자와 인류학자가 공동으로 수집한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한 연후에 자신이 1943년부터 1945년 사이에 수집한 자료를 소개함으로써 체삼자가 대조하여 판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석주명은 보통학교 졸업 후 평양의 송실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하였다. 일학년 상급생인 안익태 등과 함께 신극운동을 하였으며, 동맹휴학에 가담하고 송실고보를 떠난다. 지방 순회공연을 하는 동안에 석주명은 여장 남자 역할을 맡았고, 그의 만들어진 연주가 일품이었다. 후에는 기타리스트로서도 자타가 공인하는 연주가였다. 이러한 음악소질 덕분에 후일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 민요 오돌또기를 채보하여 널리 알리는 공적을 세웠다. 석주명은 늘 “둥구데당실 둥구데당실...’하며 ’오돌또기’를 불렀다고 한다. 그는 방언의 가치에 대해서 심도있는 주목을 한 사람이고, 그의 의도는 자신의 영문 이름자에도 반영시켰다. 즉 그의 영문 이름자는 "D. M. SEOK"이었는데, 앞의 "D. M."자는 “주명”의 평안도식 발음인 “두명”의 머릿글 약자라는 점을 그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만큼 방언이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알려야할 자신의 이름자에서 적기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그는 <濟州島方言>을 저술하

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1947년부터 간행된 濟州島叢書 여섯 권 중에서 제1권 <濟州島方言>, 제2권 <濟州島生命調査書-濟州島人口論>, 제3권 <濟州島關係文獻集>은 생전에 서울신문사에서 발간하였다. 제4권 <濟州島隨筆-濟州島의 自然과 人文>, 제5권 <濟州島昆蟲相>, 제6권 <濟州島資料集>은 선생의 死後 석주선에 의해서 寶晋齋에서 출판되었다. 석주명 선생이 타계한 지 육십 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에서 보더라도 제주도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 중에서 그만한 양의 제주도 관련 업적을 생산한 개인은 몇 분이 안 된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에 관해서 적지 않은 연구 문헌을 남긴 15인을 소개한 뒤에 “(그)중에서도 제주도를 월등하게 많이 다룬 학자로는 植物學의 中井猛之進, 濟州島學의 石宙明, 社會學의 善生永助, 動植物學의 森爲三, 方言學의 小倉進平 등 5씨를 들 수 있겠다”(石宙明 1949: 244, 이탤릭은 필자 첨가). 일제시대에 일본인 학자들 중심으로 제주도 연구가 이루어졌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석주명은 자신의 제주도 연구를 “濟州島學”이라고 명명하였다. 식물학이나 동식물학, 사회학이나 방언학과 같은 기득권을 획득하고 있는 학문들과 병렬시켜서 그는 제주도학이라는 용어를 제안했던 것이다.

석주명의 제주도학이나 진성기의 제주도학(진성기 1962)은 거의 유사한 구도로 전개되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진성기가 제시한 바와 같은 제주도학의 도식을 석주명은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제주도에 관한 것이면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석주명의 입장은 진성기가 시도한 도식과 기본적인 정신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제주도학을 구성하는 분야들간의 횡적 연계라는 점에서는 양자가 다 결정적인 결점을 갖고 있다. 소위 학제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역연구가 지향해야 하는 통합과학적 성격(전경수 1998)의 결여를 탓한다면, 지나친 현재중심적 사고가 아닐까. 하여튼 “濟州島學”을 제창했던 최초의 사람은 석주명임에 틀림없고, 그러한 분들의 창의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연구의 초석이 석주명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라고 단언해서 전혀 무리가 없다.

4. 結

석주명의 학문은 나비에서 시작하여 나비에서 끝이 난다. 그의 나비들은 두 번이나 불 맛을 보고 사라졌다. 한번은 석선생이 스스로 화장하였고, 다른 한번은 전쟁 중에 소실되었다. 에스페란토는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학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꾸준히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스스로 “나비박사”라고 자칭한 곤충학자 석주명 학문의 역정 과정에서 “濟州島學”은 자생적으로 태생되었다. 에스페란토에 대한 그의 관심은 외국어 그것도 만국 공용어로서의 외국어를 배움으로서 식민지 시대 일제의 질곡을 벗어나 보려는 의지의 발로와 무관한 일이 아닐 것이다. 나비학과 에스페란토는 그가 남들로부터 내용과 방법론을 배워서 전개한 것이지만, 제주도학은 석주명이 스스로 개척하였다는 차이점을 보인다. 그의 제주도학은 “방언”과 “민속”을 주축으로 하고, 제주도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제주도학이란 용어를 사용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지역연구라는 개념이 제대로 등장하지도 않았던 그 시절에 그는 이미 특정 지역에 대한 학문의 틀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 용어에 걸 맞는

작업을 부지런히 함으로서 후학들이 가야할 길을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의 제주도학이 제대로 과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그의 문제가 아니라 후학들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의 제주도학은 자연과 인문을 두루 섭렵하는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다. 민속학에서부터 언어학과 비교언어학적 관심 그리고 인구학과 여성학에 관한 관점도 제시되었다. 물론 그의 전공분야인 곤충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자료를 축적하였으며, 제주도의 역사와 자연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자료들을 수집한 것은 제주도학의 기초를 닦으려는 의지였다고 생각된다. 요즘 학문활동의 범위와 비교한다면, 불과 2년 동안에 그가 전개했던 제주도학은 그야말로 제주도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2년 동안에 수집한 제주도학의 자료들은 양에 있어서 놀랍기도 하고 질에 있어서도 수작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그의 제주도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분야가 망라된 석주명의 제주도학은 學際的인 자질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제 나에게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제주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의 열정과 축적된 자료들을 어떻게 하면 횡적으로 연결하여 통합과학의 모습으로 濟州學을 전개할 것인가의 문제에 걸려있다. 石宙明式의 濟州島學에서 統合科學的인 濟州學으로 이전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의 과정은 모두 우리의 몫으로 남아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육십 년 전에 이룩된 석주명식 제주도학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작업에서 맴돌게 될 뿐이리라.

【後註】

1. 본고는 2000년에 작성되어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民俗學研究> 8집(2001년 발행)에 게재된 글을 약간 보완한 것이다. 참고할 논문은 다음과 같다. “石宙明의 學問世界: 나비학과 에스페란토, 그리고 濟州學”, 民俗學研究 8: 7-21. 이후 필자는 지속적으로 석주명 선생의 이름으로 발표된 논문과 글들을 수집하였고, 아래에 첨부된 것이 현재까지 수집한 연구업적 목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논문의 중복게재 논의가 심심치 않게 돌아다니는 시절에 이러한 글을 발표하려니 자못 마음이 무겁다. 따라서 나는 과거에 발표된 논문의 증보판으로서 이 원고를 작성하고 있음을 밝힌다. 논문이 수정증보되는 것은 필요한 작업이고, 그 과정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

2. 만주국의 대륙과학원은 거의 자연과학 분야를 총망라한 조직이었고, 만주의 자원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주 목적이었다. 하얼빈에 있었던 “大陸科學院哈爾濱分院”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박물관이었다. 1922년 東支鐵路의 건설 기념으로 하얼빈에서 동방문물연구회 중심의 전람회가 있었는데, 그 전람회에 출품된 물건들을 기초로 시작한 것이다. 1928년에 이 지역의 행정권이 소련으로부터 중화민국으로 이관되었고, 그에 따라서 1929년 中華民國東省特別區教育廳하 東省特別文物研究會로 재구성되었다. 1931년 東省特別區文物研究所(官立), 만주국 이후 1933년 北滿特別區立文物研究所로 개명하였다. 1935년 3월 22일 大陸科學院이 설립되면서, 1935년 5월 日系副所長이 부임하였고, 1936년 1월 1일 濱江省文物研究所로 개명하였고, 1937년 1월 1일 國務院 직할의 大陸科學院哈爾濱

分院이 되면서, 체계적인 조직과 진열이 시작되었다(匿名 1937. 7. 25.). 고고부와 토속부로 나뉘었고, 이 분야의 전공자로 러시아인 Ponosov가 적지 않은 업적을 남겼다. 북경의 주구점을 발굴하였던 스웨덴 고고학자 Anderson이 내방(1938년 5월 17일)하였고, 康德 5년 11월 2일 회령천주교신부 프리돌린 짐머만(독일인, 오스트리아 神言會學院 민족학박사)도 방문한 곳이다.

【석주명의 연보】

1908년	평양 里門里에서 廣州 石氏 平壤派 30대 손 石承瑞와 全州 金氏 金毅植의 3남 1녀 중 2남으로 태어남(양력 11월 13일, 음력 9월 23일)		
1914(6세)	書堂에서 漢文 修學 시작		
1917(9)	평양 公立鐘路普通學校 입학(4월)		
1921(13)	보통학교 졸업(3월), 崇實高等普通學校 입학(4월)		
1922(14)	同盟休學으로 숭실고보 중퇴, 開城 松都高等普通學校로 전학		
1926(18)	송도고보 제7회 졸업(3월), 결혼, 일본 鹿兒島高等農林學校 農學科 입학(4월)		
1927(19)	同校 博物科로 전과(4월), 校內 '에스페란토연구회' 참여, '에스페란토학습에 관하여' 등 2편의 잡문을 교내 《La Espero》誌에 발표.		
1928(20)	臺灣 곤충 채집여행(8월)		
1929(21)	가고시마고등농림 박물관 졸업(3월), 함경남도 咸興의 永生高等普通學校 박물관 교사 부임(4월), 첫 부인 死別		
1931(23)	모교 松都高普 박물관 교사 부임, 본격적인 나비연구 시작(4월), '앤드류즈 탐험대' F. K. Morris를 만나 미국 박물관들과 표본 교환 및 재정 원조 약속		
1932(24)	첫 논문 <朝鮮球場地方産蝶類目錄>을 球場普通學校長 高塚農次와 共著로 《Zephyrus》誌에 게재		
1933(25)	하버드대학 T. Barber 박사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백두산 채집여행		
1934(26)	평양 제2高女 출신 金允玉과 재혼, 함북 일대와		
		간도 龍井 채집여행(8월)	
		1935(27)	딸 允希 출생(3월 19일), 금강산 등 강원도 채집여행(5월), 충남과 전라도 채집여행(7월~8월)
		1936(28)	전남 해안과 제주도 채집여행(7월~8월)
		1937(29)	경남 채집여행(6월), 日本 北海道帝國大學에서 제13회 日本動物學會에서 '조선산 굴뚝나비의 변이' 강연 후(8월 2일) 사할린과 홋카이도 채집여행(8월)
		1938(30)	東京帝國大學에서 논문 발표(2월), 영국 '왕립 아시아 학회'로부터 <조선산 나비 총목록> 집필 의뢰 받음. 묘향산 등 西朝鮮 채집여행(8월), '日本學術振興會'에 주요 논문 22편의 목록 및 해설이 통과되어 국고로 연구비 보조 수혜(11월)
		1939(31)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 탈고(3월), 뉴욕에서 인쇄작업. 北京·만주몽고 등지 여행(8월)
		1940(32)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조선산 나비 총목록)》 출판, 萬國鱗翅類學會 正會員에 피선, 함경도와 만주 채집여행(7월~8월)
		1941(33)	'日本學術協會' 제16회에서 '한반도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나비 3종' 강연, 趙福成과 함께 중강진 등 압록강 유역·평안북도 채집여행(8월)
		1942(34)	송도중학 사직(3월 31일), 나비표본 60만 마리 송도중학 교정에서 火葬(4월 18일) 京城帝國大學 醫學部 微生物學教室 開城 '生藥研究所' 촉탁수임. 개마고원 채집여행(6월 17일~7월 16일), 경기·강원·경상도 채집여행(8월 2일~8월 23일), 京城

- 1943(35) 三中井百貨店에서 京城日報社.朝鮮博物學會 주최 '蝶展覽會'(9월 2일~9월 16일)
濟州島에 신설된 '生藥研究所濟州島試驗場'에 전근(4월), 제주 방언 수집시작(4월)
- 1945(37) 開城 本所 복귀(5월) 직후 水原農事試驗場 病理昆蟲學部長으로 옮김(5월), 광복 맞음, '조선에스페란토학회' 창립 발기인(12월 15일), '濟州島의 女多現象'에 관한 논문 발표
- 1946(38) 京城大學에서 에스페란토 강연(2월 16일), '朝鮮山岳會' 제2회 정기총회에서 理事로 선출됨, '朝鮮山岳會' 주최 제2차 國土究明事業 '오대산-태백산맥 학술조사' 참가(7월 25일~8월 12일), 國立科學博物館 動物學 研究部長 부임(9월)
- 1947(39) 조선 나비를 248종으로 최종 분류하고 조선말 이름을 지어 '朝鮮生物學會'에 통과시킴(4월 5일). 선생은 朝鮮生物學會 편집위원(趙福成, 南泰卿, 石宙明, 金仁宅, 姜永善, 尹益炳)으로서 동학회가 1949년에 발행한 <朝鮮動物名>(同志社발행)에 기여함. '朝鮮山岳會'가 北漢山에서 주최한 제1회 市民植木大會에서 강연(4월 6일), 이후 自然保護와 植木에 관해 많은 강연을 함, 《국제어 에스페란토교과서 附 小辭典》출판(6월 6일), 《濟州島方言》출판(12월 30일), 제3차 국토구명사업 '小白山脈學術調査' 副隊長으로 참가(7월 12일~7월 25일), 제4차 국토구명사업 '鬱陵島.獨島學術調査' 참가(8월 16일~8월 28일), 國學大學에서 에스페

- 란토를 제2외국어 선택과목 채택하자 강의(12월), 《中等動物教科書》출판, 《中等科學-生物 제4,5학년용》출판, 《조선 나비 이름의 유래기》출판(12월 5일)
- 1948(40) 金允玉과 離婚, 제5차 국토구명사업 '車嶺山脈學術調査' 隊長으로 참가(8월 17일~8월 29일), 弘益大學에서 에스페란토 첫 강의(8월)
- 1949(41) 《濟州島生命調査書=濟州島人口論》출판(3월 30일), 제6차 국토구명사업 '仙甲島.德積群島學術調査' 隊長으로 참가(6월 11일~6월 17일), 제7차 국토구명사업 '多島海 叢海 學術調査' 隊長으로 참가(8월 9일~8월 24일), '조선에스페란토학회' 제5회 강습회 지도(8월), 서울상대에서 에스페란토 강습회, 《濟州島文獻集》출판(11월 1일), '조선에스페란토학회'와 '고려에스페란토학회'가 통합 발족한 '대한에스페란토학회' 총무부장에 선임(12월 15일), 國學大學의 自然科學 담당 교수(당시 선생의 주소는 동대문구 종로 6가 16)로서 동대학에서 ESPERANTO도 가르치고, 에스페란토 학습 모임의 야유회도 실시하였음. (國學大學 1949년 6월 발행 졸업앨범에 사진 수록)
- 1950(42) '韓國山岳會' 제5회 정기총회에서 부회장 피선(6월 9일), 6-25 발발, 9-28 서울 수복 직전 국립과학박물관 피폭, 석주명의 나비 표본 15만 마리 燒盡됨, 총무로 4가에서 술 취한 청년들에 의해 '인민군소좌'로 오인되어 피격 橫死(10월 6일)

【석주명의 저술업적 목록】

1927. "에스페란토學習に就いて", 鹿兒島高農農科教室
 1928. "Du Impresoj", La Espero(Kagoshima) 1:
 1928. 1. 30. "Unupeco de mia Travivitago", La Eagero(Kagoshima) 2: 7.
 1928. "SENTOJ EN INSULO TANE", 鹿兒島高農校友會 11: *
 Gh. M. Seok 이름.
 1933. "에스페란토'論", 松友
 1933. 1. 31. "開城地方의 蝶類", 朝鮮博物學會雜誌 15: D.M.Seok
 이름. 자기 이름의 로마자화를 이용한 地域에 대한 인식 반영
 "朝鮮産蝶類의 未記錄種, 異常型及비'우라긴헤우몬'의 斑紋의 變異性", 朝鮮博物學會雜誌 15: 에스페란토로 제목.
 1934. "本年度第二學年生徒採集의 蝶類目錄", 松友 8:
 1934. 6. 30. "白頭山地方動物採集記 附開城産시베리아마무시", 朝鮮博物學會雜誌 18:
 1934. 11. "朝鮮産蝶類의 研究(第一報)", 鹿兒島高等農林學校開校二十五周年記念論文集. pp. 631-784.
 1934. 11. "朝鮮産畸形의 蝶", 鹿兒島高等農林學校開校二十五周年記念論文集. pp. 785-788.
 1935. 2. 1. "卵島見學記", 文教의 朝鮮 114: 131-135.
 1936. 2. "테카지마미수지及비긴지시지미나루2新種의 蝶니就테(附) 金剛山産蝶類目錄", 動物學雜誌 48(2):
 1936. 7. "朝鮮産몬시로테후의 變異研究", 動物學雜誌 48(7):
 1936. "朝鮮東北端地域産蝶類採集記", Zephyrus 6: 252-277.
 1937. 3. 3. "南朝鮮動物採集記", 松友 10: 26-34.
 1937. "慶州吐含山でアカボシウスバシロテフを採集す", 昆蟲界(43):

1937. "濟州島の思ひ出", 地理學研究 14(5):
 1937. 10 "在留東京松友に圍まれて", 松友 10:
 1938. "樺太の旅", 地理歷史研究 15(2):
 1938. 8. 1 "朝鮮産畸形蝶集報(VIII)", 植物及動物 6(9):
 1938. 8. "釜山のアカボシウスバシロテフに就て", 蟲の世界 2(7/8).
 1938. "鬱陵島産蝶類", Zephyrus 8: 24-29.
 1939. 1. "一濛南啓宇의 蝶圖에 就하여", 朝鮮 284: 80-87.
 1939. 6 "動物의 種類이야기", 朝光 5(6):
 1939. "カンキヤウタカネヒカケOeneis urda Eversmann의 變異研究", 松友 11:
 1940. 2. "朝鮮産蝶類研究史(上)", 朝光 6(2):
 1940. 5. "朝鮮나비이야기", 朝光 6(5):
 1940. "登山趣味", 松友 12:
 1941. 1. 1. "蒙古人の 片想", 博文 4(1): 10-13.
 1941. 1. 20. "北滿の旅の思ひ出", 松友 13: 19-22.
 1941. 1. 20. "雜錄", 松友 13:
 1941. 3. "世界的昆蟲生態畫家 南나비傳", 朝光 7(3):
 1942. 6. 1. "朝鮮産蝶類의 研究(第二報)", 鹿兒島博物同志會研究報告 1: 5- "朝鮮産異型及비畸形의 蝶", 鹿兒島博物同志會研究報告 1: 97-
 1945. "濟州島の 女多現象", 朝光 11(2).
 1946. 8. "兎山堂由來記", 郷土 1(2): 15-18.
 1946. 12. 31. "生活科學化", 現代科學 3: 63.
 1947. 1. 4. "창조적생물학계의 진로", 서울신문
 1947. 1. 13. "창조적생물학계의 진로", 서울신문
 1947. 2. 7. "科學과 協力", 新天地 2(3): 116-118.

1947. 4. 15. “에스페란토창안자자멘호프박사삼십주기”, 서울신문
1859-1917. 4. 14 사망. 모스크바대학 의학부 출신의 안과의
사. 1887년 에스페란토 시작.
1947. 5. 1. “봄의 동물”, 소학생 46: 9-10, 17.
1947. 5. 10. “濟州島方言과 比島語”, 조선교육 3(3): 17-19.
1947. 5. 15. “국사교육의 기본적 체문제”, 조선교육 1(2): 17-33.
1947. 6. 1. “갈찬 선생님”, 소학생 47: 8, 14, 22.
1947. 6. 17. “꿈과 과학자”, 서울신문
1947. 6. 25. “생활사라는 말”, 과학나라 2: 1-2.
1947. 6. 30. “조선적교육체제”, 自由新聞 612號. 과학박물관장이
라고 소개. 동물부장이었다.
1947. 7. 25. “조선민족사”, 조선교육 1(4): 37-47. 1(5), 1(6),
1(7), 2(1), 2(3), 2(4),
1948. 8. 25. 2(5): 91-99. 총8회.
1947. 8. 3. “최현배씨 저 ‘글자의 혁명’評”, 동아일보
1947. 8. 16. “소백산맥의 접두채집기”, 서울신문
1947. 8. 25. “馬.驢.騾.馱馱”, 現代科學 6: 53.
1947. 9. 1. “겨울 준비에 바쁜 동물계”, 소학생 50: 12-13. “소백
산맥의 나비”, 소학생 50: 42-43.
1947. 9. 2. “울릉도의 연혁”, 서울신문. 1884년 울릉도 개척령 반
포. 이때부터 경북 경남 각처의 인민들이 상점입도.
1947. 9. 9. “울릉도의 자연”, 서울신문. 1937년 6월 列甸에 죽변
으로부터 청개구리 약 20마리를 한 마리에 1전씩 주고 사서
도입하여 도동군청의 못에 방사. 이것은 金龍河씨가 학생시대
에 호기심으로 한 것. 물개가 아닌 것을 새끼 세 마리 잡아왔다.
1947. 10. 1. “제주도(濟州島)와 울릉도(鬱陵島)”, 소학생 51: 18-19.
1947. 10. 28. “향토와 생물”, 서울신문
1947. 11. 1. “향토와 생물(2)”, 서울신문. “동해바다 멀리있는 울
릉도를 다녀와서”, 소학생 52: 35-38.
1947. 11. 25. “耽羅古史”, 國學 3: 25-28, 36. 國學大學 ‘國學’編
輯部 발행.
1947. 12. 1. “속조선적교육체제”, 自由新聞 765號.
1947. 12. 5. 朝鮮나비이름의 由來記. 서울: 白楊堂. pp. 61.
1947. 12. 20. “생식과 생활사”, 서울신문
1947. 12. 23. “생식과 생활사(2)”, 서울신문
1947. 생물: 제4.5학년용. 을유문화사.
1947. 動物界教科書(文敎部敎授要目準據). 정음사.
1948. 1. “동물학 연구실 소개”, 과학나라 2(1):
1948. 2. “우리의 國號와 年號와 글”, 新天地 3(2):
1948. 2. 1. “鬱陵島의 人文”, 新天地 23(3권 12호).
1948. 2. 8. “방언과 곤충”, 서울
1948. 4. 1. “나무를 심그자”, 民聲 4: 34-35, 38.
1948. 5. 13. “權威”, 現代科學 10: 17.
1948. 6. “學術界에 잇서서의 에스페란토의 地位”, 新天地 3(5):
1948. 7-8. “사랑(愛)과 自殺”, 新天地 3(7) & 3(8).
1948. 8. 10. “鬱陵島의 하루밤”, 現代科學 8: 24-29.
1948. 8. 20. “濟州島實記”, 民聲 7.8合併号: 28-31.
1948. “나의 長壽法”, 學風 創刊號.
1948. 10. 21. “[새책평]도봉섭의‘조선식물도해’”, 서울신문
1948. 11. 11. “[신간평]조복성‘조선동물그림책’”, 경향신문
1949. 1. 1. “新聞記事로 본 解放後一年間の 濟州島”, 學風 2(1):
100-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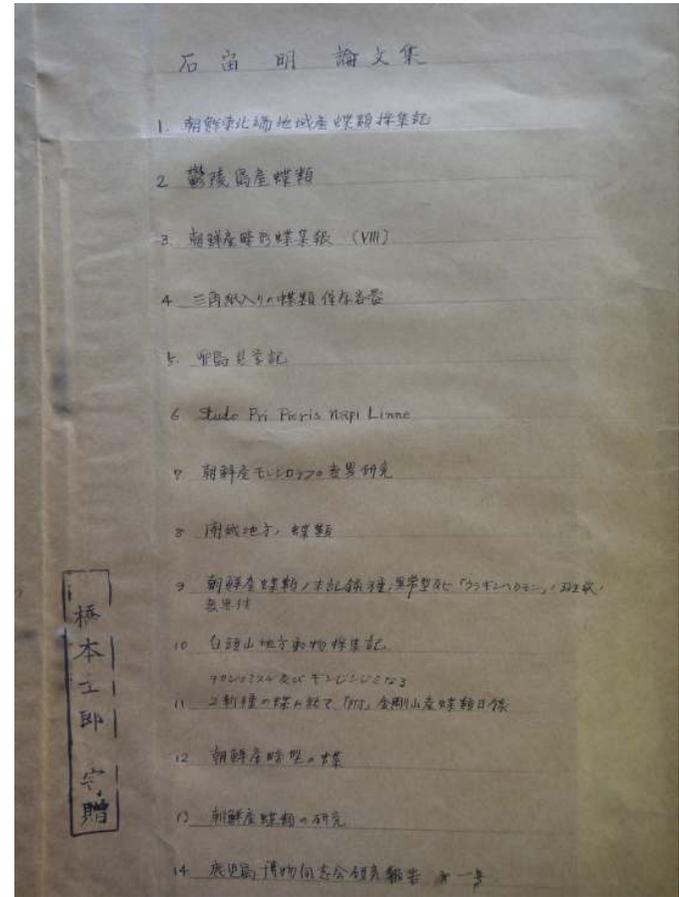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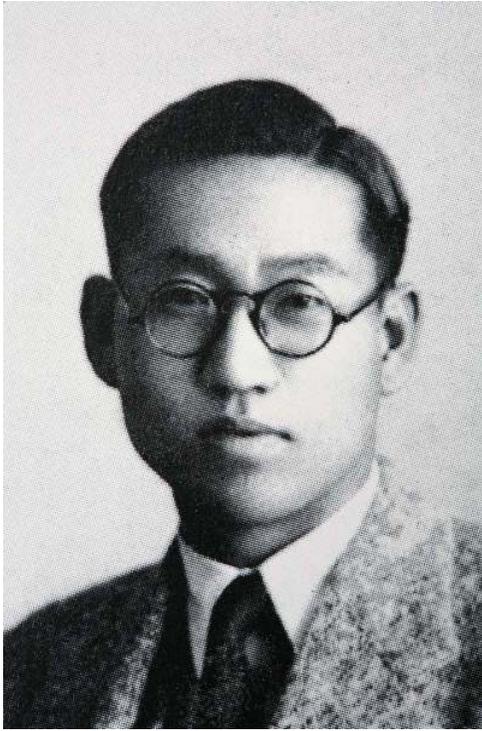
1949. 2. 1. “겨울의 동물(2)”, 진달래 2월호 pp. 28-30.
 1949. 2. “知識과 趣味와 敎養”, 新天地 4(2):
 1949. 2. “에스페란토’론”, 新天地 4(2):
 1949. 2. 23. “국산접류연구에 광명”, 서울신문
 1949. 3. 1. “新聞記事로 본 解放後一年間의 濟州島”, 學風 2(2):
 112-113.
 1949. 3. 25. “敎師와 學者”, 새교육 2(2): 85-87.
 1949. 4. 1. “新聞記事로 본 解放後一年間의 濟州島”, 學風 2(3):
 116-117.
 1949. 4. 11. “[새책평]조복성‘곤충기’”, 서울신문
 1949. 5. “濟州島方言과 比島語”, 조선교육 3(3):
 1949. 6. “科學과 에스페란토”, 新天地 4(6):
 1949. 7. 10. “세계각국의 인구”, 조선교육 3(4): 115.
 1949. 9. 1. “權威”, 現代科學 10: 17.
 1949. 9. 4. “多島海踏査記-上”, 국도신문 509호.
 1949. 9. 5. “多島海踏査記-下”, 국도신문 510호.
 1949. 9. 14. “多島海의 綜合報告”, 연합신문 210호.
 1949. 9. 28. “신문과 과학”, 서울신문
 1949. 10. “나비 採集二十年의 回顧錄”, 新天地 4(10): “新聞記事
 로 본 解放後一年間의 濟州島”, 學風 2(4):
 1949. 濟州島關係文獻集. 서울: 서울新聞社.
 1950. 1. “나비 採集二十年의 回顧錄”, 新天地 5(1):
 1950. 2. “天然記念物保存에 對하여”, 新天地 5(2):
 1950. 2. 1. “可居島 脫出記”, 新天地 43(5권 2호).
 1950. 3. 1. “貸書禮讚”, 민聲 44(6권 3호),
 1950. 4. 15. “濟州島方言과 馬來語”, 어문 2(2): 1-4.

1950. 5. “나비 分布圖”, 月刊아메리카 2(5): 22-23.
 1950. 6. 1. “生物學과 英韓辭典”, 신천지 5(6): 126-128.
 “天然記念物保存에 對하여”, 신천지 5(6): 177-179, 188.
 “德積群島의 學術調査隊報告”, 신천지 5(6): 233-234.
 석주명은 <國立科學博物館研究報告> 시리즈물로 <朝鮮産蝶
 類總目錄>, <濟州島의 蝶類>를 乙酉文化社에서 발간하였다.
 전자는 40원, 후자는 100원의 반포가(學風 1(2)에 광고).
 1971. 濟州島資料集. 서울: 寶晋齋.
 1992. 나비 採集二十年의 回顧錄. 서울: 新陽社.

【참고문헌】

- 岡島銀次, 1942. 6. 1, “特別號發刊ノ辭”, 鹿兒島博物同志會研究報告 1: 1.
난사석주선박사 추모사진집 간행위원회, 1998. 5. 2, 한국복식학자
故 蘭斯 石宙善 박사 추모사진집. 서울: 고려서적주식회사.
석주명, 1937, “濟州島の思ひ出”, 地理學研究 14(5):
_____, 1946. 8, "兎山堂由來記", 郷土 1(2): 15-18.
_____, 1948. 2, “우리의 國號와 年號와 글”, 新天地 3(2):
石宙明君は眞摯なる學徒で、其朝鮮産蝶類の研究に關しては
常に豊富なる資料の獲得、精細なる研究法、加之終始一貫せ
る努力とは既に斯界の驚嘆と稱讚を博し、同君の現在迄連続
的に發表せる幾多の業績は殆んど他の追從を許さざる所であ
る。之れ其尺度に於て異なる所あるも、恰も今次皇軍の赫々た
_____, 1948. 8. 20, “濟州島實記”, 民聲 7.8合併号: 28-31.
_____, 1949. 1, “新聞記事로 본 解放後 一年間の 濟州島”, 學風
2(1): 100-101.
_____, 1949. 2, “知識과 趣味와 教養”, 新天地 4(2):
_____, 1949, 濟州島關係文獻集. 서울: 서울新聞社.
_____, 1971, 濟州島資料集. 서울: 寶晋齋.
이병철, 1989, 위대한 학문과 짧은 생애: 나비박사 石宙明 評傳.
서울: 아카데미서적.
李崇寧, 1950. 3, “都下各大學巡禮記”, 新天地 5(3):
匿名, 1937. 7. 25, “大陸科學院哈爾濱分院の沿革概要”, 大陸科學院
彙報 1(2): 120-122.

- 전경수, 1998, “지역연구로서 濟州學의 방법과 전망”, 濟州島研究
15: 7-26.
_____, 1999, 한국인류학 백년. 서울: 一志社.
진성기, 1962, 제주도학: 제1집 개관편. 서울: 인간사.



1949. 11. 7 “書齋雜記: 世界的な昆蟲學者 石宙明氏篇”, 週刊서울 60: 9.
 110편 논문. 우리나라 지도 250장, 세계지도 250장. 나비분 포도.
 제주도총서에 대한 자평: 지역을 통해서 땅과 나비의 관계를
 알자는 것.
 지역을 통해서 나비를 알자는 것.

석주명(石宙明),

제주학(濟州學)의 불을 밝히다

오창명

(제주학연구소장, 국문학)

- 차 례 -

1. 석주명의 생애
2. 제주에 관한 관심 : 저서와 논문
3. 제주학의 불을 밝히다
4. 제대로 된 해석과 잘못된 해석이 공존하는 자료
 - 석주명의 제주도총서
5. 마무리

“제주도 자료를 박물관적으로 조사하고 수집하고, 집성한 데에는 찬사(讚辭)를 보낼 수 있으나, 조사하고 수집한 자료를 언어학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연구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1. 석주명(石宙明)의 생애

- 1908년
11월 13일 평안남도 평양 이문리(里門里) 출생함. 광주석씨 평양파의 30대손인 석승서(石承瑞)의 3남 1녀 중 2남으로 태어남.
- 1917년(9세)
4월 나이를 열 살로 속이고 평양의 공립 종로보통학교에 입학함.
- 1921년(13세)
3월에 보통학교를 졸업함. 4월에 숭실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함.
- 1922년(14세)
동맹휴학으로 숭실고보를 중퇴하고 개성의 송도고등보통학교로 전학함.
- 1926년(18세)
3월에 송도고보 7회로 졸업함. 4월에 일본의 가고시마(鹿児島) 고등농림학교 농학과에 입학함.
- 1927년(19세)
4월에 박물관과로 옮김.
- 1928년(20세)
8월에 대만에 곤충 채집으로 여행함.
- 1929년(21세)
가고시마 고등농림학교 박물관과를 졸업함. 4월에 함흥 영생 고등보통학교에 박물관교사로 취임함.
- 1931년(23세)
모교인 송도고보에 박물관교사로 취임함.
- 1932년(24세)
첫 논문 “조선 구장지방산 접류 목록”을 구장 보통학교장 다카

쓰카(高塚豊次)와 공저로 『Zephyrus』지에 발표함.

•1933년(25세)

7월에 하버드대학 T. Barber 박사로부터 첫 재정 지원을 받아 백두산 곤충 채집 여행을 함.

•1934년(26세)

8월에 함경북도와 간도의 용정 지방의 곤충 채집 여행을 함.

•1935년(27세)

5월에 금강산을 비롯한 강원도 지역의 곤충 채집 여행을 함.

7월과 8월에 충청남도과 전라남북도 일대의 곤충 채집 여행을 함.

•1936년(28세)

7월과 8월에 전라남도 해안과 제주도의 곤충 채집 여행을 함.

•1937년(29세)

6월에 경상남도 일대 곤충 채집 여행을 함.

•1938년(30세)

8월에 묘향산을 비롯한 서조선 일대의 곤충 채집 여행을 함.

•1939년(31세)

3월에 『A synonymic List Butterflies of Korea(조선산 나비 총 목록/조선산 접류 목록)』를 탈고하고 뉴욕에서 인쇄 작업에 들어감.

•1940년(32세)

『A synonymic List Butterflies of Korea(조선산 나비 총목록/조선산 접류 목록)』를 출판함.

7월과 8월에 함경남북도와 만주 일대의 곤충 채집 여행을 함.

•1941년(33세)

8월에 조복성과 함께 중강진을 비롯한 압록강 유역과 평안북도 일대의 곤충 채집 여행을 함.

•1942년(34세)

4월에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미생물학교실 소속인 개성의 생약연구소에 촉탁(囑託)으로 들어감.

•1943년(35세)

4월에 제주도에 신설된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으로 자청해서 전근함.

4월부터 제주도방언 수집을 비롯하여 제주와 관련된 박물학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함.

•1945년(37세)

5월에 2년 1개월 만에 개성의 본소로 복귀했다가 수원 ‘농사시험장’의 병리곤충학부장으로 옮김. 제주도의 여자 현상에 관한 논문을 발표함.

•1947년(39세)

6월에 5년 간의 수집과 연구 끝에 『제주도 방언집(濟州島方言集)』을 탈고하여, 12월 30일에 서울신문사출판부에서 『제주도 방언집(濟州島方言集)』을 출간함.

12월 5일에 『조선 나비 이름의 유래기』를 출판함.

•1949년(41세)

3월 30일에 『제주도의 생명조사서-제주도 인구론』을 출판함. 11월 1일에 『제주도 문헌집(濟州島文獻集)』을 출판함.

•1950년(42세)

10월 6일에 충무로 4가 근처에서 술취한 청년들과 사소한 시비 끝에 피격 당해 황사함.

•1968년

11월 10일자로 유고 『제주도수필(濟州島隨筆)-제주도의 자연과 인문』을 보진재에서 발간함.

•1970년

8월 31일자로 유고 『제주도 곤충상(濟州島昆蟲相)』을 보진재에서 발간함.

•1971년

9월 10일자로 유고 『제주도 자료집(濟州島資料集)』을 보진재에서 발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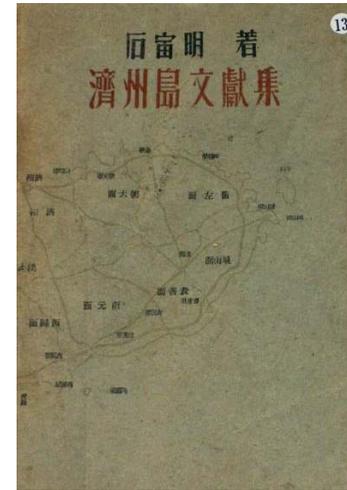
•1972년

3월 10일자로 유고 『한국산 접류(蝶類)의 연구 III』을 발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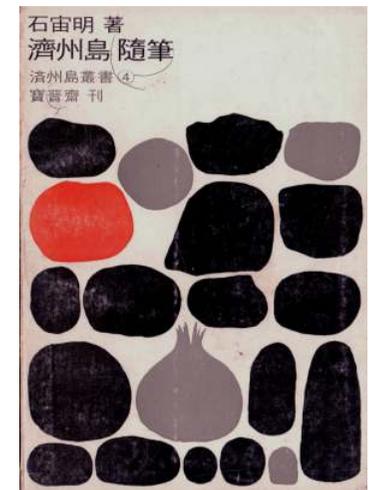
•1973년

4월 15일자로 유고 『The Distribution Maps of Butterflies in Korea(한국산 접류 분포도)』를 발간함.

2. 제주에 대한 관심 : 저서와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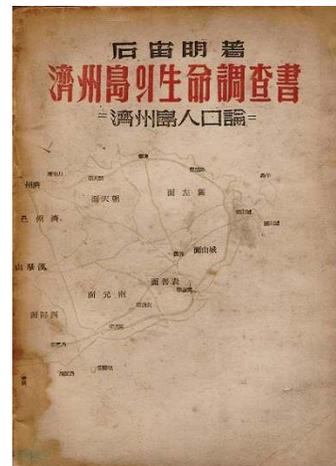
『제주도문헌집』(1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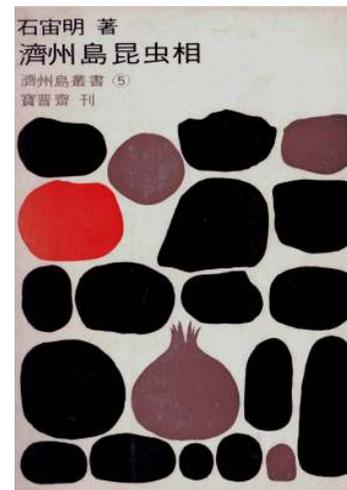
『제주도수필-
제주도의 자연과 인문』(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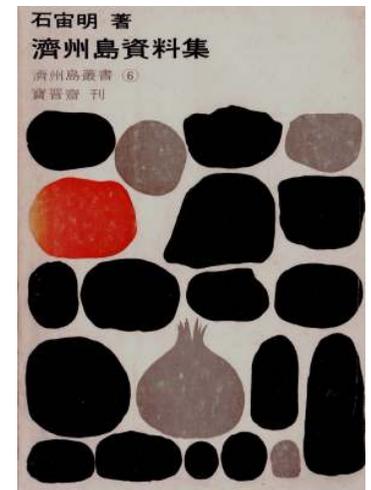
『제주도방언집』(1947)



『제주도의
생명조사서-제주도인구론』(1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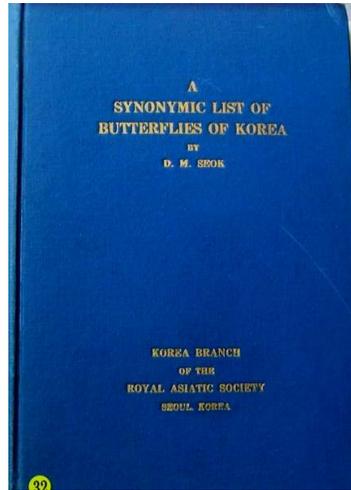
『제주도곤충상』(1970)



『제주도자료집』(1971)



『조선 나비 이름의 유래기』(1947)



『한국산 나비 총목록』(1940)

•1937년

석주명(1937), “濟州島産蝶類採集記-新亞種의 記載를 포함하여”, 『Zephyrus』 권7.

Seok, DM(1937), “On the Butterflies collected in Is. Quelpart, With the Description of a New Subspecies”, Zephyrus, vol. 7. p.150-174.

* 이 논문에는 제주도산 나비 58종류가 기록되었음.

•1945년

석주명(1945), “濟州島의 女多 現象”, 『朝光』 봄호.

석주명(1945), “Island of Women’ phenomenon in the Is. Quelpart”, 『朝光』 봄호.

•1946년

석주명(1946), “濟州島地名을 포함한 動植物名”, 『국립과학박물관동물학부연구보고』 1권 1호.

석주명(1946), “京城大學附屬生藥研究所濟州島試驗場附近의 蝶相”, 『국립과학박물관동물학부연구보고』 1권 1호.

* 이 논문에는 채집한 나비 38종 중 제주도산이 31종, 다른 곳에서 온 것이 7종을 기록했다.

석주명(1946), “濟州島南端部の 自然, 더욱이 그곳의 蝶相에 대하여”, 『국립과학박물관동물학부연구보고』 1권 1호.

* 이 논문에는 산방산의 나비, 모슬포와 송악산 부근의 나비, 가파도의 나비, 마라도의 나비 등을 기록했다.

•1947년

석주명(1947), “濟州島의 蝶類”, 『국립과학박물관동물학부연구보고』 2권 2호.

* 이 논문에는 채집한 나비 65종을 다루었는데, 문헌에 있을 뿐 미채집한 8종이 포함되어 있다.

석주명(1947), “조선산 접류 총목록(A List of Butterflies of Korea)”, 『국립과학박물관동물학부연구보고』 권2.

석주명(1947), 『조선 나비 이름의 유래기』.

석주명(1947), “제주도의 蝶類”, 『국립과학박물관동물학부연구보고』 권2.

석주명(1947), 『제주도방언집』, 서울신문사 편집부.

* 이 책은 한 단어 또는 한 구절을 하나의 카드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2년 동안 만든 것이다. 1만여 장의 카드에 방언과 표준어를 대비하여, ㄱ, ㄴ 순으로 편찬한 방언집에, 고찰, 어원 등을 풀이한 수필 등이 추가되어 있다.

석주명(1947), “탐라고사”, 『國學』 3호.

•1948년

석주명(1948), “제주도의 象皮病”, 『조선의보』 권2.

•1949년

석주명(1949), 『제주도의 생명조사서-제주도인구론』, 서울신문 사 편집부.

* 이 책은 제주도내 16개 마을의 인구 동태를 생물학적으로 조사해, 그 마을의 생명의 양을 측정하고 인구에 대한 각종 통계를 낸 것으로,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다.

석주명(1949), “제주도방언과 比島語”, 『조선교육』 권3.

석주명(1949), “‘남녀수의 지배선’의 위치-부, 제주도 통계에 대하여”, 『대한민국통계월보』 5호.

석주명(1949), “제주도문헌집”(이 책은 『제주도관계문헌집』으로도 소개되고 있다.)

석주명(1949), “대한민국의 女多 지역”, 『대한민국통계월보』 봄호.

석주명(1949), “제주도방언과 馬來語”, 『어문』 권2.

•1968년

유고 『제주도총서 ④ : 제주도수필』

•197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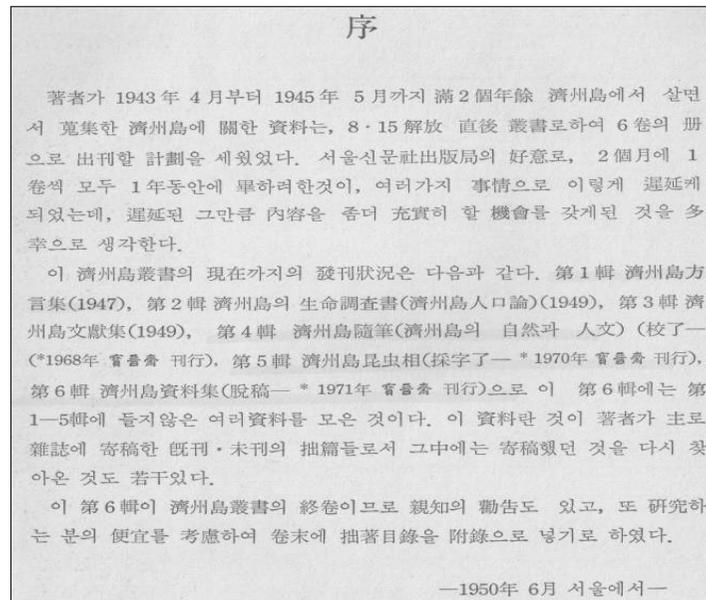
유고 『제주도총서 ⑤ : 제주도곤충상』

•1971년

유고 『제주도총서 ⑥ : 제주도자료집』

※ 생전에 낸 『제주도방언집』, 『제주도의 생명조사서-제주도인구론』, 『제주도문헌집』에는 ‘濟州島叢書(제주도총서)’라는 말과 일련번호를 붙이지 않았는데, 사후에 나온 유고집 『제주도수필』, 『제주도곤충상』, 『제주도자료집』에는 ‘濟州島叢書’라 하고 발행연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였다.

그러나 『제주도자료집』의 서문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으므로, 제주도총서를 6집으로 내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도자료집』의 서문

•1972년

유고 『한국산접류의 연구 III』

3. 제주학(濟州學)의 불을 밝히다

3.1 용어 : 濟州島方言 · 濟州島語 · 濟州語 · 濟州말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말을 ‘方言’이라는 말로 썼지만, 濟州島語 · 濟州語 · 濟州말, 濟州島南部語 · 山南語, 濟州島北部語 · 山北語 · 北濟州語, 全羅道語 · 全羅語, 慶尙道語 등과 같이 ‘말’ 또는

‘語’라는 용어를 썼다.

*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濟州語’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데 큰 의의를 둘 수 있지만, 濟州島語 · 濟州語 · 濟州말, 濟州島南部語 · 山南語, 濟州島北部語 · 山北語 · 北濟州語 등과 같이 다양하게 썼다는 것은 용어 사용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필자는 ‘濟州語’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의의보다, 용어 사용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순수 언어학자 또는 국어학자가 아닌 데서 일어난 일이라 할 수 있다.

3.2 濟州島學 / 濟州學

실질적으로 濟州島學 또는 濟州學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이미 Studies 또는 Science에 버금가는 연구를 진행해서, ‘濟州學(Jeju Studies)’의 선구자로 추앙받고 있다.

<참고>

한국학(韓國學, Koreanology / Korean Studies)

한국에 관한 지식 전반을 다루는 종합적인 학문이다. 인문 · 사회 · 자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기초로 한국 사회와 문화가 지니는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고, 국제 사회에서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학(日本學, Japanology / Japanese Studies)

일본의 사회, 역사, 문화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제주학(濟州學, Jeju Studies) : 제주학회, 제주학연구소, 제주학연구센터 / 제주학총서

서울학(—學, Seoul Studies) : 서울학연구소 / 서울학총서

영남학(嶺南學) : 영남학, 영남학총서

호남학(湖南學) : 호남학연구소 / 호남학총서

충북학(忠北學) : 충북학연구소

강원학 : 강원학연구센터 / 강원학총서

•1962년

진성기(1962), 『濟州島學』, 인간사;서울.

진성기(1977), “民俗學과 濟州島學”, 『성봉 김성배박사회갑기념 논문집』, 성봉 김성배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

진성기(2006), 『제주도학: 진성기의 제주도학 세계』, 제주민속연구소.

•1965년

한창영, “제주도학과 圖書館”, 『濟州市』, 제주시.

1970년대 - 학자층에서 濟州學이라는 용어를 활발하게 쓰기 시작함.

* 석주명은 곤충학자이자 박물학자였기 때문에 제주도에 관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에스페란토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언어학적인 글을 쓰는 데도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3.3 박물학적인 자료의 조사와 수집 : 제주학 자료의 수집과 열의는 대단했다

석주명이 제주도에 관한 자료는 조사와 수집, 그리고 그에 대한 열의는 대단했다.

그 결과에 대한 결정체는 위에 언급한 6권의 제주도총서이다.

하지만 그가 보인 제주도 자료 조사와 수집, 열의에 비해, 제주도 자료에 관한 고찰과 연구, 평가 등은 미진(未盡)하거나 미흡(未洽)했다.

곧 수많은 제주도 자료들을 집대성하여 제주학 발전의 불을 밝히기는 했지만, 그 불 바로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것도 많았다.

특히 당시 석주명이 조사한 7000여 개의 제주어 중에 240여 개가 몽골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 것은 오늘날도 비판받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잘못된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참고>

『제주도방언집』에는 몽골어에서 유래한 것이 240여 개에 달한다고 했는데, 『제주도자료집』에는 그 중에 60여 개가 삭제되고 180여 개가 기록되었다.

석주명의 제주도방언 관련 자료를 분석해보면, 제주어를 언어학적 또는 국어학적으로 분석해서 설명하거나, 그 기원이나 유래 따위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많았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보자.

표준어 ‘마늘’에 대응하는 제주어 ‘마농’도 몽골어와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해 놓았다. 그러나 같은 책의 다른 쪽에서는 ‘마농’은 중세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했다.

곧 한 곳에서는 몽골어와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하고, 다른 한 곳에서는 고유어와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석주명이 제주도 자료를 조사하여 수집하고 집성하는

열의는 대단했지만, 그것을 고찰하고 논의하고 평가한 것은 대단히 미진하거나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3.4 제주학 자료의 고찰과 연구는 미흡했다

第17章 外國語에서 由來한 濟州島方言

關係있는外國語라면 蒙古語와、日本語를 생각할수가인으며 張慶燮、趙善一兩氏의 好意로 蒙古語、滿洲語及中國語에關係있는 濟州語를 採記할수가 있었다. 여기서 兩氏에게 感謝의 뜻을表하였다.

가. 濟州島方言中 蒙古語와關係있는것

濟州語、蒙古語、標準語의 順으로 記錄하였는데 蒙古語關의 『—』로表한것은 濟州語와全同한것을 『/』로表한것은 同上임을 意味한다.

濟州語	蒙古語	標準語	濟州語	蒙古語	標準語
가리말	가리말리다, 하리요리	경운할	구령리다	쿠령오리, 잔다 (圖의 1圖)	경운할
가리귀머림	머림 (聾을 음라 리)	聾을의 자부그를	썸는다	몽우지 (夢烏)	썸는다
가리귀우루	말 (胡語)	下胡語	곳사라	곳사라	비적다
가소름	靈感式地名	加路里	위박	위박 (事發聲) (見 1圖)	망
가시남풍오지	/	加路水窟	귀피	워도	워박
도노미	蒙古式地名	동도노미排置洞 지도노미於洞	보골지	보골즈	지갑
도라담	/	羅水洞	보라	보라이	타 리보 (胎)
목고리삼	—	목고리나무	복사다리	복시 (大體)	體體가體體(體體) 牛馬
무루루	—	후루루 (俄語)	복시리완나	복시리완나	도사리다
무메기	—	몽말이	복리남	—	복리나무
무미메기	무메기	/	봉	봉 (嶺)	락
물비주시	주시 (齊語)	반시	부곡부곡	—	세드득득드득
마늘	—	마	부명이	—	수소 (汗牛)
마농대	—	파	부설	—	體內常態體
마농대	마농 (齊)	총대	부애	—	이부애
마농대	/	/	부인유마	—	부인유마리 黃褐色馬
마농령거리	/	과릿봉	복글래기	—	거품
마농력	/	과산적	분죽하다	훈추 (顯推)	소시우리다
마농치미	/	마농장아찌	몽말거리다	몽말 (不準의體)	몽말거리다
마니미네	—	도리도리	—	몽 (蒙古소리)	몽 (蒙古소리)
마니질	마니미네	도리질	빙	—	빙 (病)
마니질타	마니미네	도리질하다	행이마농	마농 (齊)	파
마올트다	마 (齊語)	경마필황이생기다	신력	원적	짐승고기외적
마괴다	/	/	상원이황산행	황상행 (의그것으로)	그상관그것으로
만뒤	만루	모말송편	서치목루	蒙古式地名	編輯體
망이덩이	마니미네	도리도리	선	현	현 (衣)
말매	—	말미	설리불다	설리불리	그만부다
맹맹	—	맹매 (子牛의體體)	소본	소본	밭소
매기라	『가리』는 『하리』, 『가리』 (은 기)	새끼만달	소말이	쇠말이	영강리 힘가래
			손노래	도래	도래
			쇠말이	—	영강리 힘가래

『제주도방언집』

外國語에서 由來한 濟州島方言

濟州語, 外國語, 標準語의 順으로 記錄하겠는데, 外國語欄에 「—」로 表한 것은 濟州語音과 全く 同一한 것을 意味하고 多少라도 相異한 것은 外國語音을 그대로 記錄하여 比較하기에 便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表는 「同上」의 뜻이다.

가. 蒙古語와 關係있는 것

184

濟州語	蒙古語	標準語
가라몰	가라매리디, 하라모리	검은말
가마귀머림	머림(畜舍울타리)	鷄舍의 지붕그물
가마귀마루	밀(洞里)	下禮里
가소름	蒙古式地名	加時里
가시낭봉오지	〃	加時木洞
간드락	〃	看月洞
간전이	간전이, 할잔모리	이마에 흰줄이코까지있는말
간지	간즈	옷걸이
거울돌	거울메리	발목이 흰 말
건곤자리	蒙古式地名	乾坤洞
걸머리	걸모리	(洞里名)
겉글랑겉글랑	—	어슬렁어슬렁
고라몰 (馱驢; 버새), Kula, 후라모리	—	灰色馬
고지	—	밭이랑, 이랑
굴	—	엇기름
광산랑	광산랭	의 그것으로
피염지나	피염지너	끓느냐

<제주도자료집>

마늘의 濟州語. 대산이, 콤대산이, 굽대산이, 곱다산이等 많다. 이 『대산이』 『다산이』는 中國語 『파싼』에서 由來한것이 分明하다. 그러나 『곱』 또는 『굽』의 意義는 分明하지않다.
 또 濟州語로 『마늘』 이라면 葱類의 總稱이고 또 『마늘』 이라고도 한다. 葱類中 普通한 『파』는 『패마늘』 또는 『뽕이마늘』 이라고하고, 『산달래』는 『드룻마늘』 이라고 해서 野葱의 뜻이고 其中 特히 큰것은 『경마늘』 이라한다.
 訓蒙學會 (1527) 에 依하면 蒜을 『단논월』 이라니 濟州語의 『마늘』 은 이 『단논』 에서 由來한것이 아닐가?

석주명(1947), 『제주도방언집』 151쪽

『제주도에는 元 나라 때에 목장이 있었으므로 그 방언에는 몽고어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생각이 전해져 왔다. 石宙明(1947: 127-130)은 이런 생각에 이끌린 듯, 몽고어와 관계 있는 단어들을 열거하고 그 끝에 “以上과 같이 前篇에 記載된 語彙 7000 餘個 中 蒙古語에 關係된 것을 拔記하면 實로 240에 達한다”고 적고 있다.” 이 목록은 앞으로 국어의 몽고어 차용어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행함에 있어 반드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필자는 아직 그럴 여유가 없었지만, 대충 보아도 의문을 던져 주는 예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느껴진다. 제시된 몽고어 단어들 중에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적지 않으며,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차용 관계를 설정하기 어려운 예들이 눈에 띈다. 대명사의 ‘나’, ‘너’와 몽고어의 ‘미니’, ‘치니’(屬格形)의 연결, ‘이신 디’의 ‘디’와 몽고어의 ‘디’(處格接尾辭?)의 연결, ‘저디’(저곳)와 몽고어의 ‘나디’(칼카 nād인 듯, 몽고문어 naγ-adu)의 연결 등은 인정하기 어렵다. ‘말’(馬)과 몽고어 ‘모리’(mori), ‘아방’(父)과 몽고어 ‘아바’(aba), ‘어멍’과 몽고어 ‘어머’(eme)는 차용어가 아니라 同源語로 다루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 목록에는 ‘蒙古式 地名’이라 하여 ‘기소름, 가시낭봉오지, 간드락’ 등 20여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무어라 말하기조차 어렵다.

이기문(1985), “몽고어 차용어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21-1, 서울대, 어학연구소

제주도 식물학의 효시, 타케

김 찬 수

(국립산림과학원 난대림연구소, 박사)

제주도는 면적이 1848.27km²로 남한의 1.85%에 불과함에도 여기에 분포하는 관속식물은 1,990분류군으로 한반도 4,100 여 분류군의 약 48.5%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식물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까지는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제주도 식물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인 보고는 일본의 나카이(Nakai Takenoshin)가 의해 1914년도에 발표한 '제주도 및 완도 식물조사보고서'다. 이 보고서에는 142과 1,317종(변종 116종 포함)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 78종 69변종은 한라산 특산식물이다.

이 보고서는 그 후 제주도 식물 연구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으며, 지금의 제주도 식물 분포연구의 모태가 되고 있는 기념비적인 보고서이다. 그런데 나카이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1913년 초여름 30일의 시찰과 채집을 실시하였는데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표본은 거의 대부분을 포리와 타케 두 신부가 채집한 것을 이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 제주도 식물에 대한 연구는 1905년 일본인 이시카와가 곤충채집과 함께 채집한 것이 시초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조사연구는 프랑스인 포리(Urbain Faurie, 1847.1.1~1915.7.4) 신부와 타케 신부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런데 포리가 일본의 아오모리에 거주하면서 타케로부터 표본을 받거나 직접 채집하기도 한데 비해서 타

케는 1902년부터 1915년까지 제주도에서 포교활동을 하면서 식물 채집을 했다.



타케(Emile Joseph Taquet,
1873~1952, France)

타케, 그는 누구인가?

타케 신부(Emile Joseph Taquet (1873~1952, France)의 한국명은 엄택기(嚴宅基)이다. 1873년 10월 30일 프랑스의 벨기에(Belgium) 국경 가까운 노르드(Nord) 주에서 태어났다. 1892년 9월 23일부터 1897년 9월 27일까지 파리 외방선교회대신학교(外邦

宣教會大神學校)에서 수학하였으며 졸업과 동시에 신부로 임명되었는데 그 때 나이 24세 때이다. 신부로서 첫 임지인 한국으로 부임하기 위해 파리를 출발한 것은 1897년 10월 28일이며 서울에 1898년 1월 5일 서울 도착했다. 그후 밀양, 김해, 진주, 거제도, 마산 등을 거쳐 1902년 7월 4일부터 1915년 6월 6일까지 제주도에서 포교한 것으로 되어 있다.

타케신부는 1902년부터 1915년까지 제주도에 포교에 종사한 때가 한국식물분류학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긴 때라고 할 수 있는데, 채집된 표본은 포교사업의 비용으로 충당되었으리라 여겨지고 있다. 그가 채집한 많은 표본은 유럽으로 보내져 전공분야에 따라 각기 전문가들로 하여금 연구되었다. 이 표본을 사용하여 수많은 논문이 일본은 물론 프랑스, 독일, 덴마크, 스위스, 미국 등에서 발표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제주도의 식물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왕벚나무도 당시인 1908년 4월 14일 채집된 표본(표본번호 4638번)을 기준으로 독일의 케네(Koehne)가 왕벚나무의 한 가지 변이 종이라고 발표하면서 왕벚나무의 자생지가 제주도라는 설이 태어나게 된 것이다.

제주특산 식물, 세상 밖으로

당시 타케 신부에 의해 채집된 표본들은 나카이 타케노신(Nakai Takenoshin, 1882~1952), 오거스틴 아벨 헥토르 레빌레(Augustin Abel Hector Leveille, 1863~1918, 프랑스), 칼 프레데릭 알버트 크리스텐센(Carl Friedrik Albert Christensen, 1872~1942, 덴마크, 양치식물), 콘라드 헤르만 하인리히 크리스트(Konrad Hermann

Heinrich Christ, 1833~1933, 스위스, 양치식물), 아킬레 유진 피네트(Achille Eugene Finet, 1863~1913, 프랑스, 난초과), 카밀로 칼 슈나이더(Camillo Karl Schneider, 1876~1951, 독일, 수목학) 등에 의하여 많이 연구되었다. 이들은 당대의 유명한 식물분류학자들로서 제주식물에 대한 많은 업적들을 남겼다.

타케 신부는 식물학자는 아니었지만 많은 표본을 채집하여 이와 같은 당대의 저명한 식물학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제주의 식물이 근대적인 학문연구의 재료가 되었고 결국은 학계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될 수 있었다. 타케신부가 채집한 식물표본에 의한 수익금은 성당의 포교기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에서의 생활

타케 신부가 제주도에 주재했을 때의 행적은 어땠을까? 타케가 제주에 부임한 것은 1902년 4월이다. ‘초기 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이라는 문헌에는 타케 신부는 1902년 4월 20일 무세 신부의 후임으로 한논 본당을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다. 타케는 1902년 6월 17일 제주도에 도착한 후 처음으로 뮈텔(Mutel) 주교에게 보낸 서한에서 “순풍을 업고 아름다운 바다를 향해한 후 라크루 신부와 저는 5월 31일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6월 9일에 라크루 신부는 저를 이곳에 자리잡게 하고 함께 며칠을 보낸 후 자신의 임지로 되돌아갔습니다. 신부들이 없는 동안 특별한 일은 없었으며,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 라고 당시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타케 신부는 1902년 '한논'(서귀포시 호근동 하논)본당에 잠시 거주한 후 그해 6~7월 사이에 홍로(烘爐)로 옮긴다. 타케가 머물

던 홍로 본당이 선교 역사뿐만 아니라 제주 근대식물 연구에 매우 중요한 족적을 남긴 공간으로 회자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타케 신부는 이후 1915년까지 제주에 머무는 동안 집중적으로 제주도의 식물을 채집한다. 그가 채집한 표본은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유럽 각국의 대학이나 박물관에 매각되거나 기증되면서 유럽의 학자들에 의해 발표되었다. 세계 식물연구사에 제주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는 표본을 보내 얻은 수익금으로 포교사업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비박사 석주명은 한 기고문에서 "타케가 선교사이기도 했지만 제주도 식물채집조사자로서 오히려 유명했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타케 신부의 서귀포 재임 중 행적은 당시 그가 뫼텔주교에게 띄운 여러 통의 서한에서 생생하게 드러나 있는데, 식물채집과 그 표본을 서구에 보내는 과정, 식물을 팔아 선교비용으로 충당하는 내용 등 제주도의 식물이 서양으로 진출하는 역사가 생생히 기록돼 있다.

타케 신부는 뫼텔 주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주교님께서 떠나신 후(뫼텔 주교는 1907년 8월 10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를 방문한다) 저는 곧 여러 가지 식물을 거두어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것들이 집안에 가득한데 요즘도 저는 추위와 북풍에 잘 견뎌낸, 제게 없는 식물들을 몇 가지 여기저기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직도 두 송이의 십자화(十字花)와 두 송이의 성상화(星狀花)를 건조통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우 몰두하고 있는 것은 그것들을 분류하는 일인데 '포리' 신부의 식물도감 덕분에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타케의 제주도 식물 채집은 1907년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식물학자 나카이 다케노신(中井猛之進, 1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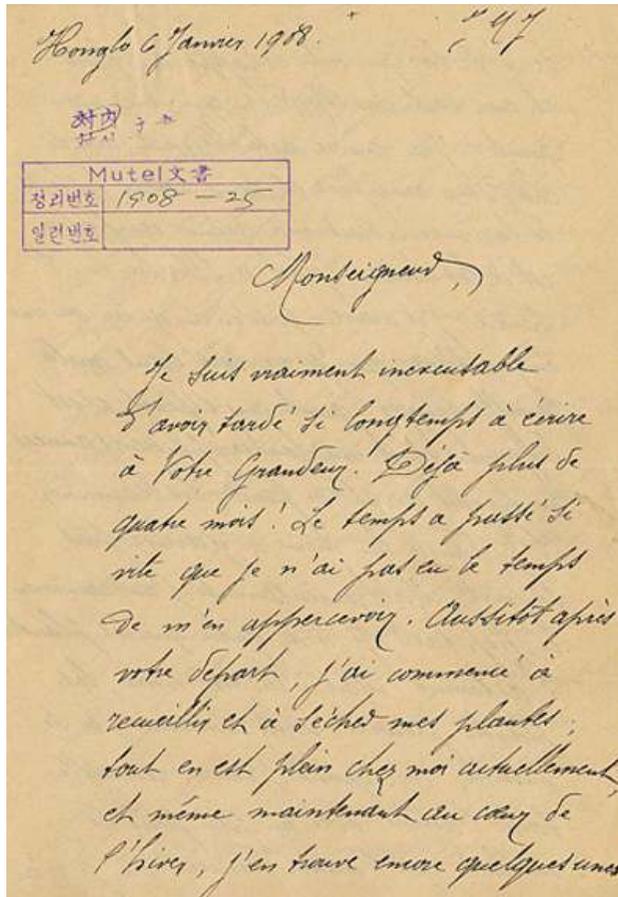
1952)은 제주에 오기 전인 1911년에 아오모리의 포리 신부 집에 35일간 머물면서 이 채집품을 감정했는데, 그 양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카이는 포리 뿐만 아니라 1913년 제주에 처음 오자마자 타케를 찾아 채집품을 감정했다.



▲1902년 포교활동 당시의 타케신부, 현재 서흥동에 있는 천주교 면형의 집의 옛 건물로 추정된다. (사진제공 한라일보)

세계 첫 제주도 자생 왕벚나무 표본 채집

타케 신부가 채집한 식물표본으로 많은 특산식물들이 기재되었지만 그가 제주도에 공헌한 것은 왕벚나무를 채집한 것 때문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 제주도 특산식물인 왕벚나무는 타케신부가 1908년 4월 14일 관음사 일대에서 채집한 표본(표본번호 4638번)을 기준으로 독일의 케네(Koehne) 박사가 새로운 분류군 즉 *Prunus yedoensis* Matsum. var. *nudiflora* Koehne로 발표함으로써 이 종의 자생지가 제주도라는 설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 표본은 자생 왕벚나무의 표본으로서는 최초이다.



▲타케신부가 서귀포 재임중 주교에게 보낸 육필 서한 (사진제공 한라일보)

'나비박사' 석주명은 타케신부가 세상을 떠나기 10년 전인 1942년 '문화조선(文化朝鮮)' 제주특집란에 "서귀포에서 북쪽 2리에 살고 있던 타케신부는 기회만 있으면 한라산에 들어가 식물표본을 채집, 이를 구주의 학계에 보내고 있었다. 1908년 4월 14일

그는 관음사 부근(해발 600미터)의 한 그루의 뱀나무에 꽃이 달려 있는 것을 채취, 자신의 채집번호 4638호의 넘버를 달아 구주에 보냈다"고 적고 있다.

타케신부는 왕벚나무를 최초로 채집하여 제주특산임을 밝히는데 기여하는 등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우리나라의 식물자원을 유럽으로 유출시켰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1908년 1월 6일 뒤편 주교에게 보낸 서한에는 "...라크루 신부가 와서 새해와 주의 공현 대축일을 저와 함께 보냈습니다. 떠나면서 라크루 신부는 빌모랭에게 보낼 나무와 소관목의 씨앗 220종류가 들어 있는 소포를 가져갈 것입니다. 체계는 미국에 있는 사전트(Sargent)교수에게 보낼 것도 그만큼 남아 있는데 주소를 잊어버려 이것은 나중에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러한 것으로 식물 종자도 외부로 많이 보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타케 신부가 구상나무를 채집한 때는 1907년 5월부터 10월까지의 6개월간 포리신부와 함께 채집할 때였으며, 1909년 6월부터 7월까지 별도로 채집을 수행하기도 했다. 구상나무의 신종 명명자 윌슨이 관찰한 표본은 그 중 지리산에서 채집한 표본번호 3263, 3265, 3266 등이다. 윌슨은 그 후 몇 년간의 연구를 거쳐 우리나라 식물학사에 빛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즉, 당시까지 분비나무로 알고 있었던 한라산의 구상나무가 한국의 특산식물임을 밝히고, 새로운 학명을 *Abies koreana* E.H. Wilson으로 신종 명명한 것이다.

구상나무 명명 기재문을 보면 윌슨은 한라산에서 1917년 10월 31일과 11월 5일 채집한 표본번호 9486과 9486a를 기준표본으로 하고, 1907년 5월, 6월, 7월, 8월 U. Faurei가 채집한 표본번호

1517, 1518, 1519, 1520, 1522, Emile Taquet가 1909년 채집한 표본번호 3263, 3265, 3266, 그리고 윌슨 자신이 1917년 11월 16일 경상남도 지리산에서 채집한 표본번호 9602 등을 증거표본으로 명명했음을 알 수 있다. 발표지는 The Journal of the Arnold Arboretum 1권 3호 188쪽이다.



◀미국 하버드대학 표본관에 소장되어 있는 구상나무 기준표본(라벨에는 채집지역 제주도 한라산 1,000~1,900m 채집일 1917.10.31, 채집자 E. H. Wilson 등이 기록되어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2009년 7월 5일 연합뉴스보도사진)

온주밀감의 도입

한편 타케신부와 온주밀감에 얽힌 역사도 중요한 부분이다. 서귀포에 온주밀감을 전파한 최초의 인물은 바로 타케 신부다. 이때가 1911년이다. 타케 신부는 1902년 서귀포 '한논성당'에 첫 부임한 이후 1915년까지 서흥(당시는 烘爐)성당에서 선교활동과 식물채집을 하는 동안 일본으로부터 온주밀감(温州密柑)을 들여와 서흥성당 일대에 심었다. 그가 도입한 온주밀감은 1911년 아오모리에 주재하던 '포리'(Faurie R. P, 1847~1915) 신부로부터 받은 묘목이다. 타케는 모두 10여그루의 감귤을 심었으나 지금은 옛 서흥성당 자리에 1그루만 남아 있다.

타케는 1915년 6월 제주에서 목포본당으로 전임되어 활동하다가 1922년부터 대구 성 유스티노 신학교로 전임되었고 이곳에서 1940년에 은퇴하였다. 1952년 1월 27일 노환으로 신학교(현 대건고등학교)에서 생활하다가 심장마비로 78세에 영면하였다. 사후 그가 채집한 많은 표본과 식물분류학 자료들은 대구 천주교 주교관내 도서관에 보존되어 오다가 1964년 12월 15일 오전 화재로 전부 소실되고 말았다. 현재 그의 묘는 대구시 남구 남산동 천주교 구내 성직자 묘지에 있다.



▲ 왕벚나무(타케신부가 채집했던 곳으로 추정되는 관음사 인근에 자라고 있는 제주 자생의 왕벚나무)

【참고문헌】

- 김준호. 1996. 서양 근대 생물학의 국내 도입에 관한 연구: 생태학. 한국생태학회지 19(1): 81-91.
- 이덕봉. 1961. 최근세한국식물학연구사. 아세아연구 4(2): 101-149.
- 이덕봉. 1963. 최근세한국식물학연구사. 고대문리논집(이학편) 6: 145-158.
- 정영호. 1986. 한국 관속분류학의 어제와 오늘. 생물학연구연보 7(2): 13-32.
- 제주선교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한국교회사연구소. 1997.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 (2).
-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 2009. 화산섬, 제주세계자연유산 그 가치를 빛낸 선각자들.
- Oh, S-Y. 1984. A historical study on the vascular plants in Korea (I). Bull. Kyeongbuk Univ. 38: 171-197.
- Suh, Y. J.-H. Pak, M. G. Chung, K. Heo, W.-K. Paik, H. Ohba, C. Lee, S. H. Cho, W. Lee and S.-R. Lee. 2008. Type specimens collected from Korea at the Herbarium of the University of Tokyo (2), Aceraceae, Celastraceae, Euphorbiaceae. Orom Systyems Co, Ltd. Seoul.

심재 김석익 선생을 기리며1)

오 문 복

(제주동양문화연구소장, 한학자)

우리나라에 있어 19세기말과 20세기 중엽에 이르는 시기는 구한말의 혼란과 이에 따른 한일합방(경술국치), 일제의 식민지 시대, 광복 후에는 좌우의 대립과 연이어 벌어진 민족상잔의 6·25전쟁에 이르기까지 격동과 혼란의 시대였다. 선생께서는 이 격변의 시기에 태어나 직·간접적으로 이 모든 사태를 겪으셔야만 했으며 1948년에 이르러서는 본도에서 일어난 4·3사건의 비극을 직접 목격하시기도 하였다. 때로는 친척(親戚)과 지인들이 일제에 항거하다 투옥되거나 고초를 겪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으며, 후에는 많은 제자[門人]들이 독립운동을 하다 옥에 갇히는 것을 보아야 하는 슬픔을 겪기도 하였다. 심지어 제자인 강창보(姜昌輔)가 해방되기 직전 해에 옥중에서 사망하는 비극을 접하기도 하셨다. 그러나 선생께서는 쉬이 의중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자중하시어 평생토록 저술과 후학육성에 힘썼으며, 『탐라기년(耽羅紀年)』과 그 속편, 『탐라지(耽羅誌)』, 『탐라관풍안(耽羅觀風案)』 『파한록(破閑錄)』, 『근역시화(槿域詩話)』 『유리만필(儒理漫筆)』 등을 저술함으로써 민족의 정기를 보존코자 하시는 선생의 뜻을 드러내 보이셨다. 또 선생은 일생동안 외영(外榮)에는 뜻을 두지않고 스스로를

1) 이 원고는 국립제주박물관이 2004년 제작한 『김계연 선생 기증유물 특별전-구한말 지식인의 일생-심재 김석익』 도록에 수록된 원고의 일부를 수정하여 실었다.

같고 닦는데 전념하시어 법첩을 임서하고 전자(篆字)를 각하며 서화를 감상하시기도 하여, 서(書)에 있어서는 독보의 경지를 이루기도 하셨다.

이제 선생의 약력을 살펴, 선생의 지자운 행적과 생각의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생의 본은 光山으로 名은 석익(錫翼, 初名은 錫祚)이며, 濟州城南 東廣壤의 자택에서 태어나셨다(1885년). 자는 처음에 윤경(胤卿)이다가 윤경(允敬)으로 고쳤으며, 다시 후에 홍점(鴻漸)으로 하셨다. 호는 월대산인(月埜散人), 일소도인(一笑道人), 심재(心齋), 해상일사(海上佚士) 등을 쓰셨다. 8세때(1892년) 비로소 할아버지에게 배웠고, 16세(1900년) 되던 해 아석 이용호(李容鎬)에게서 학문을 배워 크게 영향을 받았다.(아석 이용호는 보은 사람으로 홍문관 교리로 있다가 제주에 유배되었다. 이듬해인 辛丑年 봄에 타도(他島)로 유배되었다.)

1904년(20세) 11월에 光州로 유학을 가서 부해(浮海) 안병택(安秉宅)에게 집지(執贄)하여 적전(嫡傳)이 되었다. 선생의 학문은 스승인 안부해의 연원(淵源)인 기로사(奇蘆沙)의 유리설(唯理說)을 철저히 따랐다. 특히 작문의 요체(要諦)는 이로부터 터득하였다.(안부해는 제주 조천리에서 태어나 장성으로 이사하여 奇蘆沙에게 수학한 호남의 대학자)

1908년(24세) 12월에 스승인 안부해가 고사훈(高仕訓)에게 줄편지를 지니고 왔으나 고사훈이 왜헌(倭憲)에 의해 총살되어 전해주지 못하였다.(『심재집』에 高景志(고사훈의 다른 이름)謝狀이 있으며 『浮海漫稿』에도 등재되어 있다.)

이듬해인 1909년(25세) 2월에 광주로 가 옥중에 있는 형(錫允)을 면회하였다.(이 때에 동향인 고사훈이 광양에서 의병을 일으키

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순국하였다. 이에 그 형이 연루되어 옥에 갇히게 된 것이다. 고사훈과 그의 형 석윤은 제주에 있어서 최초의 항일운동가였다.)

1915년(31세)에 이제는 탐라사의 주요 사서가 된 『탐라기년』을 완성하였다. 이 책에 대해 일찍이 그의 스승인 안부해 선생은 그 서문에서 “滄桑餘悲”(창해가 상전으로 변하는 슬픔)라 하여 선생이 이 책을 저술한 이유가 망국의 비애를 토로한 것이라 표현하였고, 또 김시우(金時宇·조천출신 한말 한학자로 호는 晩翠)는 서문에 “고려 태조의 천년으로 시작하여 광무 병오년(1906)을 끝을 한 것으로 능히 그 뜻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비록 한 지방의 역사일망정 국가의 흥망성쇠가 어떠한 연유로 발생하는 지를 나타내고자 하신 선생의 뜻을 짐작할 수 있다.(고려 태조가 일국의 시작이라면 광무병오(1906)는 일국의 쇠망을 뜻함이니, 망국의 이유와 울분을 이로써 표현하고자 하였다.)

1916년(32세)에 송두옥(宋斗玉·고종때 제주판관 및 정의 대정 양군수 역임, 호는 橋軒, 당대 제주의 대부호)이 초빙하여 그 사랑(현 제주시 한일은행 자리)에서 서당을 열어 후학을 양성하였다. 그 문하에 모인 자 중에 당대의 준재 아닌 자가 없었다. 그 문하에서 姜昌輔 韓相鎬 金澤銖 金正舜 金正魯 高景欽 朴景勳 洪淳億 등이 배출되니, 훗날 강창보, 한상호, 김택수, 김정순, 고경흠 등은 독립운동에 뛰어 들었으며, 박경훈은 초대 도지사, 홍순억은 의사로 활동하였다. 선생이 비록 몸소 의병에 참여하거나 독립운동에 참가하신 바는 없으나, 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제자들이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은 선생의 참된 뜻이 여기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선생에게는 비축이 있을 듯 하였으나 생활이 항상 곤궁하였고 문인들의 束脩도 생계에 보태지 않았으므로

항상 여유가 없었다. 그 쓰인 곳을 헤아려 짐작할 수 있다.

1908년부터 1926년 12월까지의 후학을 가르쳤으나 1928년 2월에 도일(渡日)함에 따라, 이후로는 후학을 가르치는 일이 없게 되어 선생의 학문의 맥이 끊기게 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1923년(39세) 10월에 상경하여 광산김씨대종회(光山金氏大宗會)에 참석하였다. 이로써 제주과가 비로서 족보에 합할 수 있게 되었다.

1928년(44세) 1월 도일하여 1944년(60세) 정월에 고향으로 돌아오셨다. 외국에 있으면서도 『해상일사(海上佚史)』를 집필하여 제주의 명승지와 민속을 기록으로 남겼다. 요즘 재현되고 있는 입춘굿, 영등굿에 대한 귀한 자료이다.

선생의 문학은 대방가(大方家)의 체재가 뚜렷하였다. 시(詩)·서(序)·전(傳)·기(記)·행장(行狀)·문(文)·고사(告辭)·찬(贊)·묘문(墓文)·발(跋) 등 모든 문체의 글을 고루 갖추어 지어 남겼다. 그러면서 스승의 문풍을 따라 형태를 그리기 보다는 형태 밖(形外)을 그리는데 마음을 쏟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대 명가의 저술을 섭렵하여 절창으로 꼽힐 만한 시와 그에 관한 시화(詩話)를 정리하고 아울러 설문대할망 김만덕과 같은 전설과 전기를 기록하여 『잡동산이(雜同散異)』 한권을 엮었다. 또 신라시대부터 조선말기까지의 명시 296수에 대한 시화를 엮어 『근역시화(槿域詩話)』를 찬술하여 우리나라 문학사의 체계를 세웠다.

선생의 서법(書法)에 대한 조예는 일본에 거주한 이 시기에 더욱 깊어져 그 인근에 명성을 떨치기도 하였다. 선생의 유물이 남아 있는 한문서적과 원탁(原拓) 안진경사보탑비(安眞卿多寶塔碑), 구양순구성궁예천명(歐陽詢九成宮醴泉銘) 등의 법첩도 이 시기에 수집하신 것이다. 수집한 법첩은 물론 당시에 일본에서 구입할 수 있었던 북조(北朝)의 여러 법첩을 임서하여 일가를 이룬 것이다.

『심재집』 친필 여러 편을 살펴보면 용필(用筆)과 운필(運筆)이 각 편에 다라 조금씩 달라 여러 체본의 특징이 드러나 있다. 선생은 제주에서 비탁 원본(碑拓 原本) 법첩을 체본으로 한 법서(法書)의 효시이다. 휘호(揮毫)의 여가에 우리나라에서 꼽히는 서화가 73인을 골라 행적과 특장(特長)을 주단(主斷)하여 『근역서단명가초(權域書壇名家抄)』를 저술하여 후인의 참고가 되게 하였다.

해방 후 1948년 민주독립당 제주도당 창당대회가 제주극장에서 개최, 선생께서 내빈으로 초대되어 도당 위원장으로 추대되었으나 선생은 끝내 사양하여 취임하지 않았다.

1952년(68세) 『탐라기년』 속편을 편찬하시니 해방이후 최근의 사실까지 기록하신 것이다. 특히 4·3에 대하여 기록하시면서, 매우 간략하게 표현을 하였지만 이 사건이 어떤 연유로 발생했으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다수의 무고(無辜)한 민중이 횡액을 당했음을 분명히 하셨다.

선생의 해방이후에 대한 시국관을 『심재집』 여러 곳에서 뽑아 살펴보면,

“조선이 비록 일본에 빼앗겼다고 하나 다시 미국과 소련의 통치에 들어갔다. 38선 이북은 소련이 주장하고 38선 이남은 미국이 홀로 담당하였다. 이 때를 당하여 안재홍, 이승만의 무리들이 서로 이어서 정권을 잡고 남조선 사람들을 뽑아 썼으나 오직 그들이 좋아하는 이들만 골라 썼다. 이 때에 간록(干祿)에 급급한 무리들이 관을 털고 일어나 큰 벼슬을 맡는 것을 풀잎을 줍듯 하였다.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염치는 쓸어버린 듯 하니 대잔의 끝에 이르렀다.

우리 제주도의 소요(4·3사건)의 발판은 3·1절 기념식 날 경찰들의 발포에서 시작되어 고문하고 잡아가둠이 점점 많아져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다. 실제로 조병옥이 조장한 것이다. 또 경찰들이 총포를 자행하고 권위를 너무 써서 산군(山軍)의 소동을 양성시켰다. 실제로 조병옥이 계도한 것이다. ‘아! 한 발의 방자한 발포가 그 동기는 심히 미미하지만 그에 관계된 일(4·3사건)은 아주 크다. 애석하게도 조병옥이 경찰들을 징계하여 민심을 편안케 위무하지 못하고 반대로 경찰권을 조장하여 민중들을 탄압하는 것을 보안의 좋은 방책으로 삼았으니 착오라고 말할 수 있다. 4·3사건의 실상을 살펴보면 무한한 참극이 실제로는 조병옥의 일장박론(一場駁論)에서 시작되었다. 경전에 말한 ‘한 사람이 일을 그르친다’라 한 것은 조병을 두고 한 말인가.(『心齋集』 2~186쪽)

지난해 3월 1일 이후부터 경관의 무리들이 방자하게 권한을 자행하여 조금이라도 관련에 혐오가 있으면 일망타진하여 지지고 북아 끝내는 중도에서 목숨을 잃게 하였다. 잡아둔 몇 사람을 내세워 목숨을 잃은 사람 모두를 모두 병으로 죽었다고 꾸민 까닭으로 사람들은 아침저녁을 보전하기 어렵겠다고 의심을 품었다. 이때에 한 무리들의 피의자가 무리를 모아 산으로 피하여 들어가 공작을 잠행하였다. 마침 국회의원 선거를 기회로 삼아 선거사무소를 습격하고 사람을 죽이니 이것이 이른바 4·3사건이다. 이때부터 경찰지서, 면사무소, 민간인의 마을을 습격하여 끊이는 날이 없었다.

정부에서 파견한 군인 중에도 또한 산군에 호응하여 산간으로 투입하는 자가 있었다. 송요찬, 함병선의 전후 소탕은 참혹하였다. 그러한 때를 당하여 그 사이에 사는 양민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였을까? 이미 산군의 공갈을 받았고 또 군인과 경찰의 위협에 겁먹었다. 또 서북청년이 발호하여 생살여탈의 권한을 쥐었으니 이들이 누구의 조종에 의하여 행동했는가. 사람 죽이기를 삼 배듯하여 동색피가 길을 덮었다. 아! 산중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면 군인 경찰

의 칼날에 영켜 죽었을 뿐이다. 이때에 사람들은 발을 무거이 가져 바로 쳐다보지도 못하여 죽음이 오히려 나은 것인지 살아 있는 것이 죽어 있는 것보다 나은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이리 같이 어깨를 움추려 아침에 저녁에 할 일을 피하지 못하였다.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은 것은 실제로 이러한 때문이었다. 유사 이래 없었던 참화이다.

기축년(1949)에 이르러 내무부장관 신성모가 와서 비로소 살육하는 행정을 멈추게 하였다. 경인년(1950) 남북교전이 이어져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이는 쓸어버린 듯 없어졌으니 아! 슬픔이여”라고 말하였다.

현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과 거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통신망이 전혀 없던 그 시대에 시국을 살피어 판단한 투철함이 이와 같았다.

1956년(72세 병신년) 정월 20일 객사동 자택(삼도리 23번지)에서 졸하니 향년 72세이셨다. 동월 25일에 유명에 따라 독지동에 장(葬)하였다가 다음 달 축산시험장내로 이장하였다.

선생께서는 자찬비문에서도 쓰셨듯이, “불회교유(不喜交遊; 세상과 교류함을 즐기지 않고)하여, 오로지 학문에만 전념하여 평생토록 외영(外榮)에는 뜻을 두지 아니하셨다. 일평생 스스로 갈고 닦아 저술로써 뜻을 드러냈으며, 후학을 기르는 것을 스스로의 소임으로 여겼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때를 만나지 못하여 종신토록 육영에 힘쓰지 못하였다. 그래서 저술에 힘써 향토사 부문에는 『탐라기년』 과 『탐라지』 를 남겼고, 제주의 야사, 기문, 전설, 유적 등을 정리한 『과한록』 · 『해상일사』 · 『유리만필』 등을 남겼다. 문학 부문에는 우리나라 명가의 시 296수를 뽑은 『근역시화』 와 『잡동산이』 를, 서화에는 우리나라 73인 서화인의 행적을 정리한

『근역화단명가초(槿域畫壇名家抄)』 를 남겼다. 저술에 몰두하는 여가에 당나라 때에 탁본한 다보탑비, 구성궁예천명 등의 진본을 입수하여 그를 체본으로 글씨를 썼으며, 흥취에 따라 전각(篆刻)에 하수(下手)하기도 하였고 문인화를 그리기도 하였으며, 옛 서화를 감상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제주에서 이 분야의 현대적 예술이 선생에게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선생에게는 여사(餘事)에 불과하였지만 후학에게는 행운이었다.

선생은 혼란한 시대를 살면서 연원인 로사(蘆沙) 송사(松沙) 학통을 따르고 부해(浮海)의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유훈을 굳게 지키고 ‘나라는 망해도 도(道)는 망하지 않는다’는 유훈을 굳게 믿어 선비의 체통을 굳게 지키어 털끝만큼도 흐트러짐이 없었던 선비로서 역사·문학·한묵(翰墨)의 대가이셨다.

선생의 평생 동안의 저술과 유품을 영운인 내심(乃心) 김계연 선생께 국립제주박물관에서 기증받음으로 말미암아 전시하려 하니 감회가 깊다. 선생께서 붓으로 손수 쓰신 모든 저술의 원본은 물론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전각, 문인화, 서예작품 등과 고택에도 남아 있지 아니한 김시학(桐岡), 김시우(晚翠), 장용건(庭山), 의병장 고사훈(龜訓, 樵狂) 등 당대 선생과 교류가 있었던 제가의 필적까지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으니 참으로 천행이 아닐 수 없다.

제주사(濟州史) 연구의 선구자, 춘송(春松) 김태능(金泰能)²⁾

홍 기 표
(문학박사, 성균관대 사학과 강사)

- 차례 -

1. 들어가며
 2. 김태능 선생의 생애
 3. 김태능 선생의 저술활동
 4. 김태능 선생에 대한 재조명
 5. 나오며
- 부록 : 김태능 선생 논문 목록(1~4)

1. 들어가며

김태능(金泰能) 선생은 제주도 역사 연구의 선구자로 불리는 인물이다. 1906년 가파도(加波島)에서 태어나 1972년 서울에서 돌

2) 이 글은 2007년 서귀포시청에서 발간한 《서귀포》 창간호에 실려던 것을 수정, 보완하였다.

아가셨으니 만 66세의 삶을 누렸다. 올해는 선생께서 서거한 지 39주기(周忌)가 되는 해이다. 내년 연말이면 선생 사후 40주기여서 이제부터 선생의 연구 역량을 심층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본다.

선생은 어린 시절 대정보통학교(大靜普通學校)를 다녔던 때와 청년 시절 숙부(叔父)인 김성숙(金成淑, 1896~1979) 선생이 설립한 신유의숙(辛酉義塾)에서 민족교육의 일익을 담당했던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육지에서 생활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터 잡고 살아오던 제주민(濟州民)에게는 오히려 낯선 인물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오늘날 선생을 제주사(濟州史) 연구의 선구자, 더 나아가 위대한 제주인으로 조명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이유는 그의 방대한 저술활동 때문이다. 1959년 3월 제주신보(濟州新報; 제주신문의 전신)에 <남제주군종횡기(南濟州郡縱橫記)>를 투고하면서 시작된 선생의 제주사 관련 투고와 저술 활동은 임종 직전까지 15년간이나 이어져 당시 불모지나 다름없던 ‘제주사’ 분야에 비옥한 토양을 개척하여 명확한 씨를 뿌렸다. 그 후 선생의 영향으로 많은 후학들이 사명감을 갖고 제주사 연구에 매진하여 오늘날 ‘제주학(濟州學)’으로까지 발전을 보게 되었다. 그만큼 김태능 선생을 빼고 제주사·제주학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가 제주도 연구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였다.

이제 선생의 생애를 간략히 소개하고, 그가 남긴 저술 활동을 정리하며, 선생이 후학들에게 주문한 ‘제주도사(濟州島史)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한다.

2. 김태능 선생의 생애

김태능 선생은 1906년 7월 27일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에서 출생했다. 1910년 일본에 나라를 뺏기면서 어린 시절이 시작되었으니, 선생은 시대의 아픔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어릴 적에는 집안이 넉넉하였는지 대정보통학교를 거쳐 서울까지 유학하여 휘문고등보통학교(徽文高等普通學校)를 졸업했다. 10살 위이며, 항일운동가로 선생의 숙부였던 김성숙 선생도 경성고등보통학교(京城高等普通學校)에서 독학했다고 하니 그 가문의 향학열(向學熱)만큼은 남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성숙은 1919년 3·1운동 당시 경성고보 4학년 학생신분으로 독립만세시위에 나섰다. 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였다. 그 후 1921년 고향으로 귀향한 김성숙은 가파도에 신유의숙을 설립했다. 이 때 조카였던 김태능도 같이 귀향하여 숙부를 도와 가파도와 대정 등지의 제주민에게 문맹퇴치와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김태능은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임산업(林山業)과 해난구조사업(海難救助事業)을 시작했다. 일제강점기였던 그의 20~30대 청년 시절은 나라 잃은 설움을 늘 안고 살았는데, 불행하게도 사업 또한 순탄치 않아 실패를 거듭했다고 한다. 해방 후에는 뒤늦게 부산대학교 법정대학을 다니기도 했지만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심지어는 가정생활이 곤궁하자 부인께서 하숙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기도 했다. 이처럼 40대까지 그의 생애는 20세기 우리 현대사의 굴곡과 함께 하며 그리 평탄치 못한 나날을 보냈다.

선생이 본격적으로 제주사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한 때는 50대부터였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분단과 한국전쟁(6·25) 등을

거치며 정치·사회적 혼란을 온 몸으로 느꼈던 선생이었다. 더욱이 뜻하는 사업도 실패의 연속이었으며, 그 때문에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역할도 충실하지 못했다. 그런 선생에게 최후까지 남은 자존심은 바로 제주민(濟州民)이라는 사실이었다. 자신의 정체성(正體性)을 확인하고자 최후로 정열을 불태워야 할 분야가 바로 ‘제주사’에 대한 개척이라는 사실을 느꼈던 것이다. 사실 선생께서 제주사 연구에 발을 들여 놓게 된 계기는 휘문고보 재학시절이라고 한다. 제주문화원장을 역임했던 고(故) 홍순만(洪淳晩)이 김태능 선생에게 직접 전해들은 당시의 일화가 전한다.

“일제시대 휘문고보 시절의 일이었다. 그때는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올라간 학생들도 ‘촌놈’이라고 하여 몹시 서울 학생들에게 시달릴 때였다. 하물며 제주도에서 올라갔으니 촌놈도 아까웠는지 아예 ‘섬놈’이라고 하여 최악의 괘시를 받았다. 그 때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던 김도태(金道泰) 선생의 강의가 김태능 학생에게 무한한 자긍심을 안겨다 준 것이다. 선생의 수업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제주도는 정국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지조 높은 선비들이 들어간 곳이다.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의 신왕조가 서면서는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선비사상을 지닌 고려유신(高麗遺臣)들이 들어갔고, 사화(土禍)나 당쟁(黨爭)이 일어날 때마다 불의의 타협과 권력을 거부한 선비나 학자들의 피난지가 되었다. 제주도에는 처음부터 농사 지으러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따라서 제주도 사람은 모두가 정치적 유망인(流亡人)의 후예다.’ 이후 동급생들의 태도가 일변한 것은 물론이었고 김태능 학생이 제주 역사를 탐구하겠다는 강렬한 충동과 의지를 가슴에 묻게 된 것도 이

때부터였다고 한다.”(《탐라순력》· 창간호, 2000. 3)

위 사실은 이미 예전에 소개된 자료에 실린 내용이 정리된 것이다. 따라서 김태능 선생의 생애를 살필 수 있는 자료로는 다음이 있다.

- ① 홍순만, <평생을 도사(島史) 연구에 바친 고 춘송 김태능 선생>, 《제주도》 58호, 1973.
- ② 김태능 유고집(遺稿集), 《제주도사논고(濟州島史論攷)》· <서문>(홍순만), 1982.
- ③ 강용삼(姜龍三)·이경수(李京洙), <불멸의 업적, 사학자 김태능>, 《제주백년》, 1984.

김태능 선생은 1950년대 후반부터 비로소 제주 역사 연구에 깊이 파고들었다. 매일 도서관에 출근하며 주위에 누구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는 고독한 작업을 이어갔다. 선생은 1959년 3월 9일 <제주신보>에 처음으로 투고하면서 이후 1972년 6월 22일까지 총 31편의 글을 언론사에 329회 실어 ‘제주도사 연구가’로 그 이름을 제주도에 널리 알렸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비롯한 도내 행정기관의 정기간행물에도 총 28편의 제주 역사 논문을 발표하여 제주 역사 연구자로 그 위상을 드높였다.

‘제주사’ 연구의 시초는 이처럼 선생에 의해 언론기관과 행정기관의 지면을 통해 이루어졌다. 학계가 아닌 공공기관들이 제주 역사 연구의 토양을 제공한 것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해줄만 할 것이다. 즉 먹고살기 힘들었던 당시에도 과거 제주사가 어떻게 이어왔는가를 알리고자 노력한 점, 또 특정의 목적이나 의도를 배제한 채 선생의 진실된 학문적 성과를 여과 없이 그대로 소개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3. 김태능 선생의 저술활동

현재 전하는 김태능 선생의 논문은 총 63편이다. 1982년 11월 선생의 장남인 김철(金澈)씨와 향토사학자 홍순만이 유고집으로 《제주도사논고》를 출간하였는데, 이 책에 「김태능 선생 논문 목록」이 소개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제주신문>에는 1959년 3월 9일 <남제주군종횡기(南濟州郡縱橫記)>부터 1972년 6월 22일 <철종시대(哲宗時代)의 제주농민폭동>까지 총 30편의 글을 328회 연재했다. 또 제주도(濟州道)에서 발간하는 《제주도》 지에는 1964년 4월(통권 13호) <탐라의 호칭에 대한 사고(私考)>부터 1972년 5월(통권 54호) <심래복일당(沈來復一黨)의 모역(謀逆) 사건>까지 총 24편의 논문을 23개호에 걸쳐 투고했다. 이 밖에 제주시에서 발간하는 《제주시》 지에 2편(통권 2, 6호), 1969년에 창간된 《제주연감》에 <제주도약사(濟州島略史)>1편(장편) 등 총 9편의 논문이 전한다. 이상 선생의 제주사 연구가 이루어졌던 지면과 그 활동기간을 도표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제주신문> 게재(전신인 <제주신보>포함)

순번	연령	연도	연재기간	주제 편수	연재 총 횟수	비고
1	53	1959	03월~12월	7편	114회	제주신보
2	56	1962	10월~12월	2편	24회	제주신문
3	58	1964	01월~12월	11편	93회	"
4	59	1965	04월	1편	8회	"
5	64	1970	03월~11월	4편	64회	"
6	65	1971	10월	2편	18회	"
7	66	1972	03월~06월	3편	7회	"
계	.	.	.	30편	328회	.

○ 《제주도》 투고

순번	연령	연도	투고기간	통권 호수	논문 편수	비고
1	58	1964	04월~12월	13/14/15/16/18	5편	
2	59	1965	05월~09월	19/21	2편	
3	60	1966	10월	27	1편	
4	61	1967	09월~11월	30/31	2편	
5	62	1968	04월~12월	33/34/35/36/37	5편	
6	63	1969	07월~12월	39/40/42	3편	
7	64	1970	03월~11월	43/45/46	4편	45호 2편
8	65	1971	12월	52	1편	
9	66	1972	5월	54	1편	
계	.	.	.	23개 호	24편	

○ 기타

순번	연령	연도	투고 월일	투고지 및 호수	논문 편수	비고
1	60	1966	12. 30	《제주시》 2호	1편	
2	62	1968	02. 29	" 6호	1편	
3	63	1969	봄	《탐라》 춘계호	1편	제경도민회지
4			07. 01	《남제주》 8호	1편	
5			11. 10	《제주연감》 창간호	1편(장편)	제주도약사
6	65	1971	08. 12	〈제남신문〉	1편	1회
7			08. 30	《교육제주》 16호	1편	
8			10월	《김만덕전》	1편	김만덕 기념사업회
9	66	1972	미발표	〈제주 고씨 연구〉	1편	유족 보유
계	9편	.

선생의 제주도 역사에 대한 연구와 집필 활동은 앞서 밝혔듯이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다. 그 첫 원고가 1959년 3월 9일 연재되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선생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인 1972년 12월 31일까지 대략 15년간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사실 매일 사

료(史料)를 뒤적이며 연구를 하지 않는 한 신문 연재는 불가능한 일이다. 또 단순한 사실(事實)의 전달이 아니라, 역사 자료들을 분류하고 분석하며 자신의 관점 표명까지 요구되는 논문 집필은 피말리는 정신적 고통의 연속이다. 도서관과 집을 오가며 이루어졌을 선생의 정열적인 연구와 집필 활동에 절로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다. 선생께서 남기신 총 63편의 제주 역사 논문들을 주제별로 나누어보면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중복 분류될 글도 있지만 이를 최소화하여 간략히 소개한다.

- ① 유배인을 중심으로 한 인물사(人物史)
- ② 제주와 외국과의 관계
- ③ 표류기(漂流記) 탐구
- ④ 제주에서의 반란(叛亂) 또는 민요(民擾)
- ⑤ 제주 지역과 지명 탐구
- ⑥ 제주도 역사 일반 및 사료(史料) 해석 등이다.

첫째, 선생의 논문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것이 바로 인물사이다. 제주에 유배 왔던 유적인(流謫人), 제주목사(濟州牧使), 김만덕(金萬德) 등 ‘제주도와 주요 인사들의 관계’를 탐구하는 글이 대부분이다. 그 가운데 유배인과 제주와의 관계를 알리는 글이 다수 전한다. 이는 앞서 밝혔듯이 선생의 휘문고보 재학시절 역사교사였던 김도태 선생의 강의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선생은 지조 높고 절개 있는 수많은 유배인들이 제주에 귀양 와서 제주민에게 학문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수업 내용에 큰 감명을 받았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선생의 ‘제주사’에 대한 탐구는 인물사, 그 중에서도 유배인들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 [표 1]의 논문 7편이 그것이다.

[표 1] 유배인(流配人) 연구

순번	발표일	발표지	논문명
1	1964. 01. 01	제주신문 (연재 52회)	고대(古代) 제주(濟州)의 ... 유배인(流配人)들
2	1968. 12. 30	제주도 37호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의 대정적거(大靜謫居) ...
3	1969. 춘계호	탐라 (재경도민회지)	유배인(流配人) 신성익(申聖翊)과 용마(龍馬) 이야기
4	1969. 12. 31	제주도 42호	신명규(申命圭) ... 대정현(大靜縣) 적거(謫居)
5	1970. 08. 01	제주도 45호	충암(冲庵) 김정(金淨)
6	1970. 08. 01	제주도 45호	동계(洞溪) 정온(鄭蘊)
7	1971. 12. 30	제주도 52호	노씨부인(盧氏夫人)과 까치 ...

위의 글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1964년 1월 1일부터 제주신문에 52회 연재로 실렸던 논문이다. 선생은 서두에서 여말선초(麗末鮮初) 왕조교체기에 절개를 지키기 위한 고려유신(高麗遺臣)들의 제주 입도, 즉 입도조(入島祖)를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뒤이어 사화(士禍)와 봉당(朋黨) 간의 대립을 본격적인 제주 유배인의 시초로 보고, 그 역사적 배경을 해설했다. 그리하여 연산군(燕山君)에서 헌종(憲宗)에 이르는 약 300여 년간 50여 명의 제주 유배인을 일일이 소개하고, 그들의 유배 이유 및 행적과 제주에 끼친 영향 등을 연대순으로 서술했다. 이후 《제주도》 등에 소개한 6편의 논문은 제주신문 연재분에서 특정 인물들을 뽑아 그 보충한 내용을 첨가하여 쓴 글이었다.

선생은 제주목사에 대한 관심도 4편의 글로 표명하고 있다[표 2].

[표 2] 제주목사(濟州牧使) 연구

순번	발표일	발표지	논문명
1	1964. 10. 29	제주신문 (연재 4회)	제주기민(濟州飢民)과 동고(同苦)한 목사(牧使) 노정(盧錠)
2	1967. 09. 05	제주도 30호	제주토속(濟州土俗)과 영천(永川) 이목사(李牧使)의 치적(治績)
3	1969. 09. 30	제주도 40호	목사(牧使) 김정(金攸)의 치적(治績)과 삼천서당(三泉書堂)
4	1972. 05. 10	제주신문 (연재 5회)	... 목사(牧使) 장림(張琳)의 제주방어시설(濟州防禦施設)

선생이 다룬 제주목사는 모두 4명이었다. 조선 현종(顯宗) 10년(1669) ~ 12년(1671) 제주목사로 재임하면서 제주민을 구휼했던 노정(盧錠) 목사. 숙종(肅宗) 28년(1702) 6월부터 1년여 간 재임하여 음사(淫祠)와 불우(佛宇)를 철폐했던 이형상(李衡祥) 목사. 영조(英祖) 11년(1735)에 도입하여 손수 돌을 나르며 화북포 축항공사를 지휘했고 삼천서당(三泉書堂)을 세워 교육과 학문 진흥에 힘쓰다가 2년 뒤 이임할 때 제주 화북포 객관(客館)에서 숨을 거둔 김정(金攸) 목사. 중종(中宗) 5년(1510)에 도입하여 비양도(飛揚島)와 가까운 명월진(明月鎭)과 우도(牛島)와 가까운 별방진(別防鎭)에 축성(築城)을 하였는데, 그 민폐가 극심했다 하여 붙잡혀 간 장림(張琳) 목사가 그들이다.

한편 조선 정조(正祖) 때 제주민을 구휼했던 김만덕(金萬德)에 대한 선생의 글은 1964년 9월 《제주도》(16호)에 발표되었다. 그 후 1971년 10월 제주신문에 14회에 걸쳐 연재를 하며 그 내용을 보충했고, 뒤이어 김만덕기념사업회의 요청에 의해 소책자로 출판되었다. 이 밖에도 다른 주제로 살펴보겠지만, 선생의 논문 제목에 소개되고 있는 인물로 최영(崔瑩)장군, 성교란(聖敎亂; 1901년 이

재수란)의 삼장두(三狀頭), 이건(李健), 이광빈(李光彬), 원(元)나라 순제(順帝), 양제해(梁濟海), 최부(崔溥), 김비의(金非衣), 벨테브레, 임관주(任觀周), 심래복(沈來復) 등이 있다.

결국 김태능 선생이 남긴 여러 논문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인물이었다. 제주와 관련 있는 유배인, 목사, 표류인(漂流人), 역모(逆謀)와 민요(民擾)의 주도자 등을 서술하고 있다. 제주민의 정체성을 찾고, 제주민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다. 여러 인물들을 제시하고 그들의 직·간접적 영향과 제주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고통과 질곡 속에서도 끝내는 극복하며 면면히 제주를 지켜왔던 선인들의 삶이 곧 ‘제주사’가 아니겠나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둘째, 선생은 제주도와 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명하고 있다 [표 3]. <제주신문>에 5편의 글을 총 29회에 연재했으며, 9편의 논문을 《제주도》 등에 투고했다. 그 내용은 제주의 한문(漢文) 문화 수용을 필두로 역대 중국 왕조와의 관계 조명이 중심을 이룬다. 당(唐), 몽고(蒙古)=원(元), 명(明), 청(淸)과의 관계를 다룬 것 8회가 그것이다. 이 밖에 류큐[琉球]를 포함한 일본과의 관계 4회, 화란(和蘭; 네덜란드) 1회 등이다.

[표 3] 제주와 외국과의 관계

순번	발표일	발표지	논문명
1	1959. 07. 18	제주신문 (연재 12회)	몽고(蒙古)의 탐라지배(耽羅支配) ...
2	1964. 06. 28	제주신문 (연재 7회)	명(明)의 흥기(興起)와 제주(濟州)와의 관계(關係)
3	1964. 12. 19	제주도 18호	탐라(耽羅)와 원(元)의 목양시대(牧養時代)
4	1965. 05. 25	제주도 19호	탐라(耽羅)와 원(元)의 목양시대(牧養時代) <속편(續篇)>
5	1967. 11. 23	제주도 31호	원순제(元順帝)의 피난궁전적(避難宮殿跡)
6	1968. 02. 29	제주시 6호	탐라국(耽羅國)의 ... 당(唐)과의 관계(關係)
7	1968. 04. 30	제주도 33호	류구(琉球)와 제주(濟州)와의 관계(關係)
8	1968. 09. 30	제주도 35호	일본어민(日本漁民)의 제주침투(濟州侵透) ...
9	1968. 11. 25	제주도 36호	천미천포(川尾川浦)의 왜란(倭亂)과 을묘왜변(乙卯倭變)
10	1969. 07. 01	남제주 8호	... 반청한상(反淸漢商)의 ... 아국(我國)의 조치(措置)
11	1969. 07. 31	제주도 39호	화란선박(和蘭船舶)의 대정표착(大淸漂着)
12	1971. 01. 07	제주신문 (연재 4회)	해상사고(海上事故)로 본 청국(淸國)과 제주(濟州)
13	1972. 03. 15	제주신문 (1회)	탐라(耽羅)의 한문(漢文) 문화(文化)
14	1972. 05. 10	제주신문 (연재 5회)	삼포왜노(三浦倭奴)의 횡행(橫行)과 ...

제주가 대륙(중국)과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존재한다는 지정학적 여건상 대외관계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들과의 외교적 교류가 원활할 때도 있지만, 또한 늘 침략의 위협을 안고 살았던 제주이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는 항상 왜구의 침입을 염두에 두며 방어를 해왔던 제주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와 그 인접국과의 교류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를 주제로 선정하여 살펴본 선생의 글들은 곧 오늘날 우리가 제주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 셈이다.

셋째, 망망대해 가운데 우뚝 선 제주이기 때문에 표류인(漂流人)들의 기록 역시 선생의 글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표 4]. 제주로 표류된 외국인과 제주에서 외국으로 표류했던 국내인들의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표류관련 글은 대부분 <제주신문>에 연재되었는데, 5편의 글을 총 70회 실었다. 이 밖에 《제주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지에 4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표 4] 표류인(漂流人) 탐구

순번	발표일	발표지	논문명
1	1962. 12. 14	제주신문 (연재 2회)	제주도(濟州島)와 외국(外國)과의 관계(關係)
2	1966. 12. 30	제주시 2호	이광빈(李光彬)의 장기도표류(長崎島漂流) ...
3	1969. 07. 01	남제주 8호	정의현(旌義縣)에 반청한상(反淸漢商)의 표착(漂着) ...
4	1969. 07. 31	제주도 39호	화란선박(和蘭船舶)의 대정표착(大淸漂着)
5	1970. 03. 27	제주신문 (연재 20회)	최부(崔溥)의 표해록(漂海錄)
6	1970. 06. 05	제주신문 (연재 22회)	최부(崔溥)의 표해록(漂海錄) <속편(續篇)>
7	1970. 08. 27	제주신문 (연재 13회)	김비의(金非衣) 일행(一行)의 류구표류(琉球漂流) ...
8	1970. 11. 10	제주도 46호	화란국표류인(和蘭國漂流人) 벨트브레의 행적(行績)
9	1970. 11. 26	제주신문 (연재 9회)	반청한인(反淸漢人)들의 제주표착(濟州漂着)
10	1971. 01. 07	제주신문 (연재 4회)	해상사고(海上事故)로 본 청국(淸國)과 제주(濟州)

국내인이 외국에 표류한 사례로는 일본과 중국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이광빈(李光彬)과 김비의(金非衣) 일행이 각각 일본의 나가사키[長崎島]와 류큐[琉球]에 표류한 사실과 최부(崔溥)가 중국에 표류한 사례가 그것이다. 물론 이 외에도 제주인의 일본과 중국 표류에 대해서 많은 사실이 전하기도 한다.

김봉옥 · 김지홍이 역주한 《옛 제주인의 표해록》(제주문화원, 2001)에 의하면 김비의(金非衣, 성종8; 1477), 정회이(槓迴伊, 연산군5; 1499), 강연공(姜衍恭, 중종34; 1539), 장한철(張漢哲, 영조47; 1771) 등의 일본 표류와 김배회(金杯廻, 성종1; 1470), 최부(崔溥, 성종19; 1488), 김기손(金紀孫, 중종29; 1534), 이방익(李邦翼, 정조20; 1796) 등의 중국 표류, 김대황(金大璜, 숙종13; 1687)의 안남(安南; 베트남) 표류 등이 전하고 있다. 김태능 선생의 표류기 탐구가 시발점이 되어 이처럼 보다 심층적 연구 성과물이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또 외국인이 제주에 표류해 온 사례도 두 경우로 나뉜다. 화란(和蘭; 네덜란드) 선박의 표류와 반청한인(反淸漢人)들의 제주 표류이다. 1962년 12월 <제주신문>에 2회 연재했던 <제주도와 외국과의 관계>는 네덜란드인 하멜이 효종(孝宗) 4년(1653) 제주에 표류해 왔을 때 그 위치 고증과 관련한 글이다. 가파도(加波島)가 아닌 대정 대포리(大浦里) 해안가에 표류했음을 주장한다. 또 이보다 앞서 인조(仁祖) 5년(1627) 역시 제주에 표류했던 벨테브레[한국명 박연; 朴燕]의 행적도 소개하고 있다. 조선에 귀화하여 훈련도감(訓練都監)에 근무하며 홍이포(紅夷砲) 제작에도 간여했고, 하멜 표류시 그들을 서울로 호송하여 감독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네덜란드인들의 제주 표류에 대한 논문이 총 3편 전하고

있다.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도중 파선되어 표류하게 된 그들을 놓고 제주의 지방관과 조선의 조정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면서 제주는 중국과 일본간 해운(海運)의 중간 거점일 수밖에 없는 숙명적 입장을 이해시키고 있다. 심지어는 대양(大洋)에서 한반도로 들어가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외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는 늘 갖추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던지는 듯하다.

한편 반청한인들의 제주 표류에 대해서도 1969년 7월 《남제주》(통권 8호)에 투고한 이후, 1970년 11월부터 1971년 1월까지 <제주신문>에 2편의 주제로 총 13회 연재했다. 효종(孝宗) 3년(1652) 2월 정의현(旌義縣)에 표류한 묘진보(苗珍寶) 일행과 현종(顯宗) 8년(1667) 6월 제주목(濟州牧) 경내 해안에 표류한 임인관(林寅觀) 일행에 대한 글이다. 그들은 명·청(明·淸)교체라는 중국 정세 변동 하에서 청국에 반대하며 명을 부흥시키려는 소주(蘇州)와 복건성(福建省), 즉 강남(江南) 출신의 한족(漢族)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서울로 압송되었는데 그들이 원하는 행로인 일본(日本)으로 돌려보내는가, 아니면 사지(死地)나 다른없는 청국(淸國)으로 송환시키는가를 둘러싼 조선 조정의 대답은 날카로웠다. 결국 청국으로 송환시킬 수밖에 없었던 조선 조정의 대책을 놓고, 좀 더 현명하고 융통성 있게 처리할 수 없었는가 라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김태능 선생의 표류기 탐구는 대양(大洋) 속에 우뚝 솟은 제주의 지정학적 위상을 놓고 여러 가지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제주를 지키기 위한 자구적 노력은 도민의 숙명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대륙과 섬나라를 이어주는 해운(海運)의 중간 거점으로서 제주를 발전시키기 위한 현명한 대처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는가. 제주 주변에는 어떤 성격의 세력들이 어디쯤 있는가를 잘 살펴보

아야 하지 않겠는가. 또 난관에 봉착했을 때(표류시) 이를 극복하기 위한(살아 돌아오려는) 끈질긴 노력이 우리 제주민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등등이다.

넷째, 제주에서의 반란(叛亂)과 민요(民擾)에 대한 글이다[표 5]. 1959년부터 <제주신문>에 <삼별초(三別抄) 항쟁>, <목호(牧胡) 토벌>, <성교란(聖敎亂)>, <철종(哲宗) 때 농민봉기> 등 네 주제를 총 55회 연재하고 있다. 또 <양제해난(梁濟海亂)>, <심래복(沈來復) 모역사건>등 4편의 논문을 《제주도》에 투고했다. 김태능 선생은 고려 원종 14년(1273) 삼별초가 여원연합군에 진압당한 후 제주가 원(元)으로부터 받은 영향을 세밀히 탐구하고 있다. 외세의 영향 하에 제주가 어떻게 변천해가고 제주민이 어떤 고통 하에 놓이게 되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이재수(李在守)의 난’이라고 불리는 <성교란>에 대한 심층적 분석으로 이어졌다. 난의 원인과 전개과정 및 그 처리 과정을 세밀히 살펴면서 봉기 지도부였던 삼장두(三狀頭) 즉 이재수·오대현(吳大鉉)·강우백(姜遇伯)의 공술(供述)까지 소개하며 제주민의 입장에서 민폐를 타파하기 위한 의거(義舉)로 규정한다.

[표 5] 제주의 반란(叛亂)과 민요(民擾)

순번	발표일	발표지	논문명
1	1959. 05. 12	제주신보 (연재 9회)	탐라(耽羅)와 삼별초(三別抄)
2	1959. 06. 13	제주신보 (연재 7회)	삼별초난(三別抄亂)이 제주도(濟州島)에 ...
3	1959. 07. 18	제주신보 (연재 12회)	... 최영장군(崔瑩將軍)의 목호토벌(牧胡討伐)
4	1962. 10. 05	제주신문 (연재 22회)	성교난(聖敎亂)
5	1964. 06. 06	제주도 14호	제주(濟州)의 우마적(牛馬賊) 소고(小考)
6	1964. 11. 26	제주신문 (연재 4회)	... 삼장두(三狀頭)의 공술내용(供述內容)
7	1966. 10. 21	제주도 27호	제주민(濟州民)의 유망(流亡)과 출륙금지(出陸禁止)
8	1968. 07. 01	제주도 34호	양제해난(梁濟海亂)과 제주민(濟州民)의 ...
9	1972. 05. 12	제주도 54호	심래복일당(沈來復一黨)의 모역사건(謀逆事件)
10	1972. 06. 22	제주신문 (1회)	철종시대(哲宗時代)의 제주농민폭동(濟州農民暴動)

다섯째, 제주 지역과 지명 탐구에 대한 글이다[표 6]. 김태능 선생의 고향은 가파도이다. 따라서 선생이 <제주신보>에 첫 번째로 발표했던 글도 <남제주군종횡기>이다. 이 글은 대정현(大靜縣)과 정의현(旌義縣) 등 산남(山南) 지방을 두루 돌아보며, 그 역사적 연원들을 밝히고 경승과 지역적 특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서귀포(西歸浦), 남원(南元), 성산포(城山浦), 중문(中文), 대정(大靜), 가파도와 마라도(馬羅島) 및 대정읍성(大靜邑城)과 정의읍성(旌義邑城) 등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과연 예전에 어떤 역사적 연원을 갖고 있는지를 알리고 있다. 또 그 지역의 하천과 오름 및 주요 경승, 거주민들의 경제 활동 등을 상세히 전한다. 이 밖에 제

주 지역 탐구에 대한 선생의 논문은 이처럼 산남 지역에 대한 주제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제주신문>을 비롯한 언론기관에 투고했던 「파랑도」, 「모슬포」, 「송악산」, 「범섬」, 「가파도와 마라도」 등에 대한 글이 그 예(例)가 될 것이다.

또 ‘탐라(耽羅)’와 ‘주호인(州胡人)’ 등 제주 관련 호칭에 대한 선생의 탐구는 다양한 문헌을 인용하면서 심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예컨대 오늘날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선주민(先住民)에 대해 삼성인(三姓人)을 제주도의 시조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하고 있다. 선생은 《후한서(後漢書)》, 《삼국지(三國志)》, 《통전(通典)》 등 중국 문헌에서 주호인의 호칭을 찾아내, 이를 일본 도서지방에 살았던 아이누계에 속하는 ‘고루보꾸 인(人)’이라 주장하고 있다. 당시 최남선(崔南善)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일부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 후 제주도 학계에서는 제주민을 북방계(北方系)로 볼 것인지, 남방계(南方系)로 볼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물론 오늘날은 제주도 각지에서 선사(先史) 유적지까지 발굴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민의 연원에 대한 결론은 앞으로도 진행형이며, 다음과 같은 물음에 대한 해답들이 밝혀진 이후에 가능하리라고 본다. 즉 신화적(神話的) 관점과 고고학적(考古學的) 관점의 상호 교류, 제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는 언제인지, 또는 제주민 구성에 큰 영향을 끼쳤던 고대(古代) 이주민(移住民)의 도래로는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등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성과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표 6] 제주 지역과 지명 탐구

순번	발표일	발표지	논문명
1	1959. 03. 09	제주신보 (연재 7회)	남제주군종횡기(南濟州郡縱橫記)
2	1959. 10. 20	제주신보 (연재 3회)	전설(傳說)의 섬 과랑도(島)에 대한 이견(異見)
3	1959. 11. 07	제주신보 (연재 3회)	... 모슬포지방(慕瑟浦地方)의 멸치 어업(漁業)
4	1964. 04. 06	제주도 13호	탐라(耽羅)의 호칭(呼稱)에 대한 사고(私考)
5	1964. 04. 28	제주신문 (연재 6회)	고구마 전래(傳來)와 주변(周邊)
6	1964. 07. 21	제주신문 (연재 2회)	표식적(標識的) 화산(火山)인 송악산(松岳山)
7	1964. 07. 25	제주도 15호	제주도내(濟州島內) 제성(諸城)의 유래(由來)
8	1964. 08. 15	제주신문 (연재 2회)	주호인(州胡人)에 대한 고찰(考察)
9	1964. 09. 15	제주신문 (연재 2회)	한라산(漢拏山) 갯대의 결실고사(結實枯死) ...
10	1965. 04. 02	제주신문 (연재 8회)	고전장(古戰場) 범섬 등반기
11	1967. 11. 23	제주도 31호	원순제(元順帝)의 피난궁전적(避難宮殿跡)
12	1971. 08. 12	제남신문 (1회)	가과도(加波島)와 마라도(馬羅島)의 유래(由來) ...
13	미발표	.	제주(濟州) 고씨(高氏) 연구(研究)

여섯째, 제주 역사 일반 및 사료 해석에 대한 글이다[표 7]. 김태능 선생은 일제강점기와 분단이라는 불행한 20세기 한반도 정세 하에서 왜곡되고 혼란했던 제주사회를 직시하고 있었다. 정치적 혼란 외에도 암울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처한 제주를 객지에서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미래도 없이 어둠 속을 헤매는 고향 제주는 그 어려웠던 과거를 극복하며 면면히 이어온 역사가 있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개척할 용기와 의지를 다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비록 자신은 외롭게 도서관에 처박혀 사료(史料)와 씨름 할지라도 그 성과물이 제주민 모두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다줄 것이라 확신했다. 보다 밝고 맑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 최소한 역사학만큼은 당신 손으로 정리하여 일조를 기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제주인의 손에 의해 완성된 「제주사」 출간을 목표로 임했다.

[표 7] 제주 역사 일반과 사료 해석

순번	발표일	발표지	논문명
1	1959. 12. 04	제주신보 (연재 73회)	탐라향토사초고(耽羅鄉土史草稿)
2	1964. 08. 07	제주신문 (연재 6회)	제주도사(濟州島史)와 그 문제점(問題點)
3	1964. 08. 25	제주신문 (1회)	제주도사(濟州島史)의 문제점(問題點)
4	1964. 12. 13	제주신문 (연재 7회)	이건(李健) 저(著)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
5	1969. 11. 10	제주연감 (창간호)	제주도약사(濟州島略史)
6	1970. 03. 27	제주신문 (연재 20회)	최부(崔溥)의 표해록(漂海錄)
7	1970. 06. 05	제주신문 (연재 22회)	최부(崔溥)의 표해록(漂海錄) <속편(續篇)>
8	1971. 08. 30	교육제주 16호	제주도교육(濟州道教育)의 금석(今昔)

1964년 8월 <제주신문>에 총 7회 연재했던 <제주도사(濟州島史)의 문제점(問題點)>에서 이러한 선생의 의지를 읽을 수가 있다. 제주사의 시대구분 문제, 제주사 연구의 선행조건, 연구의 방법론과 문헌의 범주, 제주 관련 사료의 공개 원칙과 번역, 학회의 설립과 향후 발전 방안, 제주사의 보편성과 특수성 문제 등을 제시

하여 후학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충고했다.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도 1959년 12월 4일부터 <제주신보>에 73회 연재라는 방대한 집필활동을 통해 <탐라향토사초고(耽羅鄉土史草稿)>를 내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김태능 선생은 결국 1969년 11월 《제주연감》 창간호에 시대를 망라한 「통사(通史)」로서의 제주사를 <제주도약사(濟州島略史)>라는 제목으로 낼 수 있었다. 선민(先民)시대의 제주, 상고(上古)시대의 제주, 고려(高麗)시대의 제주, 이조(李朝)시대의 제주, 현대의 제주 등 총 5장(章)으로 구성된 제주사가 완성된 것이다.

이밖에도 인조(仁祖) 6년(1628) 6월부터 동왕(同王) 13년(1635)까지 8년간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했던 이건(李健)의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와 제주에 추쇄경차관(推刷敬差官)으로 들어왔다 성종(成宗) 19년(1488) 윤1월 제주를 떠나면서 중국으로 표류되어 6월에 서울로 돌아왔던 최부(崔溥)의 《표해록(漂海錄)》를 번역하기도 했다. 특히 이건의 《제주풍토기》는 그 이전에 서술된 충암(冲庵) 김정(金淨)의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 백호(白湖) 임제(林梯)의 《남명소승(南溟小乘)》,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의 《남사록(南槎錄)》과 더불어 16~17세기 제주의 풍속과 경승을 전하는 귀중한 사료인데 이를 최초로 한글 번역하여 소개함으로써 조선시대 제주 연구에 비옥한 토양을 제공했다.

4. 김태능 선생에 대한 재조명

김태능 선생은 1972년 12월 31일 급성 췌장염으로 서울에서 돌아가셨다. 그 뒤 선생을 애도하는 소리가 각계에서 일기 시작했다. 1973년 1월 19일 밤에는 제주시내 산호(珊瑚)다방에서 선생을 추모하는 모임이 있었다. 당시 제주의 문화계인사 50여 명이 모여 선생의 서거를 아쉬워하며 슬퍼하던 자리였다. 제주도사(濟州島史) 연구에 천착하면서 일생을 바쳤던 선생의 생전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갔다. 그 자리에 있었던 일화 하나가 2001년 9월 이농(怡農) 김봉옥(金奉玉) 선생이 별세했을 때 홍순만이 <한라일보(漢拏日報)>에 투고한 추도사(2001. 9. 26)에 소개되어 다음과 같이 전한다.

“이농(怡農) 선생님. 선생님과 조석으로 만난 지가 이제 30년이 됩니다. 춘송(春松) 김태능(金泰能) 선생님의 영면(永眠)이 우리들 만남의 길을 터놓았다고 생각합니다. 1972년 그믐, 춘송 선생님의 갑작스런 서거는 우리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추모의 밤이 열리던 날 김종업(金宗業) 교수님과 선생님 그리고 나는 ‘이제 우리가 제주사에 손 부쳐야 한다.’고 다짐했던 일이 새삼 떠오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제주사(濟州史) 작업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홍순만은 1973년 3월에 선생이 수많은 제주 관련 역사를 투고했던 《제주도》 58호에 <평생을 도사(島史) 연구에 바친 고 춘송 김태능 선생>이란 제하의 글을 남겼다. 제주도사 정립에 기초가 될 지주를 세워 놓고 아쉽게 떠난 선생을 추모한 것이었다. 나아가 선생이 여러 신문과 기관지에 투고했던 60편의 논문 목록을 그 일

자까지 세밀히 밝혀 정리해 놓았다.

한편 1982년에는 선생 10주기(周忌)를 두 달 앞둔 11월 1일 홍순만과 김태능 선생의 장남 김철에 의해 《제주도사논고》가 출간되었다. 홍순만은 그 <서문(序文)>에서 1980년부터 김태능 선생의 논문 60여 편 중 주로 <제주신문>에 실렸던 논문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고 했다. 또 선생께서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어서야 그 유고집을 내게 된 회한(悔恨)과 선생의 유고 전편(全篇)을 집대성하지 못한 아쉬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김태능 선생의 서거로 인해 본인이 향토사학자로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내면도 밝히고, 이제야 고인(故人)에 대한 정신적 책무를 최소한 이루었다는 감회를 피력하고 있다. 홍순만의 다음 글에서 김태능 선생과 그 당시 제주도 역사를 연구하는 후학들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선생의 별세는 갑자기 제주도사(濟州島史) 정립의 필요성을 고조시켰고, 불모지나 다름없던 이 방면에 착수해 들어가는 몇몇 사람의 고행자(苦行者)들을 탄생시켜 놓았다. 다시 말하면 선생은 제주도사 정립작업에 불을 붙인 점화수(點火手)가 되었고, 그 주체가 될 만한 역군들을 부추겨 일으킨 촉진제(促進劑)가 되었고, 또 그들에게 그 접근을 가능하게 해 준 안내자(案内者)가 되기도 했다. ... 생전에 제주도사 연구에 별다른 협조자 없이 고독하고 불우했던 선생이야말로 이 세상을 하직 하고나서 그 진가와 함께 이 고장에 크나큰 보람을 안겨준 위대한 순교자(殉教者)였다고 할 것이다.”

장남 김철은 <발문(跋文)>에 자식들이 모두 이공계 및 의대 등으로 전공을 정했기 때문에 평소 부친이 몰두하고 계신 제주사에

대해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뒤늦은 후회를 담았다. 더욱이 병원에서 투병하시면서도 “제주도사(濟州島史)를 정리 못하고 가는구나.”하고 늘 말씀하시던 부친을 안타까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내 원고! 내 원고!”하시며 링거 꽂은 팔을 움직이려고 하시던 애처로운 모습은 10년이 지나 책을 펴낸 지금까지도 눈에 선하다고 했다. 그리하여 자식으로서 생전에 다하지 못한 속죄의 뜻으로 부친의 논문을 모아 책으로 펴냈다고 술회하고 있다.

1984년에 간행된 강용삼이경수 공편(共編)의 대하실록 《제주백년》에도 <불멸의 업적, 사학자 김태능>이란 제하의 기록이 남아 있다. 여기서는 앞서 발표된 홍순만의 글과 《제주도사논고》의 서문·발문 등을 참고하며 제주 역사의 선구자로 김태능 선생을 소개했다. 특히 1982년 12월 《제주도사논고》의 출간기념회가 제주시 서해호텔에서 열렸는데, 김태능 선생과 동시대 서울 유학생이었으며, 제주도 관덕로에 광신의원(仁術)을 세웠던 의학박사 고(故) 홍순억(洪淳億)의 축사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 70 평생을 살아온 내가 자녀의 빛나는 업적을 대하니 내 생애에 무엇을 했는지 심히 부끄럽네. 내가 진실로 의사로서 인술을 베풀었는지 오늘이 좋은 반성의 계기가 되었어 ...”

2000년 3월에도 탐라문화보존회가 창간한 《탐라순력》에 역시 <나를 제주역사에 매달리게 한 김태능 선생>이란 제하의 홍순만의 글이 보인다. 1959년부터 1972년까지 <제주신문>과 《제주도》에 투고했던 김태능 선생의 원고지에 관한 일화 한 대목이 척박했던 당시를 잘 웅변하는 것 같아 소개한다.

“이 작업 중 선생은 매우 외롭고 괴로운 고투를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매일 도서관에 출근하면서부터 가족들로부터는 외면당하고 주위에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는 고독한 작업이었다. 점심은 언제나 자장면 한 그릇으로 때웠다. 나는 선생이 보내오는 원고를 받으면서 서글퍼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불과 몇 십장의 원고 몽치가 짹짹 원고지에 쓰여질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원고지 하나 한꺼번에 마련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조달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조사활동비 한번 마련하지 못하고 겨우 명색뿐인 소정의 원고료만 보내 드리는 것이 한없이 안쓰러웠다.”

김태능 선생은 소정의 원고료만 받고 매일 도서관에 출근하여 자장면 한 그릇으로 점심을 때우며 근 15년간 제주의 역사를 그것도 종류가 다른 원고지에 써 내려갔던 것이다. 무엇이 선생으로 하여금 오륙십대 인생 최후의 정열을 이처럼 제주역사에 쏟아 붓게 만든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제주민(濟州民)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 때문이었다. 이미 서울의 휘문고보 재학시절부터 선생은 제주역사 연구에 대한 의지를 굳게 다지고 있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한국전쟁 등을 거치며 선생은 정치·사회적 혼란 속에서 여느 평범한 사람과 같이 가정을 꾸리고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가정(家長)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뛰어들기도 하였지만 실패하고, 뒤늦게 사법 공부에 매달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식 교육과 생계는 부인의 하숙생활로 근근이 이어가게 되자, 선생의 나이는 이미 50대를 넘어서게 되었다.

결국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정체성(正體性)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이를 통해 선생께서 내면 깊숙이 간직해오던 제주민(濟州民)에 대한 사랑을 표출시켰던 것이 아니었는가 한다. 선생이 가졌던 제

주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제주도사(濟州島史)와 그 문제점>(1964. 8. 7~/ <제주신문>6회 연재)의 결말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주민은 본시 온순하고 순박하여 양(羊)과 같은 사람들이나 수백 년 동안 길러진 유배인(流配人)들의 정신적 영향과 비판적 지식에 의하여 정(正)과 사(邪)를 판단하고 정의(正義)를 위하여는 불의와 항쟁하여야 한다는 것을 배워 왔다. 따라서 제주거민(濟州居民)의 혈관 속에는 애국에 불타는 정신과 정의로써 싸워오던 유배조상(流配祖上)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검하고 정직하고 용감한 개척민(開拓民)의 정신은 교만하고 아부하고 퇴폐적인 귀족적(貴族的) 심성과는 불상용(不相容)의 정신으로 자리 잡는다.”

김태능 선생이 강조하고 있는 제주민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제주민의 특성을 담고 있는 바이다. 즉 온순하고 순박한 사람들, 근검하고 정직한 사람들, 그리하여 그들은 불의와 항쟁하는 정의감, 교만하지 않는 겸손함, 시대와 권세에 아부하지 않는 독립심, 안일함과 위엄을 추구하는 귀족적 속성과는 거리가 먼 개척정신을 지닌 사람들이 바로 제주민임을 밝히고 있다. 면면히 이어져 온 이와 같은 제주민의 정신을 김태능 선생은 더 이상 숨겨둘 수만은 없었다. 제주 역사를 통해서 이를 밝혀내고 널리 제주민에게 알리고자 매진했던 것이다. 객지에서 타향살이 하며 제주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더 이상 내면에 감추어둘 수 없었다. 그리고 선생의 그런 마음은 당신만 잘난 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제주민 모두에게도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밖으로 이끌어내고 싶었다.

이제 김태능 선생이 제주사(濟州史) 연구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를 소개한다. 지금으로부터 47년 전인 1964년 7월 18일 「제주도 문제 심포지움」에서 발표하고, 동년 8월 7일 <제주신문>에 게재했던 글을 간추렸다. 약 50년 전에 선생이 제기했던 문제점은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필자입장에서 그 선견지명과 정확한 관점 표명에 다시 한 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오늘날 제주 역사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김태능 선생의 문제제기가 과연 옳았는가? 또 그랬다면 어느 정도 그 성과를 축적시켰는가? 등 반성의 기회로 삼기 위해 소개한다.

1) 제주사 연구의 4단계 시대구분 설정.

- ① 선민(先民)사회 및 삼성(三姓)시조의 탄생설화
- ② 삼성씨족 중심의 독자적인 탐라국(耽羅國) 수립과 국가적 생활양상
- ③ 원(元)의 목양(牧養)시대
- ④ 조선(朝鮮)시대의 제주

2) 제주사 연구의 방법론 및 연구 관련 문헌의 범주 제시.

- ① 방법론 : 각종 고전과 도서의 제주 관련 사료 수집, 제주도 내에 산재한 유적·유물의 보호·유지, 전설과 민속자료 등의 기록보존.
- ② 문헌 범주 : 고문헌으로는 인문지리와 역사를 겸한 《탐라지》(이원진)와 기년식(紀年式) 사료집인 《탐라기년》(김석익), 정사로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및 《동국여지승람》 《고려사절요》 《동국통감》 《해동역사》 《택리지》 《연려실기술》, 중국의 《이십사사(二十四史)》와 원(元) 고

려기사, 목사(牧使)·어사(御史)·유배인(流配人) 등의 문집,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들의 연구발표문, 서양 문헌 중 제주에 관한 부분.

3) 제주사 사료의 공개 원칙.

이상 사서(史書), 전설(傳說), 민속(民俗)에서 수집된 사료와 자료는 지체 없이 공개 발표하여 모든 연구자들의 비판과 참고에 제공.

4) 제주사 사료의 한글 번역과 출판.

《탐라지》나 《탐라기년》 및 기타 제주에 관한 고문헌들은 이를 알기 쉽게 국한문으로 번역할 뿐 아니라 원문도 게재하여 출판.

5) 제주사 연구 관련 학회 설립과 지원.

제주향토학에 관심을 가진 도내 출신 학자들에 의하여 연구모임 등을 만들어 이상 과업 추진에 중심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구비와 출판비용 등 경제적 지원이 충분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대학교의 특색으로 향토과(鄉土科)를 두어 연구과목의 일종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혹은 제주도(濟州道)에 특수향토학(特殊鄉土學) 연구기관 설치를 중용하여 제주대학교에 위촉케 하는 방안 등도 강구.

6) 제주사 연구의 보편성과 특수성 문제.

제주사 연구는 하나의 지방사(地方史)임을 잊지 말고 역대 왕조의 흥망성쇠와 사회변천상도 잘 반영시켜야 하고, 또 다시 특수한 환경 하에서 발전되어 온 이채적(異彩的)인 향토색의 역사로 꾸며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사가 비록 일개 향토사라 하더라도 그것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동시에 배타적인 존재일 수는 더욱 없다. 이런 이유로 제주사

의 연구는 국사학(國史學)의 일 분야도 되므로 이 작은 지역의 향토사라 하더라도 그것은 국사 연구와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세계문화 향상에도 공헌되리라고 생각된다.

김태능 선생은 일제강점기 및 한국전쟁과 분단이라는 혼란 속에서 그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하던 ‘제주사’ 연구의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고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소상히 후학들에 제시하고 있었다. 역사를 전공하지 아니했던 선생의 소견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현실을 정확히 꿰뚫고 향후 제주사가 어디로 가야할 지 명확한 로드맵(Road map)을 제공해주고 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선생은 다음과 같이 제주사 연구자들이 지켜야 할 기본자세까지 주문하고 있다.

“사계(斯界)의 학도(學徒)와 동인(同人)은 겸허한 태도와 향토애(鄉土愛)의 일념과 주어진 사명감으로써 정진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의 힘으로 향토사(鄉土史) 완성의 서광이 비쳐올 것으로 믿어 마지않는 바이다.”

제주사는 여느 다른 사람이 아닌 제주인의 손에 의해 스스로의 힘으로 완성 시켜야 한다는 대전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주사 연구자가 지녀야 할 덕목으로 겸손함, 향토애, 사명감을 꼽고 있다. 오늘날 독보적인 위상 확립과 자기중심적 생활 태도 및 물질 만능주의에 휩쓸리는 연구 풍토를 김태능 선생은 이미 예견했던 것일까? 약 50년 전 일갈(一喝)하듯 후학들에게 충언을 하는 선생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제주학 연구의 선구자로서 후학들에게 충고하노니, 철저한 희

생정신을 바탕으로 두고 초심(初心)을 유지하며 제주민과 함께 하라!”

5. 나오며

올해는 선생 서거 39주기(周忌)이다. 내년 2012년 12월 31일이면 선생 서거 40주년이 된다. 선생은 해방 후 이 땅에 제주사 연구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 토양을 다졌고 씨를 뿌린 인물이다. 선생 때문에 본격적인 제주사 연구가 이루어졌고, 선생으로 인해 김종업·김봉옥·홍순만 등 제주사 연구가들이 태어났다. 1981년에는 제주대에 사학과가 창립되어 오늘날까지 수많은 제주사학도들이 배출되고 있다. 선생은 제주에서 태어났지만, 그 인생의 대부분은 타향살이였다. 타향에서 보내왔던 그의 외롭고 치열했던 제주사랑의 흔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먼 훗날 제주의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지금의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도 선생이 걸었던 길을 가야할 것이다. 김태능 선생의 선견지명과 혜안(慧眼)이 지금 우리들에게서 다시 발현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선생의 논문 목록을 부록으로 제시한다. 이 표는 1982년 간행된 『제주도사논고』 말미의 ‘김태능 선생 논문 목록’을 다소 수정한 것이다. 제주신보(제주신문 포함), 제주도지, 기타의 세 부류로 나누어 소개된 도표를 필자가 연대순에 따라 일괄 도표화하였다. 15년간 한숨 돌릴 틈 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졌던 선생의 향학열을 음미하고자 한 때문이다. 오늘날 제주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일상생활의 자기 단속이 얼마나 철저해야 하는지 귀감이 될 표이다.

○ 부록 : 김태능(金泰能) 선생 논문 목록 1

순번	발표일	발표지	논문명
1	1959. 03. 09	제주신보 (연재 7회)	남제주군종횡기(南濟州郡縱橫記)
2	1959. 05. 12	제주신보 (연재 9회)	탐라(耽羅)와 삼별초(三別抄)
3	1959. 06. 13	제주신보 (연재 7회)	삼별초난(三別抄亂)이 제주도(濟州島)에 미친 영향(影響)
4	1959. 07. 18	제주신보 (연재 12회)	몽고(蒙古)의 탐라지배(耽羅支配)와 최영장군(崔瑩將軍)의 목호토벌(牧胡討伐)
5	1959. 10. 20	제주신보 (연재 3회)	전설(傳說)의 섬 과랑도(島)에 대한 이견(異見)
6	1959. 11. 07	제주신보 (연재 3회)	전등집어(電燈集漁)에 의한 모슬포지방(慕瑟浦地方)의 멸치 어업(漁業)
7	1959. 12. 04	제주신보 (연재 73회)	탐라향토사초고(耽羅鄉土史草稿)
8	1962. 10. 05	제주신문 (연재 22회)	성교난(聖敎亂)
9	1962. 12. 14	제주신문 (연재 2회)	제주도(濟州島)와 외국(外國)과의 관계(關係)
10	1964. 01. 01	제주신문 (연재 52회)	고대(古代) 제주(濟州)의 학문(學問)과 문화발전(文化發展)에 기여한 제주의 유적인(流謫人)들
11	1964. 04. 06	제주도 13호	탐라(耽羅)의 호칭(呼稱)에 대한 사고(私考)
12	1964. 04. 28	제주신문 (연재 6회)	고구마 전래(傳來)와 주변(周邊)
13	1964. 06. 06	제주도 14호	제주(濟州)의 우마적(牛馬賊) 소고(小考)
14	1964. 06. 28	제주신문 (연재 7회)	명(明)의 흥기(興起)와 제주(濟州)와의 관계(關係)
15	1964. 07. 21	제주신문 (연재 2회)	표식적(標識的) 화산(火山)인 송악산(松岳山)

순번	발표일	발표지	논문명
16	1964. 07. 25	제주도 15호	제주도내(濟州島內) 제성(諸城)의 유래(由來)
17	1964. 08. 07	제주신문 (연재 6회)	제주도사(濟州島史)와 그 문제점(問題點)
18	1964. 08. 15	제주신문 (연재 2회)	주호인(州胡人)에 대한 고찰(考察)
19	1964. 08. 25	제주신문 (1회)	제주도사(濟州島史)의 문제점(問題點)
20	1964. 09. 05	제주도 16호	김만덕(金萬德)의 기민구제공적(飢民救濟功績)
21	1964. 09. 15	제주신문 (연재 2회)	한라산(漢拏山) 갯대의 결실고사(結實枯死)의 유감(有感)
22	1964. 10. 29	제주신문 (연재 4회)	제주기민(濟州飢民)과 동고(同苦)한 목사(牧使) 노경(盧鏡)
23	1964. 11. 26	제주신문 (연재 4회)	성교난사건(聖敎亂事件)과 삼장두(三狀頭) 공술내용(供述內容)
24	1964. 12. 13	제주신문 (연재 7회)	이건(李健) 저(著)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
25	1964. 12. 19	제주도 18호	탐라(耽羅)와 원(元)의 목양시대(牧養時代)
26	1965. 04. 02	제주신문 (연재 8회)	고전장(古戰場) 범섬 등반기
27	1965. 05. 25	제주도 19호	탐라(耽羅)와 원(元)의 목양시대(牧養時代) <속편(續篇)>
28	1965. 09. 18	제주도 21호	태종(太宗)과 세종시대(世宗時代)의 제주(濟州)
29	1966. 10. 21	제주도 27호	제주민(濟州民)의 유망(流亡)과 출륙금지(出陸禁止)
30	1966. 12. 30	제주시 2호	이광빈(李光彬)의 장기도표류(長崎島漂流)와 그 기풍(氣風)

순번	발표일	발표지	논문명
31	1967. 09. 05	제주도 30호	제주토속(濟州土俗)과 영천(永川) 이목사(李牧使)의 치적(治績)
32	1967. 11. 23	제주도 31호	원순제(元順帝)의 피난궁전적(避難宮殿跡)
33	1968. 02. 29	제주시 6호	탐라국(耽羅國)의 독자적문화(獨自的文化)와 당(唐)과의 관계(關係)
34	1968. 04. 30	제주도 33호	류구(琉球)와 제주(濟州)와의 관계(關係)
35	1968. 07. 01	제주도 34호	양제해난(梁濟海亂)과 제주민(濟州民)의 자주기도(自主企圖)
36	1968. 09. 30	제주도 35호	일본어민(日本漁民)의 제주침투(濟州侵透)와 그 영향(影響)
37	1968. 11. 25	제주도 36호	천미천포(川尾川浦)의 왜란(倭亂)과 을묘왜변(乙卯倭變)
38	1968. 12. 30	제주도 37호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의 대정적거(大靜謫居)와 그 영향
39	1969. 춘계호	탐라(耽羅)	제주유배인(濟州流配人) 신성익(申聖翊)과 용마(龍馬) 이야기
40	1969. 07. 01	남제주 8호	정의현(旌義縣)에 반청한상(反淸漢商)의 표착(漂着)과 그들에 대한 아국(我國)의 조치(措置)
41	1969. 07. 31	제주도 39호	화란선박(和蘭船舶)의 대정표착(大淸漂着)
42	1969. 09. 30	제주도 40호	목사(牧使) 김정(金攸)의 치적(治績)과 삼천서당(三泉書堂)
43	1969. 11. 10	제주연감(창간호)	제주도약사(濟州島略史)
44	1969. 12. 31	제주도 42호	신명규(申命圭) 이대(二代)의 대정현(大淸縣) 적거(謫居)
45	1970. 03. 12	제주도 43호	경술년(庚戌年)에 얽힌 제주사화(濟州史話)
46	1970. 03. 27	제주신문(연재 20회)	최부(崔溥)의 표해록(漂海錄)

순번	발표일	발표지	논문명
47	1970. 06. 05	제주신문(연재 22회)	최부(崔溥)의 표해록(漂海錄)<속편(續篇)>
48	1970. 08. 01	제주도 45호	충암(冲庵) 김정(金淨)
49	1970. 08. 01	제주도 45호	동계(洞溪) 정운(鄭濬)
50	1970. 08. 27	제주신문(연재 13회)	김비의(金非衣) 일행(一行)의 류구표류(琉球漂流)와 견문(見聞)
51	1970. 11. 10	제주도 46호	화란국표류인(和蘭國漂流人) 벨트브레의 행적(行績)
52	1970. 11. 26	제주신문(연재 9회)	반청한인(反淸漢人)들의 제주표착(濟州漂着)
53	1971. 01. 07	제주신문(연재 4회)	해상사고(海上事故)로 본 청국(淸國)과 제주(濟州)
54	1971. 08. 12	제남신문(濟南新聞)(1회)	가파도(加波島)와 마라도(馬羅島)의 유래(由來)와 전설초(傳說抄)
55	1971. 08. 30	교육제주 16호	제주도교육(濟州道教育)의 금석(今昔)
56	1971. 10. 12	제주신문(연재 14회)	김만덕(金萬德) 생애(生涯)와 행적(行績)
57	1971. 10	김만덕 기념사업회	김만덕전(金萬德傳)
58	1971. 12. 30	제주도 52호	노씨부인(盧氏夫人)과 까치 가마귀와 안덕계곡(安德溪谷)의 임관주(任觀周) 시(詩)
59	1972. 03. 15	제주신문(1회)	탐라(耽羅)의 한문(漢文) 문화(文化)
60	1972. 05. 10	제주신문(연재 5회)	삼포왜노(三浦倭奴)의 횡행(橫行)과 목사(牧使) 장림(張琳)의 제주방어시설(濟州防禦施設)
61	1972. 05. 12	제주도 54호	심래복일당(沈來復一黨)의 모역사건(謀逆事件)
62	1972. 06. 22	제주신문(1회)	철종시대(哲宗時代)의 제주농민폭동(濟州農民暴動)
63	미발표	.	제주(濟州) 고씨(高氏) 연구(研究)

“天賦的 人類學者” 泉 靖一의 生涯와 學問(中間報告)

전 경 수
(서울대 교수, 인류학)

본 “中間報告”는 필자가 진행하고 있는 '日本人類學史'의 일부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소개하는 정도입니다. 구성은 1. 사망직전까지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履歷書>, 2. 필자가 수집한 <論文/著書 目錄>(未完成), 3. <出處가 정확하지 않은 文件들>, 4. <評傳類>, 5. <國立民族學博物館 圖書室에 보관되어 있는 泉 靖一 자료>, 그리고 6. 즐겨 불렀다고 생각되는 노래 한 곡에 대한 개괄적인 안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泉 靖一(1915. 6. 3. - 1970. 11. 15.)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자가 작성해서 이미 발표한 논문 두 종류를 첨부합니다.

지금까지 자료수집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鈴木淑子 女史, 伊藤亞人 先生, 泉 拓郎 先生, 朝倉敏夫 先生, 中生勝美 先生께 심심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작성될 논문과 저서를 보완할 수 있는 각종 문서 자료나 사진 자료의 협조가 요청됩니다. 泉 靖一과 관련된 어떤 종류의 자료들이라도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0년 9월 9일 中國 云南省 昆明에서).

1. <履歷書>

本籍: 北海道空知支廳夕張郡栗山町角田, 1915. 6. 3. 生

- 1927. 9. 1. 京城府公立東大門尋常小學校6學年 轉校
- 1928. 3. 31. 京城府公立東大 卒業
- 1928. 4. 1. 京城公立中學校 入學
- 1933. 3. 31. 京城公立中學校 卒業
- 1933. 4. 1. 京城帝國大學豫科 入學
- 1935. 3. 31. 京城帝國大學 修了
- 1935. 4. 1.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文科 入學
- 1936. 4. 1. 京城帝國大學 哲學科 轉科
- 1938. 3. 31. 京城帝國大學 (社會學專攻) 卒業
- 1938. 4. 1. 任 京城帝國大學助手. 給月俸六十圓. 法文學部 勤務命.
- 1938. 12. 10. 依願免本官(入營). 現役兵入營
- 1939. 3. 1. 幹部候補生命
- 1940. 11. 1. 任陸軍少尉. 豫備役編入即日應召
- 1941. 12. 10. 應召解除
- 1941. 12. 20. 任 京城帝國大學助手兼書記. 給六級俸. 理工學部 勤務命
- 1942. 7. 1. 免兼官. 兼任京城帝國大學學生主事補
- 1942. 12. 1. 免本官專任京城帝國大學學生主事補. 給六級俸
- 1942. 12. 18. ニューギニア方面出張(自1942.12.18.-至 1943.6.17, 朝鮮總督府)
- ニューギニア民政府 事務囑託(海軍省). 部内限 奏任官待遇

1943. 1. 13. 横浜發
1943. 6. 18. ニューギニア方面出張延期(自1943.6.18.-至
1943.12.17, 朝鮮總督府)
1943. 6. 30. 給五級俸(京城帝國大學)
1943. 8. 13. 吳着
1943. 9. 4. 横浜着
1943. 9. 18. 釜山上陸
1943. 12. 6. 任 京城帝國大學學生主事.
絛高等官七等(內閣). 十一級俸下賜(朝鮮總督府)
1944. 2. 1. 絛從七位(宮內省)
1944. 4. 1. 京城帝國大學附屬理科教員養成所講師(京城帝國大學)
1944. 12. 31. 十級俸下賜(朝鮮總督府)
1945. 4. 1. 京城帝國大學大陸資源科學研究所囑託
1945. 8. 27. 任 京城帝國大學助教授. 絛高等官七等. 本俸八級俸下賜.
職務俸三百六十圓下賜. 法文學部勤務命.
1945. 12. 18. 引揚. 釜山-博多上陸
1946. 3. 31. 絛高等官六等(內閣)
1946. 5. 31. 昭和二十一年勅令第二八七號 自然退官(內閣)
1946. 6. 1. 財團法人在外同胞援護會參事命(在外同胞援護會)
1947. 10. 1. 救療部長命
1948. 9. 1. 明治大學 講師(明治大學)
1948. 12. 23. 教職員適格審査委員會 適格判定(確認第11,684號)
1949. 3. 31. 依願免 財團法人在外同胞援護會救療部長
1949. 4. 1. 明治大學助教授任 新制政治經濟學部勤務
1949. 6. 21. 中央公職適否審査委員會 適格判定(第134,146號)
1949. 6. 30. 經濟安定本部資源調查會專門委員(經濟安定本部)
1951. 4. 1. 明治大學教授任 舊制政治經濟學部勤務命(明治大學)
1951. 11. 21. 文部教官 任命. 東京大學助教授補(文部省). 十級
四号俸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근무
1952. 4. 1. 東京都立大學講師 任命. 月手當金 3900圓
(1952. 7. 31.까지)
1952. 4. 24. ユネスコ委員會(社會緊張特別委員會) 委員(日
本學術會議) 1954. 4. 23.까지
1952. 10. 1. 十級五號俸昇給(文部省)
1952. 10. 5. - 1953. 5. 8. 이탈리아, 스위스, 서독, 오스트리아,
프랑스, 브라질,
미국 출장(東京大學)
1953. 5. 11. 大學院生物系研究科人類學課程擔當 命(東京大學)
1954. 4. 1. 南山大學 講師. 時間當 380圓
東京都立大學大學院 講師. 月手當 2,440圓
(1956. 3. 31.까지)
東京大學講師(理學部) 併任. 月手當 1,100圓
(1957. 3. 31.까지)
1954. 7. 1. 東京藝術大學美術學部 講師. 時間當 手當 300
圓(1954. 10. 31.까지)
1954. 10. 27. 東京大學講師(教養學部) 併任. 月手當 1,100圓
(1955. 3. 31.까지)
1955. 4. 1. 教養學部 配置. 東京大學講師 併任. 月手當
1,100圓(1956. 3. 31.까지)
お茶の水女子大學講師(時間手當 360圓)(1956.
3. 31.까지).

1955. 9. 23. - 1956. 3. 26. 브라질 출장
 1956. 8. 13. - 1958. 2. 16. 아메리카합중국 출장(유학). 페루, 볼리비아, 브라질 삼개국 출장국 추가
 1958. 6. 7. - 1958. 10. 1. 멕시코, 페루, 칠레, 볼리비아, 브라질, 에쿠아돌 출장. 안데스지대학술조사.
 1960. 5. 20. - 1960. 10. 31. 미국,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에쿠아돌, 페루, 볼리비아, 칠레 출장. 동경대학 안데스지대학술조사
 1961. 3. 30. 外務事務官(移住局)併任(外務省)(1962. 3. 31.까지) 月手當 1,650圓
 1962. 4. 1. 大學院社會學研究科社會學課程授業擔當(東京大學) 宇都宮大學農學部 講師. 時間當 500圓 東北大學教育學部 講師. 時間當 590圓
 1963. 5. 1. - 10. 25. 미국, 멕시코, 콜롬비아, 에쿠아돌,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틴, 파라과이, 브라질, 포르투갈, 스페인, 이락, 이란
 1964. 7. 27. - 9. 27. 소련, 오스트리아, 독일, 스페인 출장
 1964. 11. 15. 東京大學教授 東洋文化研究所
 1965. 1. 6. 日伯文化協定 在東京混合委員會 日本側委員(外務大臣)
 1965. 11. 16. - 1966. 10. 12. 미국, 이란, 한국, 인도,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틴
 1966. 10. 16. 京都大學理學部 講師
 1967. 4. 1. 大學院社會學研究科 文化人類學課程主任
 1967. 10. 20. - 1968. 1. 21. 미국,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파나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

리비아, 칠레, 아르헨틴, 파라과이, 브라질, 타히티, 뉴기니, 인도네시아 研修旅行

1968. 4. 1. 大學院人類學連絡委員會委員長(文部大臣)
 1968. 6. 28. - 7. 12. 콜롬비아 출장
 1969. 12. 21. - 1970. 1. 12. 페루, 볼리비아, 칠레 출장
 1970. 4. 1. 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 所長, 東京大學評議員.
 1970. 11. 15. 死亡. 特別昇給 19號俸
 11. 26. 從四位紋. 勳三等 旭日中授章
 1971. 1. 23. 退職手當 金 5,894, 499圓 支給(受領遺族 妻 泉 貴美子)

2. <論文/著書 目錄>

1936. 5. “雪の漢拏山”, 山と溪谷 *** 찾아야함.
 1936. 11. 20. “冬の濟州島漢拏山: 京城隊報告”, 山岳 31: 191-200.
 1937. 1. “大興安嶺東南部オロチョン族踏査報告”, 民族學研究 3(1): 39-106.
 1938 “濟州島の離島牛島の地理竝風俗”, 旅と傳説
 1938. 7. 15. “積雪季漢拏山登山記: 前川智春君を失ふ”, 半島山風景, 竹中 要. 東京: 古今書院. pp. 199-254.
 1938. 7. “赫哲族踏査報告”, 民族學研究 4(3): 12-33. 赤松智城 共著.
 1940. 3. 1. “火田民の生活”, 觀光朝鮮 2(2): 26-31.

1942. 11.a “南鮮調査隊報告: 總說”, 京城帝國大學法學會論集 13(4): 567-573.
1942. 11.b “南鮮調査隊報告”, 京城帝國大學法學會論集 14(1): 103-109.
- 1944 西뉴-기니아의民族. 太平洋協會編. 東京: 日本評論社. 鈴木誠 共著.
- 1944 南方民族論. 京城: 社團法人東亞經濟懇談會朝鮮委員會.
1944. 10. 北方遊牧狩獵民族の人口(油印本). 京城帝國大學第三次蒙疆學術調査隊報告(第一號). pp. 43. ** 坂本和英·德永信三 共著
1949. 6. "사코椰子の生み出す文化: 뉴-기니아의植物民族學", 民族學研究 13(4): 36-49.
1950. 2. “西部ニューギニア原住民の社會組織”, 民族學研究 14(3): 19-28.
1950. 5. “ニューギニア南北文化横斷線”, 民族學研究 14(4): 48.
1950. 8. “犬と日月蝕”, 民族學研究 15(1): 79-80.
- 1950 “메라네시아社會の不安定性”, 人類科學(八學會年報第二輯). pp. 81-87.
1950. 4. 20. 社會學講義資料 I(或早 山村모노구라平). 東京: 敬文堂.
1950. 11. “社會學と民族學”, 社會學評論 3: 1-9.
1951. 6. 10. 社會學講義資料 II(或早文化變遷모노구라平). 東京: 敬文堂.
** 이 책의 附錄으로 松本大學醫學部 鈴木誠과 함께 조사했던 뉴기니아의 글이 있음. 제목은 “未開社會の政治集團”, Geelvink만 남부연안부족들.
”村落組織ニ於케루血緣結合토地緣結合”, 明治大學政經

論叢 19(1):

- “濟州島の村落組織”, 明治大學政經論叢 20(2): 이것은 <濟州島>에 재수록.
1951. 5. “豊崎町鰐浦 무리노構造”, 人文 1(1): 152-161.
1951. 8. “東京における濟州島人”, 民族學研究 16(1): 1-24.
** 祖父江孝男/岡 並木/徳山安信/大給近達 共著
1952. 3. “沙流アイヌの地緣集團におけるIWOR”, 民族學研究 16(3-4): 29-45.
1952. 12. 10 “日本社會ノ地域性”, 日本地理新大系 第2卷(社會·經濟), 佐藤 弘/渡邊 操編. 東京: 河出書房. pp. 37-76. 蒲生正男 共著
1953. 4. “東京小市民の異民族に對する態度”, 社會的緊張の研究, 日本文科學會 編. 東京: 有斐閣. pp. 423-444.
1954. 7. “故杉浦健一教授と人類學民族學; 追悼評傳”, 民族學研究 18(3); 72-78.
1954. 아마존: その風土と日本人. 東京: 古今書院. 齋藤廣志 共著
1957. 移民. 古今書院. ** 編.
1959. 8. “アマゾン河谷探險記の魔力”, 學燈 56(8): 22-25.
1959. 9. “文化人類學における現在の課題”, 思想 423: 1-10.
1960. 11. 30. “コトシ遺跡の新發見: 第2次東大アンデス地帶學術調査の成果”, 民族學研究 24(4): 106.
1961. 3. “書評: フレイレ<館と奴隸小屋>”, 思想の科學27: 74-80.
1961. 3. “ポルトガルとブラジル”, 圖書 138: 24-26.
1962. 3. “日本人のよる<埋もれた世界>の探究”, 圖書 151: 25.
1962. 12. “アンデスの焼きもの”, 學燈 59(12): 12-15.
1962. 12. “朝鮮の現實に目をふさぐな”, 世界 204: 95-96.

1963. 1. “文化の等質性と異質性”, 思想 463: 57-64.
1963. 3. “日本人の人種的偏見: 朝鮮問題と關聯して”, 世界 207: 80-89.
1963. 4. “アンデスの沖繩縣人”, 圖書 164: 18-21.
1964. 9. “オレオピテックスの再檢討”, 圖書 181: 36-39.
1964. 9. “コトシュ發掘後日譚”, 世界 225: 177-183.
1964. 11. “ユーラシア大陸のまんなか: 中央アジアと西アジアの旅”, 圖書 183: 21-26.
1965. 7. “石田英一郎論”, 思想の科學 40: 43-49.
1966. 1. “日本文化研究についての隨想”, 學燈 63(1): 16-19.
1966. 2. “韓國の‘國學’”, 圖書 198: 32-36.
1967. 10. “文明の新しい展開”, 潮 88: 166-176.
1968. 2. “シャーマニズムの世界: 韓國の巫俗を中心として”, 世界 267: 224-231.
1968. 6. “アイヌ繪物語”, 圖書 226: 14-19.
1968. 8. “第八回國際人類學民族學會議に期待するもの”, 學燈 65(8): 32-35.
1969. 3. “巫堂來歷考”, 東洋文化 46·7合併号: 129-150.
1969. 5. フィールドワークの記録: 文化人類學の實踐. 東京: 講談社.
1969. 5. 15. “民族學研究博物館を”, 讀賣新聞. “연구”박물관의 권고를 1965년 5월 14일 일본학술회의회장이 내각총리대신에게 보냈다. 1921년에 이런 아이디어 있었다. 保谷 것이 1962년에 문부성에 기증. 문부성사료관에 보관중. 이 과정에 涉澤敬三의 노력.
1969. 6. 17. - 7. 29. “思い出の人人: 文化人類學の歩み”, 東京新聞
1969. 9. “コン・チイキ’ ‘アク・アク’ ‘ラー’의思想”, 圖書 241:

10-15.

1969. 12. “私の沙漠”, 圖書 244: 12-16.
1970. 5. 文化のなかの人間. 東京: 文藝春秋.
1970. 9. “舊植民地帝國大學”, 中央公論 1970년 9월호.
1970. 9. “人類之知慧”, 新藥と治療 140: 26.
1971. 遙かな山やま. 東京: 新潮社.

3. <出處가 정확하지 않은 文件들>

1. Sei-ichi Izumi ? "The Social Organization of the Natives in Netherland New Guinea: Especially on the Formation of their Stems". pp. 30.
2. ‘야무얼地峽並へール핑크灣南部ニ於ケル原住民ノ生活狀況’
3. 스하우텐群島原住民ノ生活ト宗教(ビアク島特別調査班民族班中間報告). pp. 28.
調査員 泉 靖一, 助手 中山稻雄. ** "海軍" 용지에 타이프로 작성된 보고서.
4. “西ニューギニア原住民の經濟生活”, 興亞文化 pp. 26-31.
5. “西ニューギニア原住民の經濟生活(中)”, 興亞文化 pp. 32-38.

4. <評傳類>

- 寺田和夫 1970. 12. “泉 靖一先生を悼む”, 圖書 256: 58-60.
- 長澤和俊 1971 “故泉靖一先生을 悼함”, 南日本文化 4: 119-127.

- 內田루리子 1971 “素晴らしい 필드워크: 泉靖一先生을 생각하며”, 南日本文化 4: 125-127.
- 齋藤廣志 1972. 4. “ブラズルと泉さん”, 泉靖一著作集(1) 月報 4: 5-8.
- 佐藤信行 1972. 5. “編者あとかき”, 泉靖一著作集 1: フィールドワークの記録(一). 東京: 讀賣新聞社. pp. 419-426.
- 飯山達雄 1972. 10. “少年時代の靖一君”. 泉 靖一 著作集(第3卷) 月報 6. 東京: 讀賣新聞社. pp. 6-8.
- 寺田和夫 1972. 10. “編者あとかき”, 泉 靖一 著作集 3(라틴.아메리카의 民族과 文化). 東京: 讀賣新聞社. pp. 385-393.
- 村武精一 1972. 12. “<兄弟子>としての泉先生”, 泉靖一著作集 月報 7: 5-6.
- 泉 貴美子 1972 泉 靖一と共に. 東京: 芙蓉書房.
- 蒲生政男 1981. 5. 28. “泉 靖一”, 社會人類學年報 7: 133-143.
- 大貫良夫 1988. 12. 10. “泉 靖一: 日本안데스學の創始者”, 綾部恒雄 編 文化人類學群像(3, 日本編). 東京: 아카데미出版會. pp. 411-432.
- 藤本英夫 1994 泉靖一傳: 안데스から濟州島へ. 東京: 平凡社.
- 相馬光明 1995. 3. “藤本英夫著<泉靖一伝>: 書評”, 紺碧 124: 10-11.
- 座談會 1996. 3. “<泉靖一伝>の著者藤本英夫氏を囲む座談會”, 紺碧 127: 6-7. 京城帝國大學·京城帝國大學豫科同窓會.

5. <國立民族學博物館 圖書室에 보관되어 있는 泉 靖一 자료>

圖書室의 二層의 書架에 13박스로 담겨 있음. 거의 대부분의 박스는 東京大敎養學部에서 보내온 것으로서, 發送人은 “吉田”이고, 受信人은 “國立民族學博物館 大給近達”로 되어 있음.

박스에는 番號가 붙어 있는데, 어떤 것은 매직으로 “泉”이라고 적은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泉(?)”이라고 적은 것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직 제대로 分類가 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우선 番號順대로 박스 番號 1 부터 內容物의 簡略한 內容을 記錄하기로 한다. 전부 13박스인데, 11번 박스가 두 개 있기 때문에, 박스의 番號는 12까지로 되어 있다.

1:

바인딩되어 있는 것으로서 靑寫眞으로 만들어진 資料인데, “Code Book, Community Study, Levittown Wave I”라는 標識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泉가 만든 것이 아니라 共同體研究의 한 샘플로서 參考하기 위해서 獲得한 것으로 보인다.

內容을 알기 힘든 브라질의 農業에 관한 얇은 資料로서, 거꾸로 인화되어 있는 것

세미나 發表資料들로서, 주로 學生들이 作成한 레포트들이다. 발표자들의 이름에는 ?(인카의 織物), 佐藤信行(페루南部 안데스의 宗教), 마리아 데 시모자와(까사 그란데와 센잘라, 질베르토 프레이리), 黒田悦子(브라질의 村落生活), 末成道男(브라질의 土地所有, 1962. 9. 25), 葭本嶋江(아마존 타운, 찰스 웨글리)

이치로 호리의 英文抄錄(The Folk-Belief in Japan) 發表文. 그

는 센다이의 東北大學과 도쿄의 國學院大學의 宗教史 教授이다.

라틴아메리카 관련 세미나 발표논문 초록들의 한 묶음

精神醫學關聯 세미나 발표논문 초록들(William Caudill 등)

國際間 人口移動에 관한 세미나 발표논문 초록들.

世界 人口 세미나,

라틴아메리카 세미나 논문초록들.

University of California, Dept. of Anthropology, Anthropology 1184(1954, 12. 3)의 시험문제.

“Toward Understanding the Problem of Acculturation: A Study in Method”, by Seiichi IZUMI, Dept. of Cultural Anthropology, University of Tokyo. 3 페이지 짜리 영문초록.

Support for Japanese Social Democrats in 1955: Analysis of Responses to a Questionnaire by Allan B. Cole, George O. Totten, Cecil H. Uyehara, Seiichi Izumi, Shimako Royama, Studies on Japan's Social Democratic Parties. The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Tufts University, Medford 55, Massachusetts, April 1957. 23페이지 짜리 영문 보고서.

아이누의 社會人類學 調査要項, 社會構造의 部 A, 아이누民族綜合調査-民族學班(昭和29, 6, 20 印刷) 13페이지짜리의 概要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泉靖一의 글인 <民族學研究> 16권 3.4호에서 引用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내용. 泉靖一이 관여된 것.

Florence Kluckhohn의 The American Middle Class Family, American Women and American Values 글들.

1956년도 가을, 하바드대학 Social Relationship 215(problems and concepts of social anthropology) 코스 실러버스.

Anthropology 220 코스 실러버스

Raymond Firth의 퍼블리케이션 리스트

Center for Short-Lived Phenomena, Smithsonian Institution의 센터에 관한 정보물

Clyde Kluckhohn의 글들 복사물

Clyde Kluckhohn과 Florence Kluckhohn의 American Culture(sociology 103)에서 사용했던 교재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地域의 社會經濟에 관한 Olen Leonard의 原稿 초고 복사본

昭和30년 3월 26일부터 4월 12일 까지 移民送出村인 山口縣 大島郡의 실태조사 실시한 “大島郡調査中間報告”가 거의 조사표의 제시로 만들어져 있음. 75페이지 짜리.

유네스코의 Conference on the Cultural Integration and Immigrants(Havana, Cuba 18-27 April 1956)의 會議 資料

Charles Wagley의 <브라질 農村의 人種과 階級> 翻譯抄稿 原稿 朧치

Yutaka Imamura(今村 豊)의 論文 別刷本--中國, 蒙古, 滿洲, 韓國의 人骨에 관한 논문, 1952년 비엔나의 제4차 國際人類學 및 民族學會에서 발표되었던 것. 著者が 涉澤敬三에게 贈呈했던 것임.

2:

1956年 1月 3日 부터 1月 20日 사이의 手帖

奈良顯 磯城郡 平野村의 臨時農業센사스票, 1947年 8月 1日 調査.

후지칼라 슬라이드 앨범, 새에 관한 시리즈들 중의 한권
칼라슬라이드 필름 두통

蒲生の 이름이 적힌 필름 인화되지 않은 상태의 것 한통

戰後의 對伯日本移民 資料(油印物)

아이누의 社會人類學 調査要項, 社會構造의 部 A(鶴川, 沙流川, 染退川 地方), 아이누民族綜合調査, 民族學班, 昭和 28年 8月 泉靖一.

이때, 十勝아이누民族誌와 日高아이누民族誌를 生産하는 目的으로 調査班에 參加했던 名單은 岡, 石田, 岡田, 久保寺, 泉, 瀨川, 渡邊仁, 蒲生, 祖父江, 杉浦

沙流日記 泉靖一(8. 6. - 8. 16) 沙流日記(II) 8. 16-, SARU川日記 粗稿 1951. 5. 24-6.4, SARU川日記(I) 5. 24- 6.4., 十勝紀行 1953. 8. 25 - 9. 2.

廣島醫大解剖學教室 봉투에 든 아이누 調査資料

外務省 봉투의 아이누 社會組織 資料

門別村年中行事, 杉浦先生調査 資料

쿠리치마 안내소책자 1권

文化人類學 一般調査要項 1956年 7月 8日 油印物

Coffee라는 題目的 小冊字

포르투갈語로 된 日本語 文法冊

투피(Tupy) 單語集 포르투갈語-日本語 對譯 編著者 香山六郎, 상과울로에서 出版된 小冊字

北濃觀光協會가 發行한 北濃風景이라는 題目的 葉書 한 셋트

브라질 新聞 스크랩 한권

1952年 University of Michigan, Survey Research Center에서 實施했던 Detroit Area Study의 設問紙와 코드지 등

Questionnaires for Insight Test라는 題目的 파일 속에 로르샤하 檢査종이 한 장과 寫眞을 보여주는 테스트의 用紙와 設問紙

“아마조니아에서 日本人發展史” 原稿 泉靖一 作成, 古今書院 原

稿紙 네묶음.

브라질 寫眞 한 봉투

오세아니아 關係 “圖說 民族學”(Dr. Geog Bashan)이란 책에서 옮긴 노트

Encyclopedia of Religion and Ethics에서 노트를 만든 “N.G.의 民族에 關하여” 노트.

Sao Paulo의 獨身, Cotia의 家族移民 이란 題目的 노트한권

브라질 日記(I) 神戶-로스 안젤레스-멕시코 沖(9. 27-10.14)

브라질 日記(II) 멕시코 沖- 벨렝(10. 15-10.27)

브라질 日記(III) Tome - Acu, Belem Sao Paulo, Parana, Sta. Isabel(1955, 10. 28-11.25)

브라질 日記(IV) Parana, St. Isabel(1955, 11.28-12.1)

브라질 日記(V) 人口세미나-리오 데 자네이로(라틴아메리카 人口세미나 12. 2-12.26)

브라질 日記(VI) Lins, Assai, Curitiba, P.Presidente(12. 27 - 1. 12).

브라질, 볼리비아, 페루 日記. 東京까지...에필로그 (VII) (2. 10- 3. 26).

브라질 필드노트 6卷

城大學報의 原稿用紙(15x10)에 手稿가 있는데, 몇장은 “蔡默”이라는 圖章이 찍혀있는 원고이고, 몇장은 “金圭”라는 圖章이 찍혀있는 원고다. 蔡默의 圖章이 찍힌 것을 당시 城大學報의 編輯委員이었던 蔡默의 글 또는 蔡默이 校正을 보았다는 것이라고 假定한다면, 이 글의 內容으로 보아서 支那事變 만 4년이 지난뒤에 적힌 것으로서 記念式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은 글이다. 皇軍을 讚揚하는 글로 차있다. 이 原稿紙의 뒷면을 泉靖一이 利用하여 벨라네시아

에 관한 노트를 만든 것이다.

3:

브라질의 夫婦目錄(1928-1956), 이름과 나이 그리고 出自를 보여줌. 이외에는 모두 鹿野忠雄의 것들을 泉이 保管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鹿野忠雄의 臺灣先史學概款 抄稿, 臺灣 寫眞들, 圖面들, 어떤 封套에는 “馬淵君”이라고 적힌 封套에 圖面들이 들어 있다. 臺灣蕃族工藝圖錄 第1輯이라고 적힌 封套에도 圖面과 寫眞 그리고 英文으로 된 야미族에 관한 글들이 있다.

카노 타다오의 1926年度 그림帖(산에 관한 스케치). 그는 산을 좋아했던 모양이다. 이 산의 그림들을 泉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인연이 우연한 것이 아닐 것 같다.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인가.

An Illustrated Ethnography of Formosan Aborigines vol. 1. The Yami의 英文原稿

연결되는 원고뭉치들(印刷가 되었는지 궁금하다)

4:

東京大學教養學部文化人類學研究室에서 國立民族學博物館의 大給近達에게 보낸 박스의 표시가 명확함.

십만분의 일 地圖: 先島群島와 루손섬, 술루, 바탄, 광동성, 민다나오, 長崎에서 廈門까지, 澎湖列島, 西表島 등, 日本全圖(威鏡道の 높은 산들과 北海道의 높은 산들의 이름 밑에 붉은 線이 그어져 있음, 昭和 4년 製作의 地圖), 登山에 관심이 있었던 泉의 모습.

뉴기니와 파푸아 地圖(오스트라리아 委任統治라는 글이 印刷되

어 있고, 發行所는 拓務省 拓務局으로 되어 있음)

“臺灣蕃人研究原始資料”(標札이 붙어 있고, 그 內容物들은 모두 圖面들).

Kano Tadao(鹿野忠雄)의 1929年度 Kotosho紅頭嶼 필드노트와 松本信廣의 이름이 적힌 封套(전체 封套에는 Manuscript of Kotosho Ethnography라고 적혀 있음).

코토쇼의 생선 種類에 관한 資料, 寫眞과 그림 그리고 생선의 이름들이 적혀 있음. 원 필름도 있음.

생선 구근류 등의 學名 리스트 1부

鹿野忠雄이 스크랩한 것으로 보이는 英文 論文들로 構成된 스크랩 북 한권.

카노의 1923年 日記帳, 1924年 日記帳, 1927年 探險寫眞帖, 카노가 오키나와와 威鏡北道에서 모은 名銜들. 이 名銜들 중에는 多數가 現地 日本人 警察官들의 것들로서, 카노가 만났던 또는 紹介狀으로 받았던 名銜들이다.

“鹿野氏 毆文 初錄” 1部, 주로 內容은 臺灣과 코토쇼에 관한 英文 글들이다. 타입된 寫本들임.

1935年 이후에 모은 것으로 보이는 필리핀 關係의 物質文化 資料들, 目錄의 番號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蒐集한 것들의 名稱을 分類하였고, 하나 하나에 대해서 說明이 적혀 있음. 타입된 것임.

5:

브라질 調査表들(1952-1953)

知能心情質檢査綜合表 順天堂醫大神經科教室

파라州, 아마조나스州, 檢査者에는 “泉香枝(東大)”라고 적힌 用紙도 있음.

6:

東京大學文化人類學研究室 國際移住研究會로 보내온 日伯中央協會의 便紙.

泉의 록펠러과운데이션과의 便紙交換, 에드워드 노백과의 便紙交換, 브라질의 日系移民 50年史 編纂에 관한 情報들.

書簡 및 名刺, 유네스코와의 書類交換 한 것, A Preliminary Report on the Study of Social Tension의 草稿 英文.

京大式 農家經濟簿 한권, 브라질에서 泉가 모은 領收證들.

브라질 調査時的 設問紙 모음과 分析資料 過程을 보여주는 圖表들

7:

齊藤廣志의 “아마존 通信” 新聞記事 스크랩: 東大의 泉助教授의 助手로서 연구작업을 했던 제등이 寄稿한 新聞의 글들이다. 28회에 걸쳐서 寄稿되어 있음.

1951年度 아카라(브라질 파라州)의 日系移民關聯 資料들. 移民者들의 體格調査標.

8:

브라질 移民 調査表(1952-1953)

9:

유네스코 世界人口會議 資料, 미팅 番號 23. 로마에서 會議 1954年 8月 31日 - 9月 10日까지

브라질 面接調査 노트

빈 原稿紙 한 뭉치

單獨移民의 調査表

1948年度 日本社會 調査表 6部

大陸資源科學研究所第三部 人口調査카드 360枚

10:

(“岡正雄 ‘民族調査要領’ 昭和16年在中”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음) 한봉투에 “뉴기니”라고 적힌 것이 있고, 그 속에는 泉의 뉴기니 調査資料와 英文原稿가 들어있다.

泉의 英文原稿 題目은 The Social Organization of the Natives in Netherland New Guinea: Especially on the Formation of their Stems.

資料의 整理過程을 보여주는 報告書와 그림과 地圖는 “海軍”이라고 印刷된 종이를 使用하였다.

브라질 調査資料, 日本農村調査資料, 브라질行 日本人들의 船內 學校作文, 葡語테스트결과, 船內面接資料,

岡正雄 ‘民族調査要領’ 한부(油印物)

어느 日本農家の 大正期부터의 簡略한 家計簿 硯 日記

Richard Morlan의 英文原稿 “The Pre-ceramic Period of Hokkaido”.

日本村落調査表 뭉치, 日本村落 어린이들 相對의 設問答案紙, 臨時農業센사스票, 朝日放送番組審議會議事錄(1962年 6月 13日),

James Akira Hirabayashi의 하마드大學 博士學位 論文 寫本 “The Relation Between National and Local Normative Systems: A Study of a Japanese Mountain Community”(1961).

大陸資源科學研究所의 人口調査表(310事例)

海軍의 用紙에 作成된 “비아쿠島特別調査班民族班中間報告: 스하

우딘 群島原住民의 生活과 宗教”라는 題目으로 調査員은 泉 靖一, 助手는 中山稻雄.

11:

學會關係 書類(日本人類學會, 日本民族學會). 人口問題 關聯 論文과 資料들. 資源調査 data(1950年代 初半). 中國, 山陰, 九州, 四國 地域關聯 調査資料 및 參考資料들

12:

城東村, 谷田部町의 紹介 印刷物들, 北海道 觀光 寫眞帖, 어느 村인지는 모르겠는데, 原稿 一括.

13:

브라질 移民者들에 對한 研究 調査表(55年 10월에 記錄된 것들), samples of projective test 도 包含하였음.

레지스토로 日系 코로니아 實態調査表, 레지스토로 文化協會의 名義로 되어 있음. 모두 日本語로 적혀 있는 調査表임. 인터뷰 노트(1957年 7月과 8月). 社會問題에 관한 設問紙. 泉의 싸인이 있는 코드북.

타카오 소푸에로부터 온 葉書 일매(Apache Hotel, Phoenix, Arizona, USA) 1954년 12월에 보낸 것.

Anthropology 206 Seminar in the Archaeology of South America Intensive Bibliography on Northwestern South America and Lower Central America의 코스 실러버스.

國際移住研究會 報告資料 昭和 30年 4月 16日

山口縣 大島郡 白木村 沖家室集落 Population Curve의 分析(暫定)
山口縣海外協會가 發行人 移民情報

國際移住研究會의 山口縣大島郡 調査票

로르샤하 테스트 한 것의 分析過程을 보이는 分析地圖 있음. 브라질에 適用했던 것임을 알 수 있음.

十和田村 人口移動表(昭和 21年 1月 - 26年 6月 間)

昭和17年度勞務衛生調査報告書(大同炭鑛調査 龍烟鐵鑛調査)- 蒙疆調査資料第86號 昭和18年 6月 30日 發行, 在張家口大日本帝國 大使館事務所 發行. 115페이지 짜리. 關聯資料 한부

北京近郊農村調査 카드(內容은 주로 親戚名稱과 呼稱에 관한 것), “河北省 饒陽縣 普通 農民語”라는 註釋이 붙어 있고. “1944(昭19)”年 것.

오르도스. 몽골 親族呼稱(調査表의 形態이고, 위의 것과 같은 것). 위의 年代와 同一하고, 동일한 연필글씨로서 同一期間임을 알 수 있음. “1944(昭19)”年이라고 적혀 있음.

大陸資源科學研究所要覽(昭和20年), 京城府苑南町 177의 大陸프린트社納으로 되어 있음.

馬來農村生活實態調査要綱案(“秘”의 붉은 圖章이 찍혀있음).

1997年

11月 22日 全京秀 整理作成

2004. 4. 23. 국립민족학박물관 도서실에서 이즈미 담보루를 다시 봄. 그동안 野林(민박 교수)선생이 鹿野 관련 자료를 보고, 일부를 정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즐거부른 노래>: 한 가지.

涙の渡り鳥

作詩 西条八十 作曲 佐々木俊一
昭和7年

- 1 雨の日も風の日も 泣いて暮らす
わたしゃ浮世の 渡り鳥
泣くのじゃないよ 泣くじゃないよ
泣けば 翼も ままならぬ
- 2 あの夢もこの夢も みんなちりぢり
わたしゃ涙の 旅の鳥
泣くのじゃないよ 泣くじゃないよ
泣いて昨日が 来るじゃなし
- 3 なつかしい故郷の 空は遠い
わたしゃあてない 旅の鳥
泣くのじゃないよ 泣くじゃないよ
明日も越えましょ あの山を

蒲生政男 1954. 6. “マリノウスキー”, 理想 253: 105-106.

小林英夫 2004. 10. 10. 帝國日本と總力戰體制. 東京: 有志舎.
“四二年六月にミッドウエー海戦による日本海軍の敗北の結果, 緒戦の勝利の時代は終わりをづけ, アメリカの反撃がはじまったことだつた. まず同年八月にはアメリカ軍のガダルカナル島上陸が行なわれ,

連合軍の本格的反攻が開始された. 連合軍による反撃は, 日本の船舶事情を悪化させ...”(小林英夫 2004. 10. 10.: 176). ***천 정일에 붙여서 사용할 것.

“一二月三十一日, 大本營はガダルカナル島から撤退を決定するにいたる. そして四三年にはいると, 連合軍は一月には南太平洋のブナ(ニューギニア)の日本軍守備隊を, 五月には北太平洋のアッツ島日本軍守備隊を壊滅させた. その間, 四月には連合艦隊司令長官, 山本五十六の乗機をソロモン上空で撃墜した”(小林英夫 2004. 10. 10.: 178).

“四三年四月以降, 米潜水艦部隊が, 従來の單艦による攻撃を變更し狼群戦法(狼が群で狩りをするように潜水艦隊が集團で船舶を攻撃する戦法)による輸送船攻撃にふみきつた”(小林英夫 2004. 10. 10.: 180).

“日本軍, 四三年五月には, ‘現地自活ノ強化’‘現地民生ノ維持’を方針に, 占領地區の自活方針の強化をうたわざるをえなくなつたのである”(小林英夫 2004. 10. 10.: 181). 천정일의 보고서가 준비되던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泉靖一の 人類學探險과 戰中人類學

Izumi Seiichi's Adventuring Anthropology and Wartime Anthropology

1. 서언: “戰中”이라는 상황

“戰後” “戰前”, “戰中”. 영어는 그대로 wartime이라고 적는다.
京城帝國大學

2. 入門과 “卒論”

한라산 등반사고의 인연. 제주도. 國文學講座-社會學講座

reading Malinowski. did he really catch the meaning of ethnography ? it is a question. 아키바의 오해. "intensive study". 오로촌: 吉岡義人(특무기관) 전장의 첩보원. 아편. 박물관. 왜 우도인가 ? 제주도-우도, 뉴기니아-트로브리안드. 지리적 유사 친연성.

3. 學術探險隊

탐험.

4. 뉴기니아의 비약

왜 비약인가 ? 그곳에는 자원도 없다. 그런데 ? 트로브리안드의 이미지(뉴기니아의 남쪽 끝) 비약(뉴기니아의 북쪽 끝). 박물관 물건 컬렉션. 인골 컬렉션.

거주기간으로 볼 때, 가장 장기간 머문 곳이 뉴기니아.

海軍資源調査隊

“植物民族學” 논문: 竹中 要的 영향

ethnobotany에 미치지 못했던 것. 그러한 방향으로 논문을 구성했다는 점. 필드에서 익힌 체험에 기반한 것.

5. 大陸資源科學研究所

골수집

“資源”: 전쟁수행을 위한 자원을 말함. 전쟁이라는 상황에 의해서 유도된 것. 학문이 목적이 아니다. 수단이었다.

人的資源과 物的資源

6. 결어: 나카마가 다이지.

인간관계. 그의 오야붕. 尾高朝雄과 飯山達雄, 두 사람의 나이가 비슷할 것. 전자는 학계의 오야붕. 후자는 등산의 오야붕.

이즈미의 전중인류학, 그것은 전쟁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귀결된 것이었다.

이 구도가 동일한 시기에 활약하였던 일본의 민족학(문화인류학)자들에게 어느 정도로 적용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업적을 점검함으로써 가능한 결론이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즈미 개인적으로는 그가 수행한 것은 anthropology라기 보다는 adventure의 일환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anthropology라는 학문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작동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가 후일 학문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재충전 차원이 아니라 학습의 차원에서 doing anthropology의 schooling 과정이 필요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 The Provenience and Contents of the Porfirio Diaz and Fernandez Leal Codices: Some New Data and Analysis
- Eva Hunt
- [American Antiquity](#)
Vol. 43, No. 4 (Oct., 1978), pp. 673-690

Biographical Dictionary of Social and Cultural Anthropology
[Hardcover]

[Vered Amit](#) (Editor) 600명 대상 중에 이즈미가 포함됨. 일본인은 모두 몇 명인지. 그리고 이즈미는 어떤 내용으로 소개되었는지. 궁금.

Handbook of South American Archaeology

编者: Helaine Silverman, William Isbell

Encyclopedia of Japanese descendants in the Americas: an illustrated history ...

编者: Akemi Kikumura-Yano

Ikawa Fumiko 1966 American Anthropologist 논문.

A companion to the anthropology of Japan

作者: Jennifer Ellen Robertson

1969. 12. 1 “十二月”, 創文 79: 14-15. 브라질 얘기.

1970. 9 “人類노知慧”, 新藥도治療 140: 26.

1947. 7. 19-8.29 미국과학아카데미 대표단 방일

태평양학술회의(PSC)제10회 하와이에서 1961. 8. 21-9. 2

제11회는 동경(1966. 8. 22-9. 10) 12부문으로 나눔. 제10부문으로 “人類學”(八幡一郎, 三根谷徹)

전후 學術體制刷新委員會 탄생. 尾高朝雄이 世話人役. 위원장은 아니다. 부위원장.

泉 靖一. 蒲生正男 1952. 12. 10 “日本社會노地域性”, 日本地理新大系 第2卷(社會.經濟),

佐藤 弘. 渡邊 操 共編. 東京: 河出

書房. pp. 37-76.

“日本社會地域性理解와, 人間關係노아리方도시데, 社會構造토소노 機能오問題노焦點토수루”(泉 靖一. 蒲生正男 1952. 12. 10: 37). **구조기능주의의 영향임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 이것은 영국에서 사회인류학을 배우고 온 秋葉의 영향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이 논문의 작품이 결과적으로 생산해낸 것은 분포 즉 지역적인 분포도를 제시하는 것과 東-西 일본의 지역적 차이의 성격을 구명하였다.

“日本民族가四츠노島토소노周邊노島島니持츠文化=生活諸方式니와, 一定노埠(와쿠)기아리本質的니와同一노모노데아루. 日本니오케루人間關係모日本文化노一面토시데等質노基盤니立치, 소노地域的差異從츠데地域性와相互轉換노可能性노範圍內니오케루變差토시데把握사레루”(泉 靖一. 蒲生正男 1952. 12. 10: 71).

기능분석의 방식으로서 계층에 주목. 주종관계와 대등관계의 도식으로 분석한 내용을 지리적으로 분포한 결과 동북형과 서남형의 구분이 가능하게 된 것.

“東北日本型과 西南日本型”의 제시(73). 대단한 발견이다.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문제를 구체적인 자료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논증한 연구결과인 것. 기왕에 연구되었던 연구자들의 발표자료들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이론적 구축의 작업이었다. 126개의 촌락을 대상으로 한 것.

小川 徹 1952. 12. 10 “日本社會노地理의性格”, 日本地理新大系 第2卷(社會.經濟),

佐藤 弘. 渡邊 操 共編. 東京: 河出書房. pp.

1-7.

山口貞夫 1938 “日本民俗노地理의性格”이란 논문에서 地

域의 성격과 風土의 성격으로 2대별하였다. (1908-1942). 地域의 성격이 民俗事象 그 자체라고. 이것을 인문지리학으로 풀어본다고(p. 3)

柳田國男은 ‘近所不一致로遠方一致’ 즉 局處의變化和 全國의共通을 말함(p 5).

香原 증언: 삼포선생의 연구실에서 처음 천정일 선생을 뵈었다. 동대이학부인류학교실에서.

송본의학전문학교가 송본의대가 되었고, 그것이 신주대학으로 변경되었다. 1951년에 대학에 입학하였고, 신주에는 1954년에 갔다. 대학 학부 2학년 때, 1949년도다. 그때 삼포와 천이 함께 있는 연구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 두 사람은 상호존경하는 모습이 아주 감격적이었다.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었다.

科學技術廳 資源調查會三十年史編輯委員會 1978. 6. 27 資源調查會三十年史. 東京:

社團法人 資源協會.

경제안정본부 산하에 자원위원회 1948년 3월에 제1회 자원위원회 개최. 1949년 6월 자원조사회로 개명. 1956년까지 보고24권, 자료 37권, 권고16권을 발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간. “지역계획을 담당하는 1948년 7월에 제4회 자원위원회가 있었다. 10월에 제6회 위원회에서 지역계획부회를 설치. 동부회는 1.지역구분, 2.특정 지역의 총합개발계획, 3. 지역개발계획의 순위결정기준, 4. 자원개발의 조직운영등의 조사과제를 선정하였다. 1949년에 들어가서 熊野川琵琶湖, 北海道(石狩川과 十勝地域), 只見地域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역계획의 방법론으로서 1. 개발계획의 경제효과측정법, 2. 개발조직과 법제, 3. 개발지역선정, 4.보상방법등의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구체적 사례로서 TVA개발방식, 小河内村의 水沒補

償, 十津川村의 北海道集團移住問題를 조사하였다”(科學技術廳 資源調查會三十年史編輯委員會 1978. 6. 27: 106).

相馬廣明 1993. 1. 29 히마라야해노도. 東京: 診斷と治療社. 의학부 1학년에 대해서 “系統解剖學”(相馬廣明 1993. 1. 29: 54) 강의.

“山岳部.新聞部노先輩.泉靖一”(相馬廣明 1993. 1. 29: 57).

泉은 실태조사를 위해서 여름에 오로촌으로 갔기 때문에, 대학의 군사교련을 빠졌다. 교련불합격으로 인해서 간부후보생이 아니고 병졸로서 旭川の 7사단에 입대. 당시 노몬한 사건으로 7사단이 전장에 파견. 부대가 흥안령 지대에서 길을 잃자, 泉二等兵이 부대를 인솔하여 흥안령 지대를 무사히 빠져나왔다. 그 공으로 사단장의 특별 지시로 見習士官에 승진하였다(相馬廣明 1993. 1. 29: 57, 인터뷰 2011. 5. 18. 조사이병원에서).

“包頭醫院에서 유곽의 여성들을 검진하였는데, 검진 양성율이 90% 이상인 성병의 소굴이었다”(相馬廣明 1993. 1. 29: 59).

1945년 7월 대륙자원과학연구소의 일로 大同炭鑛 工人들의 民族社會學的 조사(相馬廣明 1993. 1. 29: 63). 8월 4일 탄광 공인조사 완료. 張家口에서 宜化에 도착한 것이 8월 8일.

龍烟鐵鑛에서 공인조사를 시작. 다음날 北京의 泉선생으로부터 급히 북경으로 오라는 연락. 引揚指令(相馬廣明 1993. 1. 29: 65). 9일 북경에 도착. 조선은행 숙소에서 일박. 맹서. 잠을 못 잤다. 10일 泉은 急行興亞를 타려고. 奉天까지. 봉천에서 華北交通局長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 심장질환의 간호부 한 사람을 內地까지 좀 데려가 달라고. 협심증으로 발작으로 하니, 소마가 옆에서 주사를 놓으라고 당부. 泉의 친구

香山(동해대학교수)의 누이동생이 그곳에 시집을 와서 있었다. 남편은 新京으로 응소 나갔고, 폭동화하는 봉천에서 애기를 데리고 어려움. 香山의 누이동생과 어머니를 데리고 京城으로 향하는 열차를 탔다. 이때 “아노유메, 코노유메...” 술취했다. 봉천에서 조선으로 행하는 열차는 군인과 만철직원. 그곳에서 아는 滿鐵局長에게 부탁해서 병자가 있으니 살펴봐달라고 하여 병원열차를 타고 安東까지. 그곳에서 조선인 대학 선배의 집에서 기거하고 다시 신의주를 거쳐 경성까지.

泉 靖一 1944. 3. 1. “ニューギニアのパプアの傳説”, 城大學報 79 號. 學生主事.

“高さ二〇米太き直径一.五米大のものを一本切倒すと, 一人半年分の澱粉が取れる. 従つて半年は何もしないでぶらぶらしている. と云つた傳説を多くの人は信じている. ... 一本の大サゴ椰子から取れる澱粉は, 普通百匁である. 彼等は一日平均二.二匁以上を攝取するから, 四五日分しかない. 而も保存期間は三週間内外で, 原木から澱粉を採集するには二人一組三日の作業で, 四十匁平均の能率しか持たない. ニューギニアの原住民がさう半年もぶらぶら出来できないことは, 明かであらう”(泉 靖一 1944. 3. 1.).

“ニューギニアに於ては喰人慣習は決して普遍性を持っていない. 殊に先述した食用の目的を以てする場合する皆無である. ... 人肉を喰つた體驗者は現在唯一人しかいない”(泉 靖一 1944. 3. 1.). 석기시대, 잡혼, 성생활의 사례 모두.

“以上が現代人の作つた傳説の紹介である”(泉 靖一 1944. 3. 1. 이텔릭필자추가). 인류학자가 실시한 필드작업의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다. fakelore에 대한 고발과 진정한 folklore에 대한 소

개로서 “大トカゲを退治した女”, “蛇を生んだ人”, “食物が天から降つて來る話”. 사례 제시.

“今でもビアツク島の原住民はマナナルマケルとコノリの再來を信じ, 働かなくてもよくなる日を心得ちに待つている, ニューギニアの原住民が働かなくても食へる日が來のは, マナナルマケル再來の時である. ニューギニアには餘りにも傳説が多い”(泉 靖一 1944. 3. 1.).

田中正四 編 1972. 3. 15. 片地書: 今村豊先生書翰集.

1959년 2월 15일 엽서. 동경에서 오랜만에 泉의 라쯔파吹奏를 들어서 아주 좋았다(田中正四 編 1972. 3. 15.: 37).

1966년 12월 1일 津에서 엽서. “家内がテレビで泉君をめて少し元氣がないようだと言つていたが, その後, 夫人の便りによれば, アンデスで肋骨を數本折つて入院までした由...”(田中正四 編 1972. 3. 15: 70).

1967년 3월 7일 “泉靖一君が二三日前, 倒れて目下入院中, かなり心配すべき状態との事, 鈴木清君の死につづくショックである. かねて池田次郎君が泉さんは余り働きすぎる, 健康が心配だと云つて居た杞憂が事實となつた”(田中正四 編 1972. 3. 15: 72).

“泉君の如く何んでも引受けて, 過勞で倒れる轍を踏まれないように祈ります”(田中正四 編 1972. 3. 15: 73). “泉が心臓ではなく立ち上つたのは幸いであるが”(田中正四 編 1972. 3. 15: 73).

1968년 3월 8일 “泉君とは殆んど文通せず, しかし共通の友人の話や, 年に一二回會つた印象では極めて多忙, 動き廻つているのは君と同じ”(田中正四 編 1972. 3. 15: 77).

1970년 9월 24일 島, 鈴木(誠), 小浜 등 今村門下는 모두 쓰러졌

다. 남은 것은 池田 하나. “池田君によれば泉君も一時臥床した由, どうも年まわりが悪い”(田中正四 編 1972. 3. 15: 82).

제국시스템의 관성

1945년 12월 1일 육군성과 해군성이 폐지되고, 육군성은 제1복원성, 해군성은 제2복원성으로 개명. 복원작업에 치중. 이후 두 성은 후생성 산하로 흡수되어, 제1복원성은 제1복원국, 제2복원성은 제2복원국으로 결착. 기능변화.

泉靖一 他

1972 “座談會: 都市と文明”, 日本文化の構造(論集 日本文化1), 梅棹忠夫, 多田道太郎 編.

東京: 講談社.

1972 “劍術と馬術の文化, 日本とよ-뽕뽕”, 日本文化と世界(論集 日本文化2),

梅棹忠夫, 多田道太郎 編. 東京: 講談社.

천정일 編 1968 아이누의 세계. 東京: 鹿島研究所出版會.

1963 부랴쿠. 아프리카의 전통 사회와 소노(研究參考資料第46 輯). 아시아 經濟研究所.

1962 “序說”, 니구로아프리카의 전통적 사회 구조(아시아 經濟 研究시리-즈23). 아시아 經濟研究所 編.

1959 인카帝國. 東京: 岩波書店.

1962 인카의 祖先타치. 東京: 文藝出版社.

1958 안데수-東京大學안데수地帶學術調査團. 東京: 美術出版社.

1968년의 學園紛爭과 世界大會가 일종의 전환기를 가져왔다. 명치

유신 1868년부터 계산하면 정확하게 백년이 되는 셈이다. 일본근대화 백년의 역사와 아울러서 일본인류학의 백년을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일본은 근대화 모델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서구화’라고 해야 할 것이다. 유럽이 다가온 후, 일본의 자의에 의해서 일본이 서구로 다가간 모델이다. 이 세상에 유일한 모델이다.

이즈미, 그는 여러 대학의 문화인류학 강의 강사를 많이 하였다. 문화인류학 세일즈를 한 셈이었다.

일본사회의 지역성연구와 관련성. 日本學術會議の研究班は1949年から4年をかけ全国5万6千人を対象に日本人の生体を計測した。小浜基次はこの結果の地方差から東北・裏日本型と畿内型に分類し、「その2つの型の分布状況を歴史的に解釈すると、まず、アイヌ系の東北型が広く日本に分布していた。その後、朝鮮半島から朝鮮系が渡来し、畿内、瀬戸内に本拠をしめ、一部は東進して南関東に達した。この畿内型の周縁や西日本の離島に東北型がのこっているのも、先住民であったからであろうといている。上田常吉はこの後来の朝鮮系が弥生文化をもたらしたと解釈した。」(樋口隆康「日本人はどこから来たか」講談社現代新書、1971年)

飯山達雄

그는 몽골로이드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파타고니아부터 먼저 방문하였다. 전후. 딸의 장남은 유카탄에 동행하였고, 차남은 파타고니아에 동행하였다. 다량의 사진은 사망 3개월 전에 민파쿠에 기증할 계획을 하고, 우메사오 관장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그 계획을 실현시키지 못하였다. 그래서 사진의 네가가 수천매 현재 딸이 집의 이층에 보관중이다. 반산이 히키아게 때 찍은 유골상자를 안고 들어오는 여아의 사진

주인공은 山本光子. 그녀가 성장한 이후에 만났다. 지금도 연락이 되고 있다.

반산은 유니세프가 지원한 사진가 전람회. ‘世界の百人展’에 초대되기도 하였다.

반산, 하라구치, 이즈미가 단짝으로 다녔다. 하라구치는 은행원 부인이다. 반산 집에 와서 밥을 먹는 것이 상당히 많았다. 현재 반산의 부인이 금년 6월에 만 백세로 생존중이다.

삼성당에서 나온 <몽강의 여>에 그려진 삽화들은 쿠리하라 화백의 그림들이다. 그는 성대 산악부 코치를 하였다. 항상 로라이플렉스 카메라를 지니고 다녔다.

반산의 딸은 1934년 용산에서 출생하였다. 반산은 1946년 7월 중국의 고로도에서 사진을 찍었다. 사위는 문화방송 아나운서를 하였다. 후지테레비 스포츠 아나운서. 도쿄올림픽과 몬트리얼 올림픽을 담당하였다. 아나운서 끝나고 프로듀서를 하였고, 후일 문화방송국장도 역임. 소학관출판사에서 만든 포케몬을 영화로 제작하였다. 방송국의 일부였던 ‘니혼필하모니’의 폐쇄 당시, 고용문제로 8년간 재판에 시달렸다. 피고로서.

泉 靖一 경성제대 학생주사보에서 1943. 12. 6.일자로 학생주사로 임명. 서고등관7등. 十一級俸下賜. 관보 5063호(1943. 12. 17.)

須江 奎二郎(모쿠지로, 의2회졸)

1947년 11월 3일 제2회 서부사회학회대회에서 岩崎와 泉이 모두 발표하였다.

泉 靖一, 川崎市生田 4225(1950年頃) 주소

心齋 金錫翼의 제주역사 인식

- 『耽羅紀年』을 중심으로 -

박 찬 식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 역사학)

- 차 례 -

1. 머리말
2. 제주역사 저술의 원칙
3. 『탐라기년(耽羅紀年)』의 저술 내용
4. 제주역사 주요 사건에 대한 사론(史論)

1. 머리말

心齋 金錫翼(1885~1956)은 그의 생애를 제주 근현대사와 함께 한 제주 출신의 한학자이며 향토사학자이다. 1909년 조선의 망국을 목전에 두고 의병운동을 펼쳤던 金錫允(1877~1949)의 동생이다.

여덟 살 때부터 할아버지로부터 한학을 배웠으며, 16세 때인 1900년에 제주도에 유배와 있던 我石 李容鎬에게 한문을 배웠다. 이후 광주시 동구 서석동에 살던 부해 安秉宅의 문하에서 글을 배

웠다. 안병택은 조천리 출신으로서 조선후기 제주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친 安達三의 아들이다. 안달삼은 전남 장성의 奇正鎭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제주에 유배왔던 崔益鉉의 영향을 받았다. 안달삼의 학문은 가학으로 그의 아들 안병택에게 이어졌고, 따라서 김석익도 그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나라가 기울어지자 이듬해 奇宇萬의 구국격문을 몰래 가지고 귀향하였다. 이때부터 민족혼을 진작할 계획을 찾아 먼저 『耽羅紀年』 저술에 몰두하여 1915년에 완성하였다. 『탐라기년』을 완성하기 위하여 『탐라지』, 『관풍안』, 『효열록』, 『빈흥록』, 『삼국사』, 『해동고기』, 『고려사』, 『동국여지승람』, 『해동역사』, 『연려실기술』, 『대동야승』 및 중국과 일본의 역사서까지 섭렵하였다.

1918년 7월에는 『탐라기년』을 간행하였고, 젊은이들에게 한문을 가르치며 국혼을 일깨웠다. 이 무렵 한상호, 김택수, 강창보, 김정순, 김정로, 고경흠 등이 김석익의 문하에 출입하며 한문을 익혀 그 영향을 입어 민족해방운동에 헌신하였다.

김석익은 38세 되던 해로부터 10년 동안 열정을 쏟아 제주역사와 인물에 대한 저술 활동에 주력하였다. 『탐라인물고』, 『과한록』, 『유리만필』, 『북행록』, 『근역시화』, 『천주교란기』, 『양경천전』 등을 비롯해 많은 글을 썼다. 일본 오사카를 비롯해 서울, 청진, 정읍 등지를 두루 돌아다니며 식견을 넓혔다.

광복 직후인 1948년 초 민주독립당 제주지구당 창당대회에 그는 내빈 자격으로 참석하였는데 만장일치로 도당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그러나 학자의 길을 고수하여 사양하여 취임하지 않았다. 그는 평생 저술과 후학 육성에 힘을 쏟음으로써 제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 헌신하였다.

본 강의에서는 본격적인 제주 통사 저술에 선구적 업적을 남긴

김석익의 『탐라기년』과 「탐라기년 부록」, 『천주교란기』를 중심으로 그의 제주역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제주역사 저술의 원칙

○ 『탐라기년』은 1915년에 저술을 완성했으며, 1918년에 초판이 간행되었다. 고려 태조 21년(938)부터 대한제국 광무 10년(1906)까지 934년 간의 탐라 사적을 편년체로 기술하였다. 고려 이전의 탐라 역사를 外書라고 하여 본권과 구분하여 전체 글의 앞부분에 수록하였다.

- 『탐라기년』의 목차
 - 안병택과 김시우의 序
 - 義例
 - 탐라입호연혁도
 - 外書
 - 권 1(938~1388)
 - 권 2(1392~1674)
 - 권 3(1675~1800)
 - 권 4(1801~1906)

대체로 탐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전기(태조~현종대), 조선후기(숙종~정조대), 조선말기(순조~고종대)로 시대를 구분하였음이 엿보인다.

○ 저술 배경

안병택 서문

“本朝 列聖의 柔遠之化가 산 높고, 바다 깊은 것 같이 愛君憂國하는 충의의 마음을 아연히 분발케하며 惻然히 感泣케 하니 世道에 裨補함이 어찌 적다 할 수 있으리오. 匪風과 下泉이라는 周나라를 생각하는 詩가 春秋시대에 여러 大國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檜와 曹라는 소국에서 만들었으니 孔子가 詩經을 편찬할 적에 반드시 이 시로써 變風의 끝에 붙인 것은 그 理가 甚妙하고 그 意가 甚長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錫翼이 오늘 이 책을 編述한 뜻은 蒼海가 桑田된 슬픔에서 나온 것이리라.”

→ 망국의 비애를 토로한 것으로 표현

김시우 서문

“고려 태조의 해로 시작하여 광무 병오년(1906)을 끝을 한 것으로 능히 그 뜻을 짐작할 수 있다.”

→ 고려 태조가 일국의 시작이라면 1906년은 일국의 쇠망을 뜻하므로, 망국의 이유와 울분을 역사 저술로써 표현하려는 의도

○ 제주통사 저술의 선구 업적

통시대적인 제주역사 저술이란 점에서 이전의 다른 역사자료인 『영주지』, 『제주풍토록』, 『남사록』, 『제주풍토기』 등과 구별된다. 그리고 고흥진의 감교로 이원진이 편찬한 『탐라지』, 『제주대정읍지』, 『탐라지초본』(이원조) 등의 읍지류와도 차별적인 통사로서 독보적인 위상을 갖는다.

이러한 점은 『탐라기년』 머리에 심재 본인이 작성한 義例에 잘

밝혀져 있다.

“본도의 고사를 찬술한 자 많으나 상세한 것은 산만하고 략한 것은 소루함이 있으며 혹은 지지만을 위주하여 사실이 불비하고, 혹은 기사를 오로지하되 수채가 미진하다.

안병택 서문

“上下 천여 년에 記事 簿籍이 公廨에 간직한 바 없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차의 火災로 인하여 없어지고 金沖庵의 風土錄과 林白湖의 小乘(남명소승), 金淸陰의 南槎錄 등이 명승고적과 풍토 殊異를 기록하고 傳聞하여 感慨함에 그치고 記實하는 데 詳細하지 못하나니라. 목사 李元鎭이 전적 高弘鎭과 더불어 邑誌를 편집한 바 있고, 李毫宇 張默庵 등이 續修함에도 精正을 결하였고 오직 玄處士 德聞의 耽羅記略이 邑誌體를 탈피하여 史家 나름으로 거의 成書하였으나 이것에도 取採가 미진하여 先後 錯倒되어 文句가 澁俚하여 오히려 이해할 자 있을까 두려우니라. 나의 벗 錫翼이 개연히 述告하는 데 뜻을 두어 독서 여가에 諸書史 諸述錄을 널리 고증하여 信實을 남기고 訛誤를 버리고 終端을 訊究하여 此編을 이루었다.”

김시우 서문

“고흥진, 한응호, 이원조의 탐라지는 건치연혁, 인물, 풍토, 산천, 성읍, 명승, 고적을 대략 서술했을 뿐. 여러 서적을 수괄하여 연대에 의거해 사실을 서로 비교하면서 전서를 이루어내지는 못했다. 연대 고증이 되지 않아 황연하고 어두웠다.”

○ 「탐라기년 부록」

『탐라기년』 간행 이후 1906년 이후로부터 사망 직전인 1955년까지의 역사를 추가로 저술하여 「부록」이라 이름 붙여 正篇과 구

분하였다. 『탐라기년』의 예에 따라 기술한 후편으로서 제주 근현대사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하겠다.

○ 『天主教亂記』

『천주교란기』는 1931년 5월에 저술된 것으로서, 김석익이 이전부터 수집하였던 자료들을 기본으로 삼은 위에 이재수의 누이인 李順玉의 증언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즉 이재수의 누이가 김석익을 찾아와서 이재수의 전기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게 계기가 되어 이전에 저술하였던 것과 몇 가지 자료를 보강하여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천주교란기』의 목차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제일 조선말의 정치와 천주교의 유래 및 세력
- 제이 이재수의 의거와 천주교도의 섬멸
- 제삼 불함의 내침과 관군의 응징
- 제사 이재수의 최후와 천주교란의 영향

3. 『탐라기년』의 저술 내용

『탐라기년』의 저술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책 머리에 심재본인이 작성한 義例에 잘 밝혀져 있다.

“내가 편술한 『탐라기년』은 제 사서에서 搜聚하여 편년기사의 예를 모방하여 만들었다. 또 前輩 및 금인의 논설을 인용하고 사이에 사건도 붙였다. 본도가 개황 이래 상하 數千載에 治亂·得失·交聘·通朝 등 가히 기술할 것이 많은데, 그러나 賊路要衝인 까닭에 누차 兵火를 입어 載籍이 漫滅되어 지금에 비록 일일이 고증하고자 하나 이미 어려운 고로 편년을 고려 태조 21년부터 광무 10년

으로 그치고 그 이상은 여러 서적에서 채집하여 外書를 補作하니 또한 의심스러운 점은 의심으로 전하는 뜻에서 한 것이다. 此編은 每歲에 반드시 동국 연대를 쓰되 혹 사실은 있고 연대를 알 수 없는 곳도 당시 왕의 기를 두어 그 사실을 기록하니 變例다. 차편이 여러 서적을 彙輯하여 이룬 까닭에 대저 사실이 雜出하여 어긋나는 곳이 있다. 지금 동사를 따라 정정하고 서로 參證할 곳은 竝附하여 고열하게 하였다. 이국 선박이 표박한 사실을 다 쓸 수는 없으나 혹은 그 처음 온 것을 쓰고 혹은 다른 일로 인해 쓰기도 하고, 본도인이 이국에 표류하였다가 고향으로 생환한 자, 또 기이한 사실도 적었다. 4권으로 묶어 4권 중에 천여 년의 사실이 대략 기재되어 있다.”

안병택 서문

“고려 태조 21년 무술(938)로부터 이조 광무 10년 병오(1906)에 그쳤으니 東國年代를 먼저 쓰고 중국 연호를 註에 붙임은 우리나라를 중히 한 것이고 綱을 앞세우고 目を 後序함은 史法을 모방함이라. 官政을 記함으로써 褒貶을 나타내고, 災異를 기록하고 庶徵을 驗證하며, 고려 이전 일은 불분명 하여 傳記가 없으므로 또한 外書로 補作하니 探考에 徵據가 있어 傳舊의 뜻을 붙이며 闕疑의 道를 삼가면서 산천, 풍속, 인물, 물산 등도 기술하고 규모 절차가 井井不紊하여 상세하되 支離함이 없고 省略하되 疎漏함이 없으니 良工 홀로 苦心함이 크다 할 수 있다. 한번 책을 펼침에 어찌 本洲故實만 확연히 눈에 띄겠는가, 또한 本朝 列聖의 柔遠之化가 산 높고, 바다 깊은 것 같이 愛君憂國 하는 충의의 마음을 아연히 분발케 하며 惻然히 感泣케 하니 世道에 裨補함이 어찌 적다 할 수 있으리오.”

○ 주요 사실 기록

민란·반란 등 주요 사건 기록
관아 및 건물·도로, 방어시설, 기념비 등 신축·중수 관련 기록
행정구역의 정비·변경 등 기록
목장 관련 기록
세금 및 진상 관련 기록
재해 및 진휼 기록

○ 사실의 고증 문제

탐라 명칭에 대한 고증 : 島國(섬나라)
주호국을 탐라로 비정
삼성신화의 신뢰성 문제
탐라 성주·왕자의 신라 입조 사실에 의문 제기
호종단 입도설에 의문 제기
梁浩의 元 來朝 : 양호의 성주·왕자 칭호 문제
문씨(문창우)의 왕자직 계승 사실
고려 때 현존 형성 연대 미상
면·리의 所任, 폐설 연대 미상
차귀진 신설 시기에 대한 기록 相違
영혜당 설치 시기
옹중석의 설치 및 기원
송시열의 ‘曾朱壁立’ 글씨 본떠온 경위

○ 인물 기록

제주출신 인물	고조기, 고득중, 고대필, 고대정, 김양필 교수, 오섬, 김만일, 김진용, 오흥태 유생 四絶 : 양유성, 고흥진, 문영후, 진국태 강봉서 장령, 급제자 김명현, 고명학 행수 김만덕, 부종인 대정현감 표류인 고한록, 목리 양성진
효자 효녀	효자 김정, 효자 진대석, 효자 고찬원, 효자 흥달한, 효부 김옥, 효자 강운 열녀 오씨, 열녀 김씨, 효자 이필완, 효자 박계곤, 효자 고윤문, 현윤경 효자 부친겸, 현원상, 효자 신치득, 효자 고한원, 효부 김씨, 효자 김광숙, 효자 이필완, 효자 이계징
열녀 정녀	貞女 정씨, 열녀 천덕, 열녀 국지, 열녀 주씨, 흥씨, 夫姓의 처, 열녀 유진, 열녀 오씨, 열녀 천향, 열녀 김씨, 정부 박씨, 충비 고소락, 정녀 옥매, 열녀 오씨, 열녀 김씨, 양씨, 김씨, 열녀 김씨, 양씨, 열녀 문씨, 정녀 고씨, 절부 고씨(절부암)
목민관	김구 관관, 김지석 부사, 최해산 목사, 기건 목사, 이약동 목사, 서련 관관, 조인후 관관, 이형상 목사, 정석빈 목사, 김정 목사, 김운 목사, 신광익 목사, 윤시동 목사, 허명 목사, 이원팔 목사, 이행교 목사, 정기원 목사, 양현수 목사, 김응우 관관, 이규원 목사, 이봉헌 목사, 이재호 목사, 김창수 군수
유배인	충암 김정, 광산부부인, 송인수·김상헌·정은·송시열
기타	진량, 박연, 하멜

- 민란·반란 주동자, 진압자 기록
- 표류·표착자 기록
- 獄事 관련 인물 기록

○ 역사적 평가(‘按’의 형식을 빌려 자신의 사론을 펼침)

- 林樸의 도입 : 제주사람들의 비방 사실에 대한 평
- 성주·왕자직의 폐지, 탐라가 없어짐 : 최해산 목사 때 관부가 화재로 모두 불타서 천 년 가까운 기록이 사라짐
- 제주의 토지제도와 조세제도
- 제주성 축성 : “怨築城”
- 유구국 왕자 살해 사실 : “제주사람이 유구에 표도하면 제주 출신임을 감추고 강지·해남 사람이라고 속이는” 관례 성립 경위 설명
- 이형상 목사의 신당 혁파 : 매우 높게 평가
- 양재해란 : 김재검의 역할, 윤광종의 최후
- 강제검란 : 목장전 수탈의 문제 지적
- 서원 훼손에 대한 비판
- 이재수란 : 교회측의 횡포에 대한 통렬한 비판

4. 제주역사 주요사건에 대한 史論

○ 양수란

1168년 겨울 11월에 土賊 良守 등이 作亂하여 수재를 쫓아냈다. 왕은 최척경이 일찍이 탐라를 守宰함에 백성들이 애모하는 고로

다시 탐라령으로 삼아 조동회를 안무사로 하여 선유함에 賊徒가 항복하였다.

○ 삼별초란

1271년 여름에 賊의 괴수 金通精이 입구하였다. 이때 추토사 金方慶이 몽고장 혼도 등과 더불어 진도의 적을 토벌하여 이를 크게 격파하니 김통정이 여중으로 귀일촌을 함락하여 점거하였다. …… 1272년 여름에 적이 내외 토성을 쌓아 출몰 노략함에 해변이 소연하였다. 성주 고인단과 왕자 문창우는 사자를 왕경에 보내어 아뢰었다.

○ 목호란

1362년 가을 8월에 목호 고독불화와 석질리필사 등이 성주 고복수와 더불어 叛하여 원에 예속하기를 청하였다.

1372년 봄 3월에 목호가 반란을 일으켜 어마사 유경원 및 목사 이용장을 죽였다.

1374년 가을 8월에 공민왕은 문하찬성사 崔瑩 등을 파견하여 목호를 토벌하게 하였다.

○ 소덕유·길운절 모반 기도(문충기란)

1601년 여름 6월에 都事를 보내어 賊魁 소덕유를 나포하여 갔다. 길운절이 제주에 숨어들어와 덕유 및 중 혜수와 이 고을 문충기, 홍경원, 김정걸, 이지, 김대정, 김종 등이 不軌를 꾀하다가 ……

○ 양제해란

史氏 가로되, 제해의 옥사를 사람들이 모두 윤광종에게서 나온 것을 알지만 김재검의 주장이었음을 알지 못함은 어찌함인가. 島人 이 시비에 어둡고 겨우 수십 년을 지내고 이목이 미치지 못하는 바 되면 곧 賢愚邪正을 거의 알지 못하니 통탄할 일이다. 그러나 그 옥사가 이루어짐에 광종은 공으로 명월만호를 상 받아 스스로 得計라 하였으나 얼마 안가서 말에서 떨어져 죽었고, 성 옆에 묻으니 성이 무너져 눌러졌으며 재검은 비록 몸은 죄를 면하였으나 그 자식 및 손자는 마침에 奸誤로 해서 죽었으니 天道가 참람치 아니함이 족히 후세의 소인들에게 경계가 될 것인저.

→ 최근 발굴된 「상찬계시말」의 내용과 일치됨

○ 강제검란

강제검·김홍채 등이 난리를 꾸며 목사 임헌대를 쫓아냈다. 때에 場火稅를 함부로 거두어 원망하는 자가 많아 제검 등이 폐습을 구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이에 향응하는 자가 매우 많아서 주성을 함락하고 가옥을 헐어내고 奸吏를 杖殺하고 목사 임헌대를 화북포로 쫓아냈다.

고성겸이 말하기를, “牧場田에 세를 매기는 일은 풍흉에 따르는 것이 예로 되어 있었으니 소요가 일어나는 것은 다른 데 까닭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굶주림과 추위가 몸에 절실한데 호소할 곳이 없으니 혹 어리석은 이가 한번 외침이 있으면 그림자 따라 이에 향응하는 자가 곧 수만 인이 되니 백성을 다스리는 자 되어서 삼가지 않을 수 있으리오.”

○ 방성칠란

1898년 봄 정월에 妖賊 방성칠이 난을 꾸며 주성을 함락하고 목사 이병휘를 쫓아내고 수리 문주호는 죽음을 당하였다. 성질은 본디 동북군 사람으로 일찍이 바다를 따라 배를 타고 와 살았는데 房杜之讖으로 말미암아 불쾌한 마음을 품어 민심을 흘린 지 오래였다. …… 적의 괴수 성질이 伏誅되었다. 전 현감 홍재진 송두옥 등이 창의소를 설치하였다.

○ 이재수란

『탐라기년』에는 이재수란에 관한 기록을 매우 자세하게 남겨 놓았다. 오대현·강우백·이재수 등이 “倡義하여 西教黨을 討伐한 것”이라고 다. 또한 “이재수 등이 城中에 들어가 斥邪旗를 세워 賊黨 4백여 명을 다 죽였는데, 여론이 통쾌하게 여겼다. 斥邪扶正에 古수를 통틀어 한계가 있으리오만, 누가 창칼을 잡고 화살과 돌을 무릅쓰며 결단을 이 사람들처럼 할 자가 있겠는가. 소위 맹자가 말한 聖人の 무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이재수 등의 거사를 유교적 관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하였다. 즉 위정척사적인 관점에서 의병을 일으킨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의 유교적인 인식은 1931년 일본에서 저술한 「天主教亂記」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서문에서 김석익은,

“光武년간에 西教가 제주에 유입되어 …… 저들 선교사들이 그 나라의 강력함과 위세에 의지하기 때문에 억누를 수가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죄를 피해 도망치거나 무뢰배들이 모두 서교에 들어가게 되었다. 수년 사이에 그 교도들이 섬 안에 가득하게 되어 적

당의 소굴이 되었는데 외쳐대고 날뛰는 기세가 불꽃처럼 대단하여 매우 두려웠다. 이에 오대현이 먼저 성토했을 것을 부르짖었고 강우백이 이어서 화답하였다. 격문이 당도하는 곳마다 용약하며 향응하여 그 기세가 맹렬한 우레와 같았다. 이때 이재수는 원래 신분은 한미하여 오대현의 부하로 있었는데 사졸들이 모여들지 않아서 오대현이 적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에 이재수가 부르짖으며 말하였다. …… 적당을 찾아 수색하여 사로잡아 모두 죽여 버렸다. 이는 실로 동아시아의 유사 이래 없던 일이라고 하겠다.”라고 하여, 강한 척사론적 입장에서 이 사건을 평가하고 있음이 재확인된다.

『천주교란기』에는 기존의 연구에서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이재수의 민란 참여 동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특징이다. 이재수는 민란에 가담하기 이전에 대정군수 채구석과 함께 정의교당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오신락의 시체 검안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 “무릇 천주교 세력에 핍박을 받아 감히 살인한 범인을 잡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재수는 의분의 피가 끓어 두 주먹을 불끈 쥐었었다. 그러나 이때는 오히려 가문과 지위를 함께 존중하는 시대였다. 그래서 재수는 일개 아래 읍의 관예로 인망을 얻기 못하고 격분하는 정신만 격려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이재수는 분노를 느꼈으나 미천한 신분이었으므로 전면에 나서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민회가 소집되어 오대현과 강우백이 중심이 되어 정소 운동을 전개하여가자 그는 오대현의 부하로 민란에 가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측의 한림민회소 습격으로 말미암아 오대현이 잡혀 버리게 되자 이재수가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이때의 상황을 『천주교란기』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때에 재수는 오대현 휘하에서 알선하였으나 매양 주장의 유

약함을 못마땅하게 여기더니 마침내 주장이 적당에게 붙잡혀 군중이 해체하게 되었다. … 재수 이에 강우백과 조사생 오대현(오대현의 형) 등으로부터 하늘에 맹세하고 권토중래의 장도로 다시 대정으로 향하여 흩어진 나머지 무리들을 수습하고 향읍과 방곡에 호소 결문을 전하니 사방 인민이 더욱 격분하여 일시에 손뼉치며 향응하는 자 마름같이 일어나며 구름같이 뭉쳐든다.”

즉, 이재수가 평소 오대현의 온건노선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오대현이 교회측에 붙잡힌 것을 계기로 민군의 대표자로 나섰다. 그가 민군의 대장으로 대두되자 민란도 무력에 의한 강경노선으로 급선회하게 되었다. 그는 곧바로 작전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민군을 동도군과 서도군으로 나누어 도 일원의 주민들을 다시 규합하여 제주성으로 향하게 되었다.

○ 해녀항일투쟁

요즘에 와서 비로소 관에서 해녀조합을 두어 세를 거두었다. 해녀라 함은 잠수녀를 일컫는다. 조합에는 조합장·이사·서기 등이 있어 잠수들이 채취한 것을 독점해 관장했고 매매와 시세의 높낮음이 오로지 조합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까닭에 원성이 높았고 인심이 크게 동요되었다. 이 해에 島司 田口禎熹가 세화리 주재소를 지날 때 근처의 잠수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여들어 사람들마다 鮑槍을 들고 길을 막고 억울함을 호소함에 도사가 거짓 허락하여 그들을 해산시키고 돌아온 즉시 잠수와 배후의 선동자들을 모두 체포하고 그래도 부족하여 전남경찰대를 불러들여 철저히 수색·체포함에 전도가 喪氣하였다. 그 중 신재홍·문도배·김시곤·김순중 등 10여 명이 모두 선동죄로 징역에 처해졌고 그 외에도 매맞은 후탈

로 끝내 죽은 자가 수없이 많았다.

○ 4·3사건

『심재집』에 수록된 여러 저술에서 언급,

“조선이 비록 일본에 빼앗겼다고 하나 다시 미국과 소련의 통치에 들어갔다. 38선 이북은 소련이 주장하고 38선 이남은 미국이 홀로 담당하였다. 이때를 당하여 안재홍, 이승만의 무리들이 서로 이어서 정권을 잡고 남조선의 사람들을 쓰니 오직 그 좋아하는 이들을 썼다. 이때에 다급한 무리들이 관을 털고 일어나 큰 벼슬을 맡는 것을 풀잎을 줍듯 하였다.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염치는 쓸어버린 듯하니 대잔의 끝에 이르렀다.”

“우리 제주도의 소요(4·3사건)의 발판을 3·1절 기념식 날 경찰들의 발포에서 시작되어 고문하고 잡아가둠이 점점 많아져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다. 실제로 조병옥이 조장한 것이다. 또 경찰들이 총포를 자행하고 권위를 너무 써서 山軍의 소동을 양성시켰다. 실제로 조병옥이 계도한 것이다. 아! 경관의 방자한 발포가 그 동기는 심히 미미하지만 그에 관계된 일(4·3사건)은 아주 크다. 애석하게도 조병옥이 경찰들을 징계하여 민심을 편안케 위무하지 못하고 반대로 경찰권을 조장하여 민중들을 탄압하는 것을 보안의 좋은 방책으로 삼았으니 착오라고 말할 수 있다. 4·3사건의 시작을 살펴보면 무한한 참극이 실제로는 조병옥의 입장박론에서 시작되었다. 경전에서 말한 ‘한 사람이 일을 그르친다’라고 한 것은 조병옥을 두고 한 말인가.”

“지난해 3월 1일 이후부터 경관의 무리들이 있는 권한을 자행하

여 조금이라도 관변에 혐오가 있으면 일망타진하여 지지고 북아 끝내는 중도에서 목숨을 잃게 하였다. 잡아둔 몇 사람을 내세워 모두 병으로 죽였다 꾸민 까닭으로 사람들은 의심을 품어 아침저녁을 보전하기 어려웠다. 이때에 한 무리의 피의자가 무리를 모아 산으로 피하여 들어가 공작을 잠행하였다. 마침 국회의원 선거 시기에 선거 사무소를 습격하니 이것이 이른바 4·3사건이다. 이때부터 경찰지서, 면사무소, 민간인의 마을을 습격하여 끊이는 날이 없었다.”

「탐라기년 부록」

“정부에서 파견한 군인 중에도 또한 산군에 호응하여 산간으로 투입하는 자가 있었다. 송요찬, 함병선의 전후 소탕은 참혹하였다. 그러한 때를 당하여 그 사이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였을까? 이미 산군의 공갈을 받았고 또 군인과 경찰의 위협에 겁먹었다. 또 서북청년이 발호하여 생살여탈의 권한을 쥐었으니 이들이 누구의 조종에 의하여 행동했는가? 사람 죽이기를 삼 배듯 하여 동색피가 길을 덮었다. 아! 산중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면 군인 경찰의 칼날에 영켜 죽었을 뿐이다. 이때에 사람들은 발을 무겁게 가져 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며 죽음이 오히려 나았는지 죽는 것이 차라리 좋은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이리 같이 어깨를 움추려 아침에 저녁일을 피하지 못하였다.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은 것은 실제로 이러한 때문이었다. 유사 이래 없었던 참화이다. … 6·25사변 발생에 이르기까지 조금이나마 지식과 덕망 있는 자를 일소하여 거의 다 죽였다.”

자신의 아들이 진주형무소에서 수감되어 있다가 한국전쟁 직후 총살당한 제주지역의 유학자 金景鍾은 매우 강한 어조로 이승만

대통령에게 호소의 글을 보냈다. 1949년 작성한 서한에서 “본도의 백성들은 모두 다 폭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70·80대 노약자와 부녀자, 어린아이들에게 이와 같이 참혹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 군인들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합니다. … 많은 죽은 자들은 선량한 백성들로서 늙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죽지 않은 자들은 불량한 젊은이들입니다. 죽어 마땅한데 죽지 않고, 죽지 말아야 하는데 죽는 것, 이것은 신령과 사람이 원통해 하고 노여워하는 것입니다. … 무죄한데 참혹하게 죽은 혼령들을 널리 불러내어 죽은 귀신들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호소하였다.

아들의 죽음을 확인한 1950년에 그는 “이승만의 죄는 천 번 참수하고 만 번 도륙을 내어도 오히려 남은 죄가 있다. 감히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예와 같이(항우가 진나라의 항복한 병사 40만을 죽인 사례) 이 백성의 위에 거한다. … 어찌하여 스스로 그 백성을 죽여 시체가 산과 같고 흐르는 피가 내를 이르게 하였는가(積尸如山 流血成川)?”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유학자의 입장에서 군주-백성론을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에 적용시켜 비판하였던 것이다.

김정중은 4·3으로 인한 사자들 대부분의 죄가 터무니없이 덧씌워졌다고 인식하였다. 그는 “요즘의 국가의 난적은 곧 공산당의 살인방화자이다. 만약 그 공산당의 무리라면 죽임이 가하고 멸함이 가할 것이다. 지금 이른바 죄수라는 자들 모두가 다 그러한 무리는 아니다. 경찰들은 산중의 폭도를 보면 머뭇거리며 피하고 체포도 할 수 없으면서 다만 민간의 혐의자들만 체포하여 죄목을 끌어 만든다.”고 하여, 폭도와 민간인을 구분함으로써 민간인의 죽음을 무고한 희생으로 인식하려고 하였다.

【참고문헌】

- 김동전, 2004, 「심재 김석익의 역사저술과 역사인식」, 『구한말 한 지식인의 일생 - 心齋 金錫翼』, 통천문화사.
- 김찬흡, 2000, 『20세기 제주인명사전』, 제주문화원,
_____, 2005, 『제주항일인사실기』, 북제주문화원.
- 오문복, 2004, 「심재 김석익 선생을 기리며」, 『구한말 한 지식인의 일생 - 心齋 金錫翼』, 통천문화사.